

현대불교

☎ 구독신청 02)2004-8212 | buddhanews.com |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4월 9일(음력 3월 4일) 수요일 (주간) | 제674 호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등불’ 꺼져도 빛은 밝아…

독자 특별기고

명현성(본명 김용숙) 불자

아름다운 인연은 아름다운 동행이 되지만 때가 되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이별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불자들은 알고 있다. 이별이란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신행의 현장에서 함께 하던 도반과의 이별, 이 역시 한 때의 슬픔과 그리움일지라도 결국 아름다운 재회를 위해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본지(本紙)의 오랜 독자 명현성(본명 김용숙) 불자가 도반 자은만 보살님의 49재(4월 5일)를 맞아 먼저 간 벗을 그리는 편지를 보내왔다. 자신의 수행과 이웃의 행복 그리고 만중생의 성불을 위해 참 불자의 삶을 살다 간 한 불자의 생활과 그를 그리는 도반의 마음이 절절하기만 하다. <편집자 주>



병마 중에도 보살행 귀감 보여준 자은만 보살
다음 생에서도 다시 도반으로 만날 수 있길…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도반 자은만 보살님은 서울 송파구 석촌 호숫가에 위치한 불광사 불광유치원의 초대 원장님이었습니다. 4월 5일이면 보살님이 68세의 나이로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신 지 49일이 됩니다. 저는 자은만 보살님이 23년 동안 병마와 씨름하는 고통을 지켜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저에게 ‘현대불교’의 구독을 권유하여 좋은 인연을 맺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현대불교’는 자은만 보살님과 더불어 영원한 저의 도반이 되었고 매주 수요일을 기다리는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도반 자은만 보살님의 실체는 온데간데없고, 이 마음 가득한 그리움을 진정키 어려워 불현듯 눈물이 솟구칩니다. 9년 전 광덕 큰스님도 떠나셨고 지금은 스님에게 총애 받던 자은만 보살님도 없는 이곳에 홀로 남은 저는 그분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이 그리울 때 어김없이 나를 찾아주는 ‘현대불교’가 있기에 더 열심히 구독하고 공부하여 보살님 뒤를 이어 정진을 열심히 하려합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양식을 차곡차곡 쌓아서 보살님을 만나는 날 자랑하겠습니다.

보살님! 다시 그리움의 세월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렇게도 오랜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보살님은 불광유치원 개원도 하고 경찰병원법당, 국립의료원법당, 서울대학병원법당, 보현행원품 공연, 불광바라밀교육, 명교사교육 등 많은 봉사활동도 동참하며 주변 불자들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 주었지요. 또 한마음선원 대행 큰스님과의 인연으로 쌓은 정진 수행 공덕은 보살님을 더욱더 빛나게 밝혀주었습니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의 기획실장인 승원 스님께서 보살님이 사경을 헤매실 때 스님의 포교당 공양실 처소에 기거시키며 용맹정진 기도로 회생시켜주셨던 일들도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경찰병원 혜광 스님께서도 많은 노력과 기도로 이끌어 주셨지요.

무엇보다 3년 전 부군이신 김태문 거사님께서 급성병마로 중환자실에 계실 때도 보살님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일체를 맡기시고 기도 정진하시어 거사님을 정상인으로 우뚝 세워 드렸습니다. 그 기적 앞에서 도반들은 얼마나 큰 환희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서는 1%의 가능성을 말할 때 보살님은 “우리 부처님께서 100%확신을 주셨다”고 장담하며 매일매일 기도에 몰입하고 당신이 서 있는 곳, 앉아 있는 곳 분별없이 다 법당이라고 끊임없는 기도를 눈물겹도록 하였습니다. 온 가족에게 행복과 안락이 가득 찰 즈음 보살님께서 병석에 누우셨고 가족과 도반과 모든 인연에게 슬픔을 남기고 홀연히 떠나셨습니다.

보살님은 생전에도 남달리 보살행을 실천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한 푼 이라도 절약하고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하루에 2~3시간씩 대치동에서 안양을 오가며 한마음선원의 하안거 동안거를 성만한 것은 참으로 대단한 모범이었습니다. 또한 자은만 보살님 부부는 젊은 나이에 시신을 의료연구용으로 기증을 하며 무상의 도리를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보살행 하나하나가 남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귀감이 되었는지 도반으로서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보살님이 곁에 있을 때는 존경스럽기만 했는데 이제 떠나신 공간에는 절절한 그리움만 가득합니다. 광덕 큰스님께서 생전에 “불광인은 영원한 광명의 등불이며 호법의 선두자”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 말씀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없이 행복하게 부처님의 깨달음과 광명을 안고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은만 보살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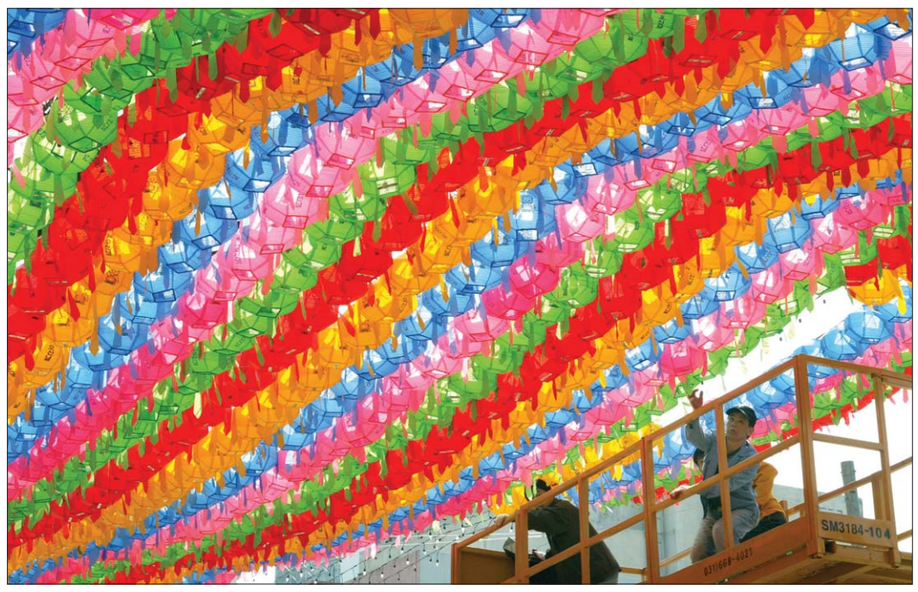
당신을 그리며 보살님께서 기도생활의 철칙인 <금강경>수지 독송, 사경,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살님과 저는 생일날도 똑같고 1966년 11월 12일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린 것도 보통 인연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인연의 실타래를 이제 저 혼자 감당하고 있자니 시시각각 그리움에 눈이 아려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살님께서 펑펑 우시며 전화로 내 손가락이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사경을 못하고 있다면서 대성통곡을 하신 기억이 가슴 저미도록 아픕니다. 보살님 못 다한 <금강경> 사경을 이 도반이 완성하여 보살님께 바치겠습니다.

자은만 보살님!

이제는 고통 없는 서방정토 아미타국 가셔서 환희와 복락 영원토록 누리시소서. 다음 생에도 도반으로 만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는 슬퍼하지 않고 용맹 정진하는 바라밀 행자로 거듭날 것이며, 보살님과 같이 보살도를 잘 닦아서 바르게 살 것을 보살님 영전에 맹세하겠습니다. 대불광의 영원한 등불이시어 빛으로 돌아오소서.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사진 오른쪽은 자은만·왼쪽은 명현성 불자



“부처님 오시는 길 밝힙니다”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 여 앞둔 4월 4일, 전국의 사찰에서 본격적인 봉축행사 준비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 조계사에 색색의 연등이 내걸리기 시작했다. 등불 하나하나에 부처님 오신 뜻을 밝히고, 너와 내가 따로 없는 ‘부처님 세상’이 되기를 서원하는 마음이 함께 담긴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올 연등축제 동대문축구장서

서울시, 봉축일 이후로 철거 연기 결정

동국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올해 연등축제가 5월 4일 동대문축구장에서 열린다.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위원장 지관)는 4월 3일 “부처님오신날 어울림마당(연등법회)과 제등행렬 출발장소를 동대문축구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봉축위원회는 지난 1월 동대문운동장 철거로 인해 어울림마당과 제등행렬을 4월 27일과 5월 4일 분리해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협조로 동대문축구장의 철거가 연기됨에 따라 두 행사를 같은 날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4월 27일 서울 잠실체조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어울림마당 행사는 5월 4일 동대문축구장에서 출발하는 제등행렬에 앞서 진행된다.

지난해까지 어울림마당을 봉행했던 동대문야구장은 지난 12월부터 철거가 시작됐으며, 축구장도 4월경 철거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연등축제의 세계적인 위상과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 축구장 철거를 부처님오신날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축위원회 박상희 팀장은 “장소 및 일정 변경으로 교통체증과 참가인원 감소 등의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서울시의 협조로 무사히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됐다”며 “변경된 일정에 맞춰 어울림마당과 제등행렬을 국민적 축제로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축위원회는 최근 연등축제 대중율동곡 <연등축제의 노래 3> 음반과 악보집을 선보였다. 율동곡에 맞춘 율동 안무는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홈페이지(www.burec.org)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다. (02)2011-1745 여수령 기자



허허당의 세상만사

■ 홀로선 자

아름다워라 홀로선 자
이세상 어떤 기쁨도
고요히 스스로
홀로 있는 기쁨만 못하리.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형사
가사·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김영화 변호사)
017-535-0685(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전국봄꽃축제 안내 ▶18면

참가업체모집

2008한국불교박람회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불교산업과 불교문화의 역사적 만남
Korean Buddhism Expo 2008
2008 한국불교박람회
2008. 9. 5(금) ▶ 9. 8(월)
KINTEX(한국국제전시장)

참가분야
종단, 사찰, 학교홍보관, 불교건축
불교용품, 전통공예품, 차 · 전통식품
다기·다구, 불교장례문화 등

참가기한
2008년 4월 1일부터 선착순

참가비 및 제공내역 (부가세 별도)

기 본 부 스	독 립 부 스
1,700,000원 / 1부스(9㎡)	1,500,000원 / 1부스(9㎡)
상호간판 / 시스템 벽면 / 조명 책상, 의자 각 1개	전시면적만 제공 (부스장치공사 참가사 부담)

※ 식품, 차, 의류관련 부스는 특별할인(문의요함)

주 최 _ 불교신문사, (주)제이컨벤션
후 원 _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문 의 _ 2008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02)706-3493
홈페이지 _ www.bexpo.org

‘3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기준 강화

조계종 10월부터 새 기준 적용…연수교육 이수 등 필수

앞으로 조계종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과 고시위원회(위원장 법산)는 오는 10월 9~17일 실시되는 제6회 3급 승가고시 및 연수교육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해 4월 2일 발표했다. 조계종은 승가고시법이 개정된 2001년부터 3급 승가고시와 승가고시산림을 시행해왔다. 그간 1991~94년 수계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승가고시는 승가고시법 부칙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승가고시법이 정한 응시자격에 의거해 3급 승가고시가 시행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부터 3급 승가고시의 자격기준과 응시 및 시험제도도 크게 바뀌었다. 승가고시법 제9조에 따르면,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납 10년 이상인 자로서 구족계와 견덕(비구니 계덕) 법계 수지 후 교육원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선원 4안거를 성만해야 한다. 또는 법계 수지 후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거나 총무원장 · 교육원장 · 포교원장 ·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가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4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이 같은 응시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교육원이 개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연수교육은 출가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점검하고 도제 양성과 주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부장 퇴휴 스님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종단 주요 업무, 사회인식 등 다방면에 걸친 실무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연수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승가고시는 <금강경> <조계종사>의 공통필수와 3군으로 나눠진 선택과목, 수행이력과 서류심사 · 면접갈마로 진행되는 수행평가로 이뤄진다. 논술에는 400점이 배정돼 각 과목 평균 60점 이상, 총점 24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수행평가에는 100점이 배정돼 역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논술시험은 100% 논술형으로 각 과목마다 3문항을 출제해 2개를 선택해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 시험시간은 과목당 60분.

출제위원은 각 과목당 3명이 선정된다. 출제위원들은 시험문제 3문항을 출제하고 표준답안도 제시해 채점 시 혼란을 막을 예정이다. 또한 1, 2차 채점 결과 점수 편차가 클 경우는 3차 채점을 실시해 채점 시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고시위원장 법산 스님은 “본격적인 승가고시가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새로워진 고시 기준에 따라 승가고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원은 ‘3급 승가고시 및 연수교육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교구본사 등에 발송했다. 3급 승가고시 연수교육 접수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해당 교구본사 및 교육원에서 받는다. 입교비 30만원.(02)2011-1801~4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3급 승가고시란?

승가고시는 스님들의 위의와 자질을 점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 연한이 경과되면 치르는 일종의 자격고시다. 종단에 소속된 스님들은 승가고시에 합격해야 법계를 품수 받을 수 있다.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비구 중덕, 비구니 정덕 법계를 품수 받게 되며, 중덕과 정덕 법계를 받아야만 사승과 주지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물러나야”…“하자없다”

태고종 보우승가회·승정원 등 성명 공방

도법사 매각 등 태고종 총무원(원장 운산) 행정집행에 의혹을 제기했던 태고종 보우승가회(회장 도산)가 본격적으로 운산 스님 퇴진 활동에 나섰다.

보우승가회는 4월 3일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고종 총무원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산 스님은 “투명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불교종단이 운산 총무원장 개인의 독단과 전횡으로 밀실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지난 3월 5일 태고종 종단중진간부회의에서 결의된 해종 행위자 엄중 처벌 등에 대해 “운산 총무원장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내부고발자로 매도해 해종 행위자로 멸빈하려 한다”고 성토했다.

스님은 “지난 3월 5일 태고종 종단중진간부회의시 제시했던 ‘총무원장 취임 후 투명하지 않은 행정의 혹사항’ 11개 항목에 대한 답변은 말뿐으로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사찰을 교회에 현 시세지가보다 낮게 매각한 것이 공론화되자 교회에서 성금조로 3억 2000만원을 더 받았다는 해괴한 변명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산 스님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운산 스님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정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3월 31일 태고종은 승정원 · 원로회의 · 중앙종회 · 중앙사정원장 명의로 “도법사 및 극락사 매각은 종헌 · 종법과 사회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도법사 매각대금은 전승관 불사 및 도법사 이전자금으로 사용했고, 극락사는 개인재산이라 형식적인 재산처분을 승인했을 뿐”이라며 보우승가회의 주장을 반박하며 운산 총무원장에 대한 신임을 표명했다.

조동섭 기자



4월 4일 청도 운문사에서 보현율원 개원식이 봉행됐다.

청도 운문사 비구니율원 개원

봉녕·청암사 이어 3번째

청도 운문사(주지 진성)의 비구니율원 ‘보현율원’이 4월 4일 개원했다. 이로써 수원 봉녕사와 김천 청암사에 이어 세번째 비구니 율원이 문을 열게 됐다.

4일 열린 개원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과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운문사 주지 진성 스님, 보현 율원장 흥륜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청화 스님은 “운문사 보현율원 개원을 계기로 계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많은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대애도(大愛道) 비구니의 계율정신에 의거하여 청정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중생교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립 목적을 밝힌 보현율원은 앞으로 종단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운문사는 율원 개원에 따라 교육장과 방사 등의 시설을 마련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삼성특검 청원’ 참회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이 4월 2일 삼성특검 청원에 대해 참회의 뜻을 밝혔다. 계종 원로 · 중진 스님 22명은 지난 3월 24일 ‘삼성특검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청화 스님은 2일 ‘삼성특검 청원서에 대한 입장’을 통해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살피지 못하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서명한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불찰”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스님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이 보다 정의롭고 성숙한 기업경영으로 전환하여 다시는 국민적 우려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조계종 7개 위원회 구성

제176차 중앙종회에서 의장단에 위원회 구성이 위임됐던 7개 위원회가 구성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자승)는 3월 31일 의장단회의를 열고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불교미디어(신문 TV 라디오 인터넷)관리위원회 ▲종단법요집 통일을 위한 위원회 ▲불교규제 국가법령 제개정 특별위원회 ▲신촌 봉원사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흥천사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신흥불교 군종장교 파견 관련 대책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 선출은 각 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여수령 기자

‘포살결계법’ 입법 예고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지난 제176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제정안을 4월 1일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종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전화(02-2011-1710)나 이메일(pjh65@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4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시행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4월 4일 현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진행될 공청회 일정과 시행령 제정 일정 등이 공개된다. 조계종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올해 하안거(음력 4월 15일)부터 포살 및 결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불자대상’ 후보자 공모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불기 2552년 불자대상’ 후보자를 4월 18일까지 추천 받는다.

불자대상 후보자는 ▲불법홍포 ▲한국불교 위상 제고 ▲불자의 자긍심 고취 ▲종단 발전과 홍보 ▲국가 및 사회발전 등에 공로가 큰 불자면 추천 가능하다. 시상식은 5월 12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 법요식에서 진행된다. 여수령 기자

비구·비구니 265명 수계

조계종 사미 · 사미니 · 식차마나니 265명이 3월 29일 구족계를 받고 정식 스님으로 재탄생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29일 김천 직지사에서 사미 138명, 식차마나니 127명 등 총 265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8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을 봉행했다. 구족계 수계식에서 앞서 28일에는 보살계 수계식이 진행됐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추 원효성사 열반 1322주년 추모대재 모

“진리의 새벽을 여신 우리민족의 스승 원효성사의 추모대재에 불자여러분 다함께 모여 추모합시다”

◆일시 : 불기 2552(2008)년 5월 4일 (일) 오전11시 ◆장소 : 서울 효창공원 내 원효성사 성상 앞 ◆참석대상 : 불교도 및 전종도

증 명 : 벽 송
지 도 위 원 : 무진 정향 혜봉 창해 법성 도선
봉행위원장 : 향운
봉행부위원장 : 운오 법선 성해 혜담 도천 운학 태운 심상 혜일 명관
집행위원장 : 인담
부 위 원 장 : 원봉 지상 법선 효산 진산 영운 운영 금봉 석암 일륜 보각 범산 도봉 마명 명석
집 행 위 원 : 우석 상기 인명 대련 혜공 불타 지호 자성 능인 지수 선정 삼륜 화운 혜정 도현

위원 : 지견 무상 효산 보현 도경 운정 도공 성관 소연 효경 법산 청남 성묵 청광 만덕 거산 장산 성광 활원 등명 향륜 운오 송주 현수 신라 원담 지암 의전 도연 대안 법천 청산 혜원 성문 묘덕 영암 덕운 인월 창현 지수 득원 대원 운암 도각 정오 성원 원각 상경 진해 청화 경운 선무 범일 각초 해운 석암 지광 해윤 정광 혜인 월봉 선인 대련 만법 원오 법경 덕보 가화 오산 여산 지선 행선 환학 법진 지영 행엽 중일 수진 무공 지현 지원 승현 정각 송정 환원 효경 성심 성효 자운 도의 동현 혜광 용진 해광 도향 철산 성타 봉천 미선 무공 각진 법정 지영 법연 보현 아향 연화 수연 법정 준운 성오 석진 무설 청림 지혜 보명 만우 대천 지성 혜명 보영 운정 혜일 청암 호산 명수 보각 도혜 지산 석경 청운 천수 득진 무상 경옥 마성 각 사암 신도회신행단체 일동

■ 주최 :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 주관 :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 052-262-6857 / Fax 052-263-0501
연락사무소 : 02-735-0501, 0502 / Fax 02-736-3509



"중국은 티베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벌어진 티베트 유혈사태에 반대하기 위해 티베트평화연대는 매주 수요일 저녁 촛불문화제를 가진다.

'티베트 평화 염원' 촛불 밝힌다

티베트평화연대, 촛불문화제 개최

불교계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벌어진 티베트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한 티베트평화연대가 3월 31일 오후 7시 명동에서 촛불문화제를 가졌다.

티베트평화연대의 이날 촛불문화제는 국제 티베트 지원단체들이 '티베트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로 정한 3월 31일을 맞아 한국 내 티베트 지원 사회종교시민단체인 티베트평화연대도 '학살중지, 티베트에 평화를!'을 구호로 함께 활동하기로 약속하며 이뤄진 행사다.

촛불문화제에는 특히 티베트 출신의 툽상 중게 스님과 중앙승가대 교수 능인 스님(일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을 비롯한 학인 스님 30여명이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티베트평화연대는 "중국 정부는 경제 논리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돼 있는 인간의 가치를 짓밟지 말라"고 촉구하고 한국 정부에도 "세계 12위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정부가 중국의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지적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촛불문화제는 중국 영사관 근처까지 촛불을 들고 자비명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티베트평화연대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영배스님 실형 받아…항소 예정

교단자정센터 '퇴진 촉구' 성명 발표

동국학원 이사장 영배 스님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3월 31일 선고공판에서 영배 스님의 개인사찰인 흥덕사가 특별교부세 대상이 될 수 없었음에도 변양균 前 청와대 실장의 직권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변 前 실장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울산 흥덕사 등이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변양균 前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신정아씨에게는 학력 위조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영배 스님은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실형을 선고받은 영배 스님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4월 1일 성명을 통해 "영배 스님은 과거 이번 사건과 관련 동국대 이사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 만큼 모든 소임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단과 학교에서 책임 있는 공직에 있으면서 사설사암의 불사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욕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아까운 불자에게 오명을 쓰게 했다"며 "그렇기에 고위지도자로서의 도의적 양심과, 지도층의 처신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양식 정도의 수준이라도 지켜주길 바란다"며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동섭·여수령 기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를 클릭하면 東大 로스쿨 인가 '서명운동' 동참 가능

'교회 투표소' 논란 재점화 예고

서울 19%·부산 12% 등 여전히 비율 높아…인권위 권고 무색

4월 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상당수 종교시설에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3월 30일 공개한 투표소 설치 현황에 따르면 특정종교시설 내 투표소는 전체 투표소의 5%에 이르고, 대도시의 경우는 투표소의 상당수가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종교시설투표소 중 특정종교시설 투표소가 지난 대통령선거 때 집계된 1172곳에서 767곳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는 지난 대선에서 종교시설투표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서울과 부산 선거구역의 종교시설 투표소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종교시설 투표소 비율은 서울 19.3%, 부산 12.3%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전체 2210개 투표소 중 426개(19.3%)가 종교시설투표소로 집계됐다. 지난 대선 때의 23.1%에서는 약 3.8% 감소한 수치지만 교회 내 투표소는 386개로 전체 종교시설투표소의 90.6%를 차지했다. 지난 대선기간에 설치된 교회 투표소 468개(91.6%)에서 불과 1%(82개소) 밖에 줄어들지 않은 수치다. 특히 용산구는 전체 투표소 59곳 중 22곳(37.28%)이 종교시설 투표소고 이중 교회 투표소는 20곳(33.9%)에 달한다. 즉 구내 투표소 3곳 중 1곳이 교회투표소인 셈이다. 은평구 역시 투표소 90곳 중 31곳(34.4%)이 종교시설투표소였고, 이중 29곳(33.2)이 교회투표소였다. 반면 노원구는 종교시설투표소가 단 1곳에 불과했다.

'불교 도시'라 불리는 부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체 868개 투표소 가운데 종교시설투표소는 107개로 약 12.3%에 달한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집계된 13.6% 보다는 약 1.3% 감소된 수치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도 교회시설 내 투표소가 90개로, 종교시설투표소의 8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19일 중앙선관위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하지 말라"고 권고한 사실이 무색할 정도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은 "선관위가 종교시설투표소를 줄였다 홍보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교회시설이 줄어든 것만 집계한 수치"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종교시설투표소 문제가 눈에 띄게 개선되기를 기대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어떻게 대응할지 모색 중"이라 밝혔다.

〈참고자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2008년 2월 조사자료〉

여수령 · 김강진 기자

조계종 강원 · 비구니스님들도

'대운하 반대운동' 동참

4 · 9총선을 앞두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주요 선거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불교계의 대운하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와 전국비구니선문회는 3월 30일 공동성명서 '한반도 대운하건설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토를 파괴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운하 사업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끊임없는 기도와 정진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조계종 전국강원연합회(회장 효진)도 4월 2일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연합회는 "한반도의 근간인 백두대간과 우리의 산하를 경제성이니 물류혁신이니 하는 논리를 앞세워 파괴하려는 것은 수행 도량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맑고 향기롭고 청정한 마음을 파괴함과 같다"며 "소위 '이명박 운하'의 헛된 구상을 거두어줄 것"을 촉구했다.

여수령 기자



불교시민단체 공모사업 선정

불교아카데미 등 5곳

조계종 사회부(부장 세영)가 주최한 '2008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결과 불교아카데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코붓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나눔의집이 제안한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사회부는 3월 28일 심사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2개 단체가 사업을 신청했다.

선정 사업 중 ▲불교아카데미의 '중 · 고령자 제2인생설계프로젝트-4060 M · Y행복설계아카데미'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新산중운동: 불교농촌살리기 운동' ▲에코붓다의 '나비와 함께하는 불자 환경실천 지침서 만들기'에는 각각 10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의 '제3회 동대문구 방과후교실 연합생태체험&템플스테이 난대로 결대로' ▲나눔의집의 '평화의 길과 모색'에는 각각 480만원, 660만원이 지원된다. 공모사업 지원금으로 책정된 4500만원 중 4100만원은 지원금으로, 잔여금은 우수 평가 사업의 홍보에 쓰인다.

한편, 사회부는 각 사업이 종료된 후 2009년 1월 결과발표회를 개최하고 결과자료집도 제작 ·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불교방송, IPTV사업 진출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은 4월 1일 IPTV 진출을 골자로 한 영상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영담 스님은 "불교TV의 통합제의 거부와 관계없이 불교방송의 영상분야 진출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영상 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 2년 이상 인터넷 TV에 투자해왔다는 불교방송은 현재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한 스튜디오 개선 공사를 시작으로 차후 30~40억 원을 들여 영상방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통합미디어를 갖추기 위해 BBS 라디오 방송과 별도로, BBS저널을 주간 발행으로 전환하고 판형과 제호도 리뉴얼한다. 영담 스님은 "IPTV 사업 진출을 계기로 불교TV와 불교방송의 선의의 경쟁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설법 보다 '茶道'로 인성교육 어때요"

청주 화장사 유치원 교사 대상 다도교육

"차(茶)자리를 준비하는 것부터 나를 들여다보는 명상의 시작입니다. 차를 마시며 나를 들여다보고 나에 대해 인식을 바꿔보세요."

3월 27일, 청주 화장사(주지 무진) 법당에 초의차명상연구원장 지장 스님(서울 대원정사 주지)의 나지막한 말소리가 울려 퍼졌다. 교육 참가자들은 이내 담소를 멈추고 가부좌를 틀었다. 이날은 청주 화장사(주지 무진)가 청주시내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도교육의 마지막 날. 저녁 늦은 시간이지만 청주 벽암 어린이집, 용전 어린이집, 주성 어린이집 등 3곳의 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에 참가했다. 다구를 옮기고 차를 따르는 손길에 집중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진지하기만 하다.

화장사는 지난 3월 6일부터 4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다도교육을 진행해왔다. '아이들에게 차(茶) 공부를 통해 우리 전통을 익히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교육을 주관한 화장사 주지 무진 스님은 20년 전 다도(茶道)를 접하고 다도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무진 스님은 "아이들에게 딱딱한 설법을 하기보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를 전해주는 것이 포교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에게 다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다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처음으로 실시한 교육이지만 선생님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유치원 선생님들을 위한 다도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생님 한 분이 다도를 체계적으로 배운다면 교육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다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에 참여한 교사들은 처음에는 다도와 예절, 명상 등이 낯설기만 했다. 4주간의 교육 내용을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았다. 청주 용전어린이집 정세희 교사는 "명상과 다도의 철학적인 이론을 아이들에게 쉽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저 역시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낯설었지만 차츰 익숙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정 교사는 "다도교육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아이들에게도 우리 전통을 배우고, 차분함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3월 27일 열린 다도교육에 참가한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차 따르는 법을 배우고 있다.

청주 용전어린이집 정정희 원장은 "현재 아이들에게 놀이시간을 이용해서 절하는 방법이나 명상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4월부터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할 예정"이라며 "다도 교육은 분명히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다른 유치원 원장들에게 이 교육을 추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손효선 기자


대구지역 불교유치원 재학생 12명이 동자승 체험을 위해 4월 2일 삭발을 했다.

"꾸러기들이 스님 됐어요"

대구 동화사 동자승 삭발식

불기2552년 부처님오신날 대구봉축위원회(위원장 허운)는 4월 2일 제9교구본사 대구 동화사에서 동자승 단기출가 삭발식을 개최했다. 이번 단기출가에는 지역 불교유치원에 재학 중인 12명의 어린이가 참가했다.

이날 동자승들은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에게 어린이 오계와 법명을 받고 출가체험을 시작했다. 허운 스님은 "동심이 곧 불심이고, 불심은 또한 동심"이라며 "불자들이 동자승의 맑고 깨끗한 모습을 보면서 동심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동자승들은 앞으로 봉축행사에 참가해 부처님오신뜻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한편, 4월 10~11일에는 금강산 신계사도 참배한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불국성림원 본격 운영 개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실비 요양시설 '불국성림원'이 4월 3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에 문을 연 불국성림원은 1300㎡(약 400여 평)의 지상 2층 규모로 물리치료실과 목욕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치매와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실비만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수용인원은 50여 명 정도다.

이날 개막식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과 김영일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백상승 경주시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을 봉행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내 나무 심기' 템플스테이

뽕잎차로 불자들에게 유명한 합천 금강선원(주지 초중)은 4월 12~13일 양일간 '내 나무심기' 템플스테이를 연다. 참가자들은 금강선원 도량에 내 나무 심기와 더불어 참선체험, 불교예경의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 사물을 관찰하는 법,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법 등을 배우게 된다. 선착순 20명. 개인 및 가족단위 동참이 가능하다. (055)931-9590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동종 수륙 영산대재와 불치사리 친견법회에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조동종 선상고혼천도수륙재 봉행

보상사 불치사리 친견법회도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3월 24~28일 선상고혼천도수륙재 및 중국 보상사 불치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덕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종정스님은 "대자대비 하신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 이 법석이 더욱 빛나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청정한 아름자리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총무원장 덕우 스님은 "법회에 동참한 불자님들이 서로 법우로써의 예를 배우고 깨우쳐 편안하고 건강하게 여정을 마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국 보상사 불치 사리친견 법회를 마치고 보상사 주지스님과 만난 덕우 스님은 "중국와 한국의 불교가 유대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 보상사 스님들을 한국에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

대전 파라미타 사무실 문 활짝

진철·선오 스님 등 참석

대전 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회장 선오, 이하 대전파라미타)가 3월 29일 '대전 파라미타 청소년협의회 사무실 개소식 및 현판식'을 봉행했다.

이날 개소식 및 현판식은 대전 파라미타 총재 진철 스님, 대전 파라미타 회장 선오 스님, 광덕사 주지 선일 스님, 파라미타중앙회 조한곤 사무국장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철 스님은 인사말에서 "어린이 법회나 중·고등 청소년 법회가 침체돼 있어 한국 불교의 미래가 어둡다"며 "대전 파라미타가 대내외 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한국 불교의 미래에 밝은 등불을 밝히자"고 했다.

한편, 대전 파라미타는 4월 19일 총재, 부총재 추대식 및 회장 취임식을 시작으로 문화체험대회, 걷기대회, 청소년단체 연합문화축제, 만화공모전, 문화재 답사, 해외 문화탐방 등을 진행한다. 손효선 기자

고우 스님 '선요' 강좌 개최

참선수행자라면 누구나 읽고 배워야할 필독서라 알려진 고봉원묘(高峰原妙) 선사의 <선요(禪要)>를 이 시대 선지식 고우 스님(前 태백산 각화선원장, 조계종 원로의원)의 가르침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원장 허경만)이 개원 2주년을 맞아 5월 13일부터 매월 1회 진행할 예정인 '<선요>대강좌'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에 불교인재개발원이 고우 스님을 강사로 초빙한 <선요>대강좌는 불교인재개발원의 '간화선 대중화사업' 일환으로 2006년 개설된 '선지식 초청강좌'의 연장선상에서 열리는 강좌다.

강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리며 동참금은 20만원이다.(02)735-2429

김강진 기자

"새로 출가하는 기분"

군종감 전역 이종인 법사 해인사 복귀



"한단지몽이라는 말처럼 저도 이제 법사의 꿈을 깨고, 새로 출가하는 기분으로 해인사로 돌아갑니다."

육군본부 군종감 대령 이종인 법사(사진)가 3월 31일 전역을 하고 해인사 원오 스님으로 돌아왔다. "법문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이종인 법사는 법문 중에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애창곡은 '남자라는 이유'. 남자라는 이유와 군종감이라는 위치에서의 느끼는 말할 수 없는 고민 때문이란다.

이 법사는 "계룡대는 다른 부대와 달리 육·해·공군의 법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법문을 할 기회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밖에 없는데 저는 월 1회 이상은 법문을 할 수 있었다"며 "후배 법사님들이 많이 양보를 해줬기 때문일 것"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이원호 법사는 1967년 해인사로 출가해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다. 이후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사병으로 의무 복무를 마쳤다. 1985년 육군 군승 43기로 임관 해 육군본부 군종감실 종무장교, 육군 계룡대 호국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2월부터 육군 군종감 소임을 맡았다.

한편, 3월 30일 계룡대 호국사는 이종인 법사의 환송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죽암사 주지 도광 스님과 공곡 스님, 정연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손효선 기자

釋 明 書

1. 대다수 태고종도는 법보신문을 불신한다

가. 불교언론은 불교계의 전문지로서 진실에 입각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책임성 있는 올바른 정보와 지식전달 등의 역할을 자임하고, 언론기능의 보편성과 더불어 종교적 양심과 윤리성마저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언론의 책임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근래 법보신문은 불교계의 정서를 선동하는 의혹 기사를 남발하여 태고종과 운산 총무원장을 흠집내기 위한 불순한 목적이 의심되는 소설같은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종단은 물론, 운산 총무원장을 철학과 상식적 판단없이 함부로 행동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여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도록 조장하였다.

다. 법보신문은 의도적으로 사찰을 교회에 매각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기사화 함으로써 불교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과 이웃종교에서 불교종단과 승려를 어떠한 시각으로 볼 것인지 — 최소한의 종교적 양심과 윤리성마저 상실한 취재행태는 곡필언론을 자초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라. 태고종의 대다수 종도들은 법보신문의 기사를 불신하고 있고, 운산 총무원장을 적극 지지하며, 오히려 건전한 종도들은 현재와 같이 해종자들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종단을 과감히 개혁하여 전통종단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2.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가. 운산 총무원장은 1959년도에 득도하여 1960년대에 법륜사(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 당시 교단 분규의 현장을 경험한 종단사의 산 증인일뿐만 아니라 34세에 종단의 총무부장에 임명된 후 70여 평생을 종단과 함께한 스님으로 평소에도 항상 겸손하고 본분에 충실한 생활을 하여 너무나 사무적이고 사생활도 없이 종단 일만 하는 스님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 운산 총무원장은 또 공인으로서 공사를 엄격하게 구분하였고, 검소한 생활(편지봉투까지도 이면지로 사용하고, 한때는 사찰에서 도시락을 가져와서 점심공양을 하는 등)이 몸에 배인 스님이다. 그러나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종단에 가장 많은 성금 및 분담금(수억원)과 전승관 성금(2억원)을 납부하였고, 더욱이 총무원에서는 무보수로 근무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은 종단의 지도급 스님들과 대다수 종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 우리 종단은 운산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종단제도를 개선했고 종단사에 길이 남을 전승관을 건립하였고, 동방대학원대학의 종립화와 동방불교대학의 교사매입과 사회복지법인의 종단인수 등으로 종단 발전의 초석을 다졌으며, 앞으로 종단의 승가 연수원 건립을 목표로 부단히 정진하고 있는데 금번 불미한 사건과 법보신문의 왜곡된 편파 보도로 인하여 전례없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 하지만 운산 총무원장을 신뢰하여 조기에 종단 개혁을 단행하라는 종정예하의 유시와 종단 원로 중진스님 회의의 결의와 금번 제94회 정기중앙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오히려 우리 종단이 환골탈태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3. 전승관 관련 사건 내용은

가. 금번 전승관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도 총무원장과 재무부장이 전승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금을 횡령했다는 요지로 모 종도가 대검찰청에 밀고해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개인 금융 등 재산 및 공사 관련의 각종자료(장부 및 전표, 은행통장 등)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사 관련 업체와 직원들을 소환하여 총무원장의 개인비리를 1개월여 집중조사하였으나 개인비리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나. 그러나 전승관 준공 후에 국고보조금은 전액 낭비없이 전승관 건립에 사용했으므로 문광부에 보고한 것을 검찰에서는 자기 부담금을 허위 보고로 판단하고 조사를 한 것이다. 운산 총무원장은 평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전승관의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우리 종도의 공동 책임을 운산 스님이 대신하여 책임진 결과라 하겠다.

4. 도법사 및 극락사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가. 도법사 및 극락사의 매각관계는 종헌·종법과 사회법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이다. 도법사는 사찰을 폐사한 것이 아니고, 이전불사과정에서 매매대금 일부는 전승관 불사자금에 공여(供與)되고, 나머지는 도법사 이전 건축비용으로 사용되었고 현재 양평군에 대지(1000평)를 매입하여 사찰을 건립 중에 있고, 앞으로 종단의 교육도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 극락사는 봉원사의 도암 스님이 창건한 사설사암으로 전 주지인 이상균이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주지가 기독교인에게 매각한 것이고 종단에서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주지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형식적인 재산처분을 승인해 주었을 뿐이다.

5. 사회복지법인 의 양촌 노인병원 건립 내용은

가. 논산시 양촌에 노인병원 겸 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운산 총무원장의 친제(이모 사무국장)가 종단에서는 일정금액의 재정도 출연하지 않고 복지법인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법인 기본재산의 공시지가가 13억원 정도임)
나. 동 복지법인에 협조하겠다는 인사가 건설업자와 함께 병원건립을 제의하여 충분한 건립자금의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법인의 상무이사 책임하에 추진한 것인데 법보신문은 친인척이 위계한 비리인 것처럼 작위적으로 허구의 소설과 같은 기사를 각색 보도하였는바,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다. 총무원에서는 이모 국장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이모 국장은 종단과 관련하여 이권에 개입한 사실도 없고, 종단에 위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6. 앞으로 법보신문에 대한 조치는

가. 현재 법보신문사에서 극락사의 전 주지를 고소하였으므로 그 조사과정에서 극락사의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고, 종단에서는 변호사에게 법보신문을 검토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자문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혀둔다.

2008년 3월 31일

한국불교태고종 승정원장 남파 원로회의 의 장 일우 중앙종회의장 인공 중앙사정원장 월운

“생명의 강을 지키자”

4개 종단 도보 순례단, 을숙도 반환점에서 또 다른 출발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기도 순례단’이 순례에 나선지 50일이 되는 4월 1일 부산 을숙도에 도착해 대운하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며 2월 초 수경(화계사 주지), 도법(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지관(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 스님과 개신교 이필완 양재성 김민해 차홍도 목사, 가톨릭 최상석 김경일 이동훈 신부 등 4대 종교가 모여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기도 순례단’을 결성했다.

2월 12일 한강의 북서쪽 끝 애기봉 전망대를 출발해 1200시간을 걸었다. 흐르는 강물을 따라 순례하며 추운 바람도 맞았고 발이 퉁퉁 붓도록 고생도 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몸으로 체험하며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기도순례자’들은 계획했던 100일의 절반을 채웠다. 그리고 4월 1일 부산 낙동강 하구 을숙도에 도착했다.

“한반도 대운하를 성찰해보고자 함께 강을 따라 순례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의논을 해보면서 ‘한반도 대운하는 확실히 아니다’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50일이 지난 지금 대운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주장합니다. 대운하 구상은 물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개발주의의 극치이며 경제 동물적 사고의 전형입니다.”

50일 동안 순례하며 그들이 겪고 체험하며 내린 결론이다. 50일 동안 강줄기를 따라 걷고 또 걸으며 느낀 생각이다.

“푸른 강물을 만나 쉼을 누리고 있는 새들을 볼 때 행복했습니다. 함께 걷는 도반들을 통해 배움을 얻고 기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은 기름이 덮여 까맣게 물든 자연을 만날 때는 우려와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희망과 믿음이 분명이 자라 대운하 계획이 폐지되고 자연이 청정해지고 황폐화된 모든 속에 새 생명이 자랄 때까지 우리 순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순례단은 많은 이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이날을 기점으로 남은 50일을 위해 또 다시 출발했다. 4월 27일 금강에서는 생명의 강을 모시는 법회와 참회 그리고 천도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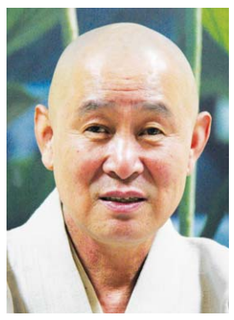
하성미 기자 hdbp@hanmail.net

인터뷰-부산 범어사 주지 취임 정여 스님

공영 살림으로 ‘화합 발전’

부산 범어사가 4월 3일 범어사 탑전 앞에서 제23대 주지 진산식(晉山式)을 봉행했다. 진산식에 앞서 1일 주지로 취임한 정여 스님에게 앞으로 범어사 및 부산불교를 이끌어 갈 수장으로서 향후 방향 및 계획을 들었다.

“범어사는 법이 살아 있는 도량입니다. 법과 질서가 우선 돼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 범어사가 발전해야 합니다. 문중화합이 우선입니다. 문중화합을 위해서는 문중이 함께 참여하는 공영살림을 해야 하는데 공영살림이란 범어사 내 여러 문중에서 2~3명씩 참여해 문중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범어사의 크고 작고 중요한 일들은 문중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범어사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여 스님은 ‘대중화합’과 ‘공영살림’을 강조했다. 대중이 하나로 뭉치고 힘을 모아 제대로 범어사를 되살리자는 것이다.

부산 범어사는 용성 동산 스님 이래 범어문중이라는 조계종 최대 문중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불교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옹색하다. 범어사가 한국불교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스님에게 여쭈었다.

“범어사 문중은 용성문도의 후손들로 걸출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물들이 많다보니 소리가 조금 날 수도 있겠지만 밖에서 우려하는 정도는 아니며 범어사 발전을 통해서 문도가 화합할 것입니다. 법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수행풍토가 살아나면 범어사의 위상은 절로 생깁니다. 기존 설법전은 200~30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데 요즘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2000~3000명이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는 대형 설법전이 필요하기에 설법전이나 보제루 불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불사를 통한 범어사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스님은 포교현장으로 나오기 전에는 선방 수좌였다. 선종대본산 범어사에 걸맞는 수행 도량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 궁금했다.

“프랑스 틱낫한 스님은 화를 내지 않고 세상과 하나가 되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부드러움이요, 따뜻함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자비 사상이죠. 스님은 유럽인들에게 걷는 명상을 시켰어요. 아침 햇살 속에서 걸으며 수행하는 명상을 통해 자연과 하나 되는 명상을 해보니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참다운 자신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된 것이죠. 범어사는 선종대본산에 맞게 곳곳에 좋은 여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원암 쪽으로 난 오솔길은 걷기 명상을 시행하기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쉬운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와 함께하는 명상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어사는 화엄십대 사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친견해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듯이 범어사도 훌륭한 선지식을 모셔서 화엄산림법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문중운영위원회 구성 · 지역 문화운동 견인
선종대본산·수행 도량 위상 세우기에 매진

정여 스님은 그동안 대사회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다. 부산불교의 수장으로서 타종교 및 여러 종파가 많은 것이 부산불교의 특징이다. 화합과 부산불교의 현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질문했다.

“우리나라는 불교 중심으로 국가가 발전하여 왔는데 지금은 다종교 시대로 함께 가야 합니다. 세상은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전쟁이 발생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까지 합니다. 종교인들의 사명은 맑고, 아름답게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종교지도자들이 지금보다 더 화합된 모습으로 함께 간다면 여러 종교가 공존해도 다툼이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종교지도자실천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며 화합과 대화로 이끌겠습니다. 이제 범어사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신도들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부산의 불자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오세룡 부산지사장

“Free Tibet, 탄압을 중지하라”

부산 각지서 티베트 희생자 위한 행사 열려


양산 통도사에서 3월 31일 티베트인들을 위한 천도재가 봉행됐다. 사진은 주지 정우 스님이 재를 올리는 모습.

부산 각지에서 티베트의 자유를 주장하며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모임이 개최됐다.

3월 31일 통도사(주지 정우)에서는 중국인들의 과잉 진압 과정 중 억울하게 희생된 많은 티베트인들을 위한 천도재가 봉행됐다. 주지 정우 스님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이런 인명피해와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천도재를 봉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은 “티베트에 자유를 줄 것”을 요구하며 4월 1일 부산사직구장에서 관중들을 향해 피켓시위를 벌였다. 손정현 회장은 “평화를 위한 시위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야구구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자 했다”며 “평화를 위해 함께 동참하고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라인 모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티베트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10여명은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부산역에서 ‘살인진압 금지 및 평화와 자유’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현재 티베트의 상황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하성미 기자**

맑고향기롭게 사무국 법당 이전 및 부처님 점안식 봉행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본부(회장 박수관)는 사무국을 서면 정산 빌딩 9층으로 이전하고 4월 1일 법당 개소식 및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법회에는 범어사 전계대화상 흥교 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허남식 시장, 설동근 시교육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해 법당 이전을 축하했다.

맑고향기롭게 부산본부 박수관 회장은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생각하며 물질문명의 이기에 찌들어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설립됐다”며 “그 취지에 맞도록 현대인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가꾸며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홍법사 ‘열린 종교 시민대학’

불교,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 천도교 성직자 모임 ‘열린 종교’(공동대표 심산)에서는 ‘2008년도 열린 종교 시민대학’을 개최한다.

각 종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강좌를 마련한 열린 종교 시민대학은 4월 2일부터 2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각 교단의 강사들을 초청하여 부산 홍법사에서 진행한다. (051)508-0345 **하성미 기자**

“삼천배 기도 회향 따뜻한 보시행으로”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에서 봉행한 제57회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에 동참한 신도들이 십시일반 후원금 100만원을 모아 3월 31일 용호복지관(관장 이춘성)에 전달했다. 감로사 신도회 김귀련 회장은 “삼천배 기도에 동참한 신도들은 참회기도 후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방편으로 모금하게 됐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의미 있는 성금이니 소중히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무명 밝히는 지혜 燈을”

부산등축제 추진위원회 결성법회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을 맞아 3월 28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부산등축제 추진위원회 결성법회’를 봉행했다.

봉축을 맞아 부산에서는 대대적인 부산등축제를 처음으로 마련하고 5월 8일부터 10일 3일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추진위원장 정여 스님은 “신라시대부터 봉행한 연등회를 시민들을 위한 지역행사 뿐 아니라 국제행사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하성미 기자

神秘의 靈藥 不老長生의 靈草

山蔘

산삼은 천연약재 가운데 최고의 신비로운 불로장생의 영초입니다.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을 꼭 드셔야 될 분

- 수술 후 완벽한 회복을 원하시는 분
- 건강하게 무병장수를 원하시는 분
- 나이가 들어도 정력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
- 수험공부에 피로가 누적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
- 젊은부부로 힘세고 총명한 아기 낳기를 원하시는 분
- 기억력이 떨어지고 총기를 잃어가시는 사업가

존경하옵는 스님, 불자님의 기력회복과 원기충만을 위하여 산삼을 권해드립니다.

■상담 및 주문

산삼전문업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51160-150)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산양삼농장으로...

山養山蔘 “재배 분양 보급” 재테크

“20년” 노하우 산양산삼 재배기술 전파 (사찰임야활용)

새로운 임야 재테크



한차원 높은 생활의 지혜

- 고객상담
  · 전화/이메일/직접농장방문
- 농장견학, 현지답사
  · 농장입지조건, 주위자생 동,식물 관찰
  · 토질의 분석, 전문가 직접 현지답사
- 농장설계
  · 20년 노하우에 의한 농장설계
  · 사찰주변 임야 활용방안
  · 고객 예산고려 후 농장설계
- 종자, 종근 식재
  · 고객님에 의한 직접 식재
  · 전문인력 식재 대행방법

3대 주요사업

1 최저가 우수 종자, 종근 보급

2 재배 기술 지원 및 교육

3 산삼 농장체험 행사

심마당 02)713-7798 / 701-4716

“전주시청 앞 연등축제 보러오세요”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일정 발표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 금산사 주지)는 3월 21일 전북불교회관에서 봉축위원회를 열고 불기 2552년 봉축일정과 봉축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봉축행사는 4월 12일 통일로 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16일에는 35사단 세병호 일원에서 연등제가 봉행된다. 26일에는 전주 덕진공원 일원에서 백일장, 사생대회, 민속놀이, 전통차 체험 등 ‘전북 어린이 큰 잔치’가 펼쳐진다.

전북지역 봉축행사의 특징은 지역사회 곳곳의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특징. 35사단 장영사 등 지역 군법당과 전주 · 군산교도소, 희강원 등 여러 시설에서 순차적인 위문법회가 계획돼 있다.

5월 7일에는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도내 각 사찰 합창단이 함께하는 연합합창제가 지역민과 함께 음성공양을 하고, 5월10일에는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축제가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날 연등축제에는 비빔밥 큰잔치와 함께 연등 만들기, 농악 경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어우러진다.

5월 24일에는 금산사에서 열리는 모악 청소년 축제를 끝으로 봉축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bud1080@naver.com

행사명	일 시	장 소
기원탑 점등식	4월 12일 19시	통일로 화단
연등제(35사단)	4월 16일 19시	35사단 세병호
위문법회	4월 12일~5월 11일	전주 · 군산 교도소, 소년원 등
불우 이웃돕기	4월 12일~5월 11일	희강원, 군산보현요양원, 나눔의 집 등
연합합창제	5월 7일 19시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
연등 축제	5월 10일 17시	전주시청
지역행사	4월 12일~5월 11일	시군 단위 지역행사
전북 어린이 큰잔치	4월 26일 10시	전주 덕진공원
청소년 모악축제	5월 24일	금산사
법요식	5월 12일 10시	각 사찰 큰법당

“생명의 소중함 배우는 도량”

호남지역 교구본사협, 함평에 방생습지 조성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전남 함평에서 열리는 ‘2008년 세계나비 · 곤충 엑스포’에 불교의 생명관을 보여주는 방생지가 설치 · 운영된다.

광주전남지역 4교구본사회의(회장 성오, 백양사 주지)와 엑스포조직위원회는 폭 2m 길이 164m 크기로 방생지를 조성해 엑스포 기간 동안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엑스포 방생지는 참가자들이 직접 토착 어종 및 식물들을 방생하는 공간이다. 환경과 자연친화적인 방생체험을 통해 불교의 생명관 등을 배우게 되며, 조성된 방생지는 영구습지로 보존될 예정이다.

호남지역 교구본사협의회는 엑스포 개장에 앞선 4월 12일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엑스포성공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부처님과 생명을 주제로 법문하는 것을 비롯해 방생습지 조성 식수, 나비 날리기, 기념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한편 함평 엑스포는 초대형 세계곤충박람회로 매년 약 200만명이 다녀가는 대표적 지역축제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음 바쳐 사경…하심배웠어요”

‘반야심경’ 3000장 보시한 김정두 거사

“어려서 배운 붓글씨를 회향할 좋은 방법을 찾다가 <반야심경>을 사경해 불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간 반야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반야심경>을 사경해 3000장을 불자들에게 보시해 온 불자가 있어 화제다. 김정두 거사(62 · 익산시)는 “작은 봉사로 시작했지만 사경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됐다”고 말했다.



김 거사는 “부처님께서 설한 말씀을 사경하는 것은 한 글자 한 글자 적는 과정 그 자체가 오롯한 수행”이라며 수차례 시행 착오를 겪으며 반복된 연습을 통해 한 획 그을 때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연습을 한다고 표현했다.

“2004년 어느날, 우연히 찾은 불자에게 <반야심경>을 선물로 줬을 때 환희에 차 받던 모습을 잊을 수 없어 계속 사경을 하게 됐다”는 며 김정두 거사는 주로 금니 사경을 했다. 그의 필력과 원력이 사찰까지 전해지면서 그는 완주 송광사, 보은 법주사, 양양 낙산사 등의 복장물로 보시하기도 했다.

김정두 거사의 필력은 이미 2006년도 전북 서예대전에서 삼체상 수상 등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리불교대학 16기 회장을 역임하고 익산거사회에서 활동하는 김정두 거사의 신행 활동 역시 지역사회 불자들에게 귀감이 됐다.

김 거사는 “앞으로도 사경을 통한 전법과 포교, 보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신을 집중해 사경하다보면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 지닐 수 있게 된다”고 불자들에게 사경을 권했다. 김 거사는 “앞으로 <반야심경> 뿐 아니라 <금강경> <원각경>등 모든 경전을 두루 사경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교초월 ‘한마음 대축제’ 열린다



광주지역 불교와 가톨릭이 함께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을 위한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한다.

(사)전통불교영산회(회장 호산 · 사진)는 가톨릭 광주대교구(주교 김희중)와 함께 4월 19일 광주 염주실내체육관에서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되는 한마음 대축제’를 펼친다.

광주 · 전남지역 외국인노동자와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축제에서는 영산회 소속 스님들의 범패시연과 광주지역 불교 · 가톨릭 합창단 공연, 시립국악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한마음 대축제 추진위원장 혜명 스님(수덕사 주지)은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머무는 외국인들을 위해 불교와 가톨릭이 하나돼 축제를 마련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전통불교영산회는 1993년 불교전통의식을 재정립하고 계승하기 위해 창립돼 40여명의 스님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례 화엄사, 지역민과 풍년기원제 열어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3월 28일 구례군 농민회, 기아자동차 노조 등과 함께 2008년 구례농민 통일쌀 공동경작단 발대식을 갖고 풍년 농사를 기원했다.

종삼 스님은 “농사는 만사의 근본이요, 농민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다. 이 근본이 흔들리면 온전한 생명공동체가 유지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수입농산물이 범람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 등으로 우리 농민들이 어느 때 보다 힘든 때”라고 위로하면서 “봄기운처럼 다함께 생동하자”고 말했다.

한편 화엄사는 구례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사찰 내에 구례군 특산물 전시매장을 운영해 지역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2007년에는 구례군의 농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수확한 500여 톤의 쌀을 북한 개성 봉동마을에 전달하기도 했다. 2008년 통일쌀은 경작 발대식을 시작으로 4월 30일 공동경작 못자리, 5월 모내기와 10월 벼베기 행사를 거쳐 12월초에 북한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자비신행회 재가화엄학림 정원채 학장

“이웃 행복위해 ‘나’ 잊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 시작
문화·수행·교육사업 확산시켜



광주에서 화순으로 가다보면 길가에 자리한 작은 폐교를 만나게 된다. 광주전남지역 불자들의 자비나눔 공동체인 ‘자비신행회’가 활동하는 보금자리이다.

1999년, 30여명의 불자들이 모여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로 시작한 자비신행회는 노인복지센터, 차문화아카데미, 외국인 노동자센터, 시민선방, 재가화엄학림 등 신행은 물론 사회복지, 불교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같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지역사회에 실천하고자 하는 자비신행회의 중심에 재가화엄학림 정원채 학장(70)이 있다.

“불교를 바르게 배워 지혜를 키우고, 배운 바를 이웃들과 복지를 통해 나눔으로서 자비를 키우는 것이 곧 부처님 세상 아닌가요?”

실천행을 강조하는 정 학장은 “생활 속에서 활용하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는 알음알이 불교이기보다 하나라도 실천하는 불자로 양성하는 것이 재가화엄학림의 근본정신이다”고 강조한다.

정 학장은 자비신행회를 비롯해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아시아문화교류재단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도심포교당인 원각사 선우회 회장도 겸하고 있다. 어디에서든 얼굴내기보다 묵묵히 실천행을 하던 정 학장은 불교가 좋고,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따르다보니 하나둘 불교신행과 관련된 직함이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고 정 학장의 불교입문이 오래된 것은 아니다. 광주에서 중 · 고교 교장을 역임한 정 학장은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타종교를 신앙했다.

“제 담당이 국어였지만 좋은 시나 수필 등 진정한 문학을 가르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18년간 고교 3학년 진학지도를 하다보니 교과서만 달달 외워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다가 정년을 맞았다. 그동안 정열적으로 살았던 것이 허탈했고, 뭔가 해놓은 것이 없어 보였다. 어느 날 우연히 불교를 만났다. 지나버린 삶보다는 남은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동안 받으며 살았으니 이제는 이웃에게 회향하며 살자고 발원했다.

‘곱게 늙으려면 불교수행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자 열심히 정진하고 실천에 힘썼다.

정 학장은 불교대학과의 만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함께하는 도반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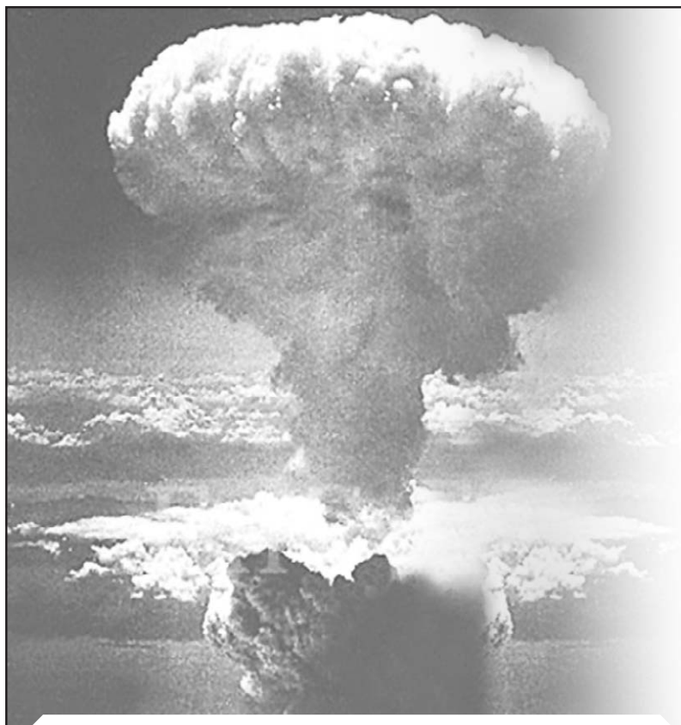
평소 마음이 헤이해질 때면 생명과 평화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탁발순례 중인 도법 스님을 떠올리곤한다.

“상생(相生)으로 모든 이가 서로 행복을 추구하는 불교의 인드라망적 생명관과 실천행을 펴고 싶다”는 정 학장의 뜻을 스님이 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각사 선우회장으로 취임한 정 학장은 100일기도를 했다. 불교와의 만남으로 못다채운 삶의 일부분을 많은 부분 채워졌음을 감사하는 기도였다.

“공부하는데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하나 만족하며 살아야죠.”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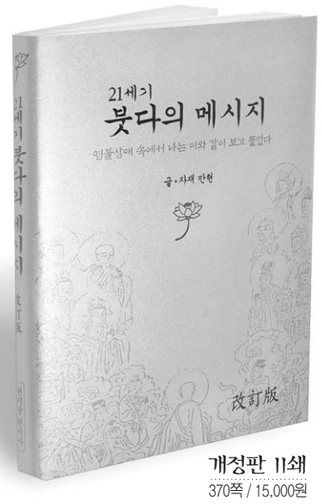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할까....., 나는 이제 현지사 큰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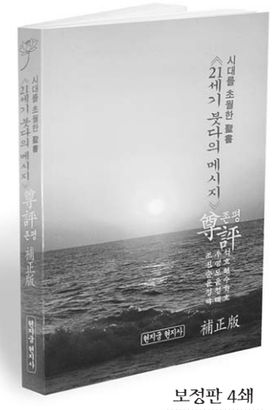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절찬리 판매중
13쇄 발간 2여년만에 들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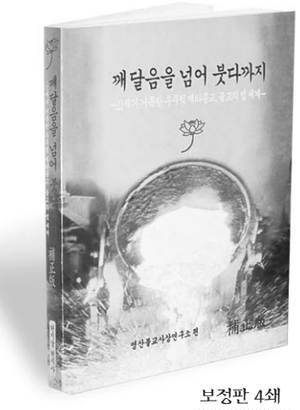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尊評”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춘천법회 – 매월 음 8일 / 부산법회 – 매월 음 23일 http://www.hyunjisa.or.kr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서암 스님 개혁승으로 재평가 돼야"

불교교단연구소, 학술회의 및 열반 5주기 추모 법요

한국불교사에 어두운 사건으로 기록된 1994년 조계종 종단 사태는 '종단개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불자의 아픔으로 남아있다. 지난 정권에서 '과거청산' '과거사 진상조사' 시류 속에서 1994년 종단 사태가 다뤄지지 않았던 것은 속세의 시비를 벗어난 승가의 일이기 때문일까. 이런 가운데 "당시 조계종 종정이었으나 종단 사태로 초야에 묻혀야 했던 서암 스님은 진정한 개혁승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불교교단연구소(소장 원두)가 서암 스님 열반 5주기를 추모해 '94년 종단사태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마련한 학술회의는 스님의 열반 5주기 날인 3월 29일, 서초동 수안사(주지 세민)에서 열렸다.

김광식 교수(부천대)는 '송서암의 불교개혁론'을 통해 "서암 스님은 올곧은 수좌였고, 조계종단의 종정을 역임하며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일정한 위상을 점하던 수행자였다"면서 "서암 스님의 불교개혁론의 요체는 '종단재건안의 기본방향'"이라 말했다.

김 교수는 "부처님 법에 맞는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 있을 뿐"이라는 서암 스님의 회고를 인용해 "스님이 부처님 법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스님이 원로회의 의장에 추대된 후 1991년 7월 5일 서울 대각사 기자회견에서 '승려대표자대회 취지문'을 발표하면서 종단을 구성하는 승려대표자들에게 종단 진로를 결정케 하고자 했음을 제시했다. 서암 스님이 추구했던 개혁의 방향을 김 교수는 ▲원로회의를 통한 종정 선출 ▲종풍 쇄신 위한 개혁위원회 구성 ▲불교중흥을 목적으로 자금원 확보를 위한 사원경제 편중 배제였다고 구분했다.

이런 서암 스님의 개혁안은 1993년 11월 '석존의 교법에 의한 종단재건'으로 구체화됐고, 김 교수는 서암 개혁론 특징을 ▲1970년대부터 20여년간 대두된 종단의 모순, 파행, 문제가 모태 ▲율장 중시 ▲개혁주체로 원로회의 중시 ▲개혁방안으로 승가교육 중시 ▲재정의 투명성 중시 ▲출가와 재가를 통섭한 종도대표자회의 구성 등으로 정리했다.

김 교수는 "서암 스님을 종단개혁에 반하는 인물로 인식 · 단정했던 제도권 '종단개혁' 주체의 기존 해석이 재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덕산 스님(불교교단사연구소)은 '94년 종단사태와 칠보사 원로회의'에서 "종정 불신임을 촉구하고 4·10 승려대회



3월29일 서암 스님 열반 5주기 기념 학술회의에서 사회자 해운 스님과 불교교단연구소장 원두 스님(왼쪽부터).

개최를 결의했던 칠보사 원로회의가 종헌에 명시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위법한 회의였다"고 주장했다.

발표 후 좌담에서 명선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현해 스님(前, 동국학원 이사장), 인환 스님, 마성 스님 등은 서암 스님의 재평가와 명예회복의 정당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종정을 불신임한 것은 종단의 비참함이었다"는 명선 스님은 "이제라도 바로잡아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해 스님은 "1994년 종단사태 등은 종단의 주요 소임을 권력으로 오인해 일어난 사태"라고 규정하고 "서암 스님은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라고 애도했다. 학술회의가 끝난 후 서암 스님 열반 5주기 추모 법회가 봉행됐고,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했다.

한편 열반한 서암 스님의 '종정 복권' 추진은 현 조계종 체제가 1994년 종단개혁을 발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와 용서로 대승적 화합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제10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 정사)은 5월 16일까지 제10회 진각논문대상 응모 논문계획서를 접수한다.

논문은 3개 분야로 나뉘어 진각종 교학 2편, 일반 불교 3편, 밀교일반 3편을 선정한다. 주제는 지정주제와 자유주제가 있으며, 올해의 지정주제는 ▲참회의 원리와 사상 ▲진언수행과 염불수행의 2가지다.

진각종 교학확립과 불교 및 밀교 연구 발전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진각논문대상은 학력과 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최우수 논문 1편에는 장학금 500만원이 수여되고 기타 선정된 7편에는 각 200만원의 장학금이 전해진다.

한편 접수된 논문계획서는 심사를 거쳐 6월 19일 당선작을 발표하고, 당선자들은 논문을 작성해 11월 14일 발표회에서 논문을 평가받게 되며, 당선작은 2009년 6월 발간예정인 <회당학보> 제14집에 게재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각종 홈페이지(www.jingak.or.kr) 참조. 조동섭 기자

진안 천황사 전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4월 2일, 한국에서 제일 큰 전나무로 알려진 전북 진안 천황사 전나무를 국가지정 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 했다.

사찰의 번성을 기원해 천황사 남쪽 산중턱 남암(南庵) 앞에 식재한 것으로 전해지는 전나무는 수령이 400년 정도로 오래됐고, 나무높이 35m 가슴높이 둘레가 5.7m에 이르러 현재까지 알려진 한국의 전나무 중 가장 크다.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관련학자, 토지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천황사 전나무는 수려한 자태와 학술적 가치 등이 인정돼 전나무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이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 학회는 ⑬빨리문헌연구소

rlpl.or.kr

빨리문헌 경전번역으로 새전기 맞고있어

빨리어로 된 경전인 빨리삼장은 붓다의 교설을 제1대 제자들이 기록했다 해서 붓다의 원음에 가장 가까운 성전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는 주로 한역경전(漢譯經典)을 의지해 불교학을 연구했지만, 최근 마성 스님, 대림 스님, 전재성 박사 등에 의해 빨리(pali) 문헌 경전이 번역되면서 불교학의 새전기를 맞고 있다.

빨리문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마성 스님이 빨리문헌 연구와 관련 학문분야 연구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2000년 11월 1일 설립했다. 연구소는 ▲빨리문헌에 관한 연구 조사 ▲빨리문헌의 수집과 번역 ▲연구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 발간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학술회의, 강연회 개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회원은 후원회원과 일반회원 둘로 나뉘며 회비는 후원회원은 1년 10만원, 일반회원은 1년 2만원 회비가 있다.

한편 빨리문헌연구소는 지난 2007년 12월 27일 50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여 후원회 결성식을 갖고 후원회 회장에 광법 스님, 고문으로 혜성 스님을 추대했다. (055)285-9383 조동섭 기자

다보탑·석가탑 보수 시급

정종현 교수 등 문화재 · 환경전문가 6명 공동 발표

'불국사 석조문화재 풍화·훼손 특성' 주제로 '신라문화'에

신라 천년의 아름다움으로 대표되는 경주 불국사 다보탑(국보 20호)과 석가탑(국보 21호)의 훼손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정종현 교수(서라벌대), 손병현 교수(한서대), 정민호 연구원(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등 6명의 문화재 및 환경 전문가들은 최근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신라문화> 제31집에 게재된 '불국사 석조문화재 풍화 · 훼손 특성'의 주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종현 교수 등은 "우리나라 석조문화재 중 약 10% 정도가 경주지역에 분포돼 있지만 별다른 보존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성비 등에 의한 풍화작용과 이끼와 같은 생물에 의한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 등이 조사한 결과 다보탑은 지붕처럼 석탑을 덮고 있는 옥개석 아래 옥석받침 표면이 풍화작용으로 부식되고 구멍이 뚫려 있었다. 심한 경우 석재 표면이 떨어져 나가 검게 부식되고 강도가 약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등 훼손상태가 심각했다.



풍화 등으로 훼손이 심각한 다보탑. 이끼등에 훼손된 모습과 난간에 균열된 모습들(왼쪽부터).

보존상태가 심각하기는 석가탑도 같았다. 탑 중심부의 지반 침하로 주변부가 위로 솟은 석가탑은 탑신과 옥개석에 삽입된 철편이 산화하면서 발생한 황갈색 수산화철이 변색돼 2차 오염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탑 표면의 오염상태도 심각했다. 곰팡이, 이끼 등이 서식하고, 난방연료 배출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원인으로 보이는 먼지와 검버섯으로 오염돼있었다.

정종현 교수 등은 "풍화로 인한 훼손정도를 수치화한 풍화등급으로만 봐도 석가탑은 정기점검이 필요한 4등급이며, 다보탑은 정밀진단이 필요한 5등급이다. 석조문화재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기초조사, 다보탑과 석가탑에 빗물 유입 방지장치 마련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 전통건축연구실은 금년 상반기 중 불국사 석가탑 · 다보탑 보수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올해 다보탑과 석가탑의 보수작업이 시작되면 각각 1971년과 1961년 이후 40여년 만에 보수가 이뤄진다. 조동섭 기자

꺼져가는 영혼과 육신을 살리고 건강찾는 비법으로 생사를 해탈하신 중국소림 면벽 달마조사의 비전으로 이어온 선단식 5일 금식비법 건강수련법회

달마 의통비법인 선단식 금식법으로 육신의 병,정신의 병,잡신의 병, 귀신의 병,마음의 병 수련법 사람의 병은 두가지로 부터 생기는 고로, 하나는 정신에서 오는 병은 억겁으로부터 내려오는 해탈못한 영가로 빙의된 귀신에서 오는 병이고 또하나는 마음에서 온 병으로 아픈것은 현대의학이나 한방,양방으로도 고칠 수 없으며, 병원에서는 살이 찢어지거나, 부러진 것은 치료하면되지만 정신과 심신, 마음에서 온 병은 오직 달마의통능력만이라야 고칠수 있으므로, 본 달마종 태일대사는 달마대사의 비법을 경신, 도통으로 달마 5일 선단식 금식비법 영역의 전권을 이어받아 수련법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수련법을 마련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정직한 후학들에게 이 비법을 전수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은 동참하시어 이 법을 전수하시고 주변에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나, 돈이 없어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봉사할수있는 기회이오니 지금까지 각종 방법으로 치료하는 지도자 단전호흡 및 요가, 기수련, 마사지 지도자 및 목욕탕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남을 지압하여 자신의 기가 빠져나가 앞으로는 돈은 벌지만, 뒤로는 기가 빠져 회복이 어렵고, 건강과 기력이 없어 힘을 못쓰고, 각종 병에 빙의 되어 고통받는 분들은 이법을 수련,전수 받으시면 큰 노동과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수련하시어 기 관리법과 기를 돌릴 수 있는 달마의통비법을 전수 받으시면, 기가 빠지지 않고 자신의 건강과 힘이 되어 남을 지료해도 기가 빠지지 않는 특별기도임을 명심할지어다.

달마의통선단식 금식비법을 수련하시면 살이 찌는 비만병, 고혈압, 당뇨병,간장병,위장병,신경통 및 관절염,신장,기관지,50견통,중풍,치매병,방광신장병,딸기코,병명없이 아픈병,말문이 터지지 않는 신병, 등을 관리 및 다스리는 법을 증득하시는 건강증진,심신도량이오며 사람은 누구나 생노병사의 병으로 죽는것을 미리 수련하여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며 이 모든 병은 간장과 신장과 비장과 담낭에서 조절하는 담즙과 인슐린이 발생 못하면 알파 세포가 정지되는고로 오장육부에 노폐물이 잠기어 정신과 심신과 육신에 혈류이 막히어 생기는 포만증으로 모든 병은 먹지도 않아도 살이 찌는 병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모든 병든자들이 즉시 건강을 회복하는 수련법을 증득하면 즉시 살이 빠지고 ,당뇨,고혈압이 거의 치유되는 5일 선단식 금식법으로 본인이 수련하여 자신도 구하고 가족도 구하고 이웃도 구하는 달마면벽 건강약사여래의왕기도 선단식 5일 특별 방지비법 수련법인 수행법을 본 세계불교 달마종 총본산 경신도통회 달마 건강 수련원 태양의 집에서 후 천도법으로 계룡 800년 대운이 心 시작되는 무자년 계룡명당 계두봉 봉황봉산하 비산비하 서출동유 지장수로 선단식 금식 수련하시어 병으로 죽는것을 미리 예방하여 고통을 면하는 수행도량에 입문하시고 건강을 찾아 남은 생애를 만수무강하소서.



삼재팔난 일체고액을 소멸하고 운수대통 하는 달마 구입처 : 02)821-6622/016-239-3119

명예나 돈을 잃은것은 재기할수 있으나, 건강을 잃으면 다시 찾을수 없는 모두를 잃는 것이오니 조금이라도 건강하실때 찾으시고 수행하시어 특히 어린이 포만증은 정신집중이 안되며 어린이 당뇨병과 혈압 비만 뚱뚱한 병은 생명을 앗아가는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모든분들은 다시 없는 기회이오니 이 기회에 동참하시어 이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련을 하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중풍치매 예방 및 온몸에 노폐물이 빠지고 피부는 윤택해지고 살이빠지며 심심이 안정되어 살아가시는 데 가장 건강하게 사는 비전인 것입니다.

■ **기도 입제일** : 매월 첫째 토요일과 셋째 토요일(4/19 입제)에 시작하여 토,일,월,화,수요일에 회향하오며 토요일, 일요일에는 합동 철야 정진법회도 병행합니다.
■ **장 소** :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2리 259번지 천하명당 계룡산 봉황봉산하 비산비야 지장생명수인 태양의 집
■ **전화접수처** : 서울본단 02)821-6622 / 02)821-7767 041)867-7763, 016-239-3110 / 010-2891-3117
■ **지도법사** : 명제스님, 비구니 보현스님 (강사)지모 이제희
■ **증명법사** : 태일대사 ■ **준비물** : 간단한 복장, 세면도구
■ **수련법회 참가비** : 5일 침식제공. 일금 15만원 (선착순)
※ **온라인**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 **교통안내** : 기차는 경부선 호남선 조치원역하차 → 전국 고속버스 조치원 하차.조치원역 광장 → 시내버스(조치원 공주행,조치원 대평리행) 서면 봉암리 하차 → 봉암 농협 앞을지나 봉암2리 259번지태양의 집

달마건강동우회수련원 태양의집
용 조 달 마 경 신 도 통 회
세 계 불 교 달 마 종 총 본 산

성인병 (당뇨 · 고혈압) 예방

9번찌고 말린 첫서리맞은 뽕잎차

뽕나무는 신선목이라 하기도 하고 뽕잎은 한방명으로 신선엽(神仙葉)이라 합니다. 신선엽(神仙葉)은 뽕잎을 장복하면 신선이 된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스님께서 수제로 정성들여 만든 뽕잎차는 금강선원의 선원 불사와 법당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구증구포 뽕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금 강 선 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일주문



항일애국지사 추모법회 봉행

원주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은 4월 5일 구룡사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원주권 항일독립애국지사 추모법회와 해수륙 영가방생천도 생명대법회를 봉행했다.



난치병어린이돕기 3000배 정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오 스님은 4월 19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8회 난치병어린이돕기 3000배 정진 기도'를 봉행한다. (02)723-5101



전국어린이연꽃노래잔치 개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송묵 스님은 4월 20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제20회 전국어린이연꽃노래잔치 본선대회를 개최한다. (02)738-7860



입문불자 문화강좌 열어

광주 천룡사 주지 무등 스님은 4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광주불교방송에서 신도 교리 · 기도 · 불교수행 등 입문신자를 위한 내용으로 문화강좌를 연다. (062)234-1338



지눌국사 <수심결> 강의

강건기 전북대 명예교수는 4월 7일 부터 3개월간 매주 월요일 광주 원각사에서 보조지눌국사의 <수심결>을 강의한다. (062)223-3168

소재 무궁무진…더 좋은 작품 '의욕'

제1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대상 유성씨



"자연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연(蓮)을 소재로 깨끗하고 단아한 작품을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에서 '연화문 백자호롱, 죽림 백자수지, 백련유백다기'로 대상을 수상한 유성(31)씨. 도예가들 사이에 일반적인 '연'을 소재로 다뤘지만 유씨는 "백자가 갖는 깨끗한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최승천 교수(홍익대)는 유씨의 작품을 "미려한 형태와 심오한 유백색이 은근한 기풍을 주며, 연화문양이 기능과 잘 조화됐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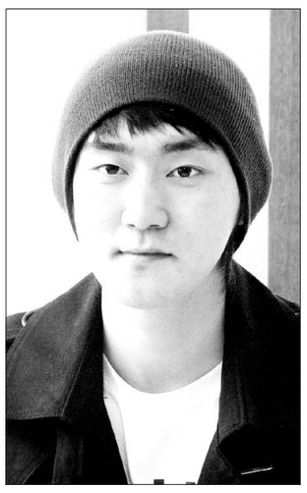
유씨는 경기도 이천의 도예촌에 마련된 '유성요'에서 백자 다구를 주로 만드는 도예가로, 16살 때인 1993년 도예에 입문했다. 이후 1995년 조형실기대전에서 대상 수상한데 이어 2006년 국제다구디자인공모전에서 특선과 입선을, 2007년 같은 공모전에서 장려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지인의 추천으로 이번 공모전에 응모하게 됐다는 유씨는 "아직 불교교리에 대해 잘 모르고 사찰을 자주 찾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가 주는 편안한 느낌이 좋다"고 말한다. 법명은 안성 도피안사 주지 송담 스님에게 받은 '혜담(慧潭)'.

기계틀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상품과 달리 100% 수작업을 고집하는 유씨는 "도예 일이 힘들 때도 많지만 앞으로 열심히 작업해 불교문화대전에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유씨의 또 다른 작품은 차전문잡지 <티앤피플>이 주관하는 '4월의 다구전'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는 4월 16~22일 서울 인사동 한국공예문화진흥원에서 열린다.

제4회 불교문화디지털콘텐츠 공모전 대상 우루루팀 노윤식씨



공주 갑사의 공우탑(功牛塔) 설화를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제4회 불교문화디지털콘텐츠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우루루'팀의 노윤식(25, 공주대 만화학부 4)씨. 플래시애니메이션 '어느 도둑의 이야기'는 노씨와 공주대 만화학부 선후배 7명으로 이뤄진 우루루팀이 제작한 첫 작품이다.

노윤식씨는 "침체된 애니메이션계의 발전을 위해 팀원들이 뭉치게 됐다"며 "공모전 소식을 듣고 직접 갑사에 가서 자료조사와 인터뷰를 하는 등 3개월에 걸쳐 작품을 완성하게 됐다"고 말한다. 공우탑에 얽힌 설화에 등장하는 '소'를 소재로 스토리를 구성해 '물질적인 욕심보다 중요한 것은 참된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를 쉽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우탑 전설은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갑사를 중건하기 위해 사부대중이 울력을 하던 어느 날 인호 스님이 꿈에 "절을 짓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소의 말을 듣게 되는데서 시작된다. 꿈에서 깨어난 스님 앞에 진짜 소가 나타나 목재와 돌을 나르며 힘을 보태다 기력이 다해 쓰러지게 되고, 이러한 소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탑이 바로 공우탑이다.

"팀원들 모두 학생이라 방학 기간동안 답사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하루 15시간씩 컴퓨터로 작업해 완성하게 됐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번 작품을 하며 불교에서 무궁무진한 소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스토리텔링을 기본으로 하되, 이미지 위주의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노윤식씨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불교적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운암사업회 제3대 회장 취임

이해찬 前 총리 추대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이하 운암사업회) 제3대 회장으로 이해찬 前 국무총리가 추대됐다. 취임식은 4월 1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운암 선생과 같은 독립운동가가 냉전과 분열이라는 역사적 상황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후손으로서 깊이 반성하면서 책임감 있게 단체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운암 선생은 독립운동 시기, 한발 앞서 전략적으로 한 · 중 교류를 시도했고 진보적 정치운동 이론서 등 저술도 많이 남겼으나 그 기록이 많지 않아 아쉽다"면서 "다음세대를 이어나갈 청년들이 역사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자료를 발굴해 운암 선생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활발히 조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운암사업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해찬 회장은 1952년생으로 제13~17대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교육부장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임기는 2011년 3월까지다.

한편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독립기념관은 4월의 독립운동가로 운암 김성숙(법호 태허, 1898~1969) 선생을 지정했다. 봉선사 스님 출신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운암 선생은 평안북도 철산군 출생으로 중국에서 좌파계열 독립운동단체를 이끌며 조선민족전선연맹 기관지인 <민족전선> 편집을 맡기도 했다. **김강진 기자**

"명상지도자 길 인도 책임교육 할 생각"

스님대상 '자비명상' 강좌 여는 마가 스님



지난해 스님과 재가자들을 위한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 강좌를 열어 선풍을 일으켰던 마가스님이 두 번째 강좌를 연다. 4월 14일 '이판승을 위한 자비명상' 5월 26일 '재가자를 위한 자비명상' 6월과 8월 '사판승을 위한 자비명상' 등 3차례에 걸친 프로그램이다. 각 과정은 4박 5일 집중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스님들 과정을 좀 더 세분화 해 이판과 사판으로 나누었습니다. 지도자 과정을 위한 예비과정인 셈입니다."

"지난 해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18명의 스님과 재가자 17명을 대상으로 만일사에서 격월로 심화 지도를 하고 있다"는 스님은 "특히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스님들이 법회 방식을 변화 시키면서 불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마가 스님은 이번 과정에 참가하는 스님과 재가자들에게도 수료 후 1년간 매월 1회씩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교육과 장기적인 심화 과정을 거친 후 명상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책임 교육을 할 생각"이라는 스님은 "급변하는 한국불교의 미래는 스님들의 인식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년 전부터 중앙대학교에서 템플스테이와 명상 관련 강의를 해 온 스님은 올 해 동국대 선학과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다. 자비명상 참가문의 (041)622-1190 **임연태 기자**

좋은벗 풍경소리, 포교원에 악보집 기부



'좋은벗 풍경소리(회장 성행)'가 4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집무실에서 포교원에 <풍경소리 피아노 반주곡집> 전3권 각각 500권을 전달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불교 음악을 아이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좋은벗 풍경소리의 뜻을 현장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백제불교회관 개관 7주년 기념 법회 봉행



백제불교회관(관장 장곡)이 3월 28일 회관 법당에서 개관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네팔 룸비니원 대성사 조실 도문 스님, 백제불교회관 관장 장곡 스님, 비구니 청림회 회장 효경 스님, 선재불교 대학 석진 스님, 충효사 주지 일권 스님, 생활불교협동조합 이평래 이사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손효선 기자**

명성 · 혜철 스님, 37사단장 감사패 받아



육군 37사단(사단장 김홍배 소장)은 군 장병의 심리적 안정 및 부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과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홍배 사단장은 "스님들께서 장병들에게 정신적 ·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군의 사기가 높아진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죽림정사, 용성 스님 입멸 제68주기 대제 봉행



용성 스님 입멸 68주기를 추모하는 대제가 장수 죽림정사(주지 법륜)에서 봉행됐다. 3월 31일 열린 용성 스님 입멸 제69주기 봉찬대제에는 한국불교 종정협의회 총정 석가산 스님, 법륜종 종정 보산 법광스님과 김상두 前 장수군수,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정영신 · 김진영 이사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조동섭 기자**

한글한문 (겸 용) 불교상용의식집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 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한 적게하고 실무차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 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1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 성

• 제 1권 : 예경:각청편 • 제 2권 : 천도:시식편
• 제 3권 : 수계:방생편 • 제 4권 : 장의편
• 제 5권 : 점안편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

앞으로 상용의식집을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용의식집을 보신 후 격려전화를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묵 합장 -

문의 전 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농협 :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구입 가능

설법 연수생 모집

15년의 전통을 지닌 한국설법연수원에서는
"맞춤식 설법 개인지도" 연수생 모집 합니다.

■ 교육목표
◇나의 발견 ◇나의 계발 ◇나의 실현

■ 교육내용
◇ 대인불안 공포증해소, 대담한 성격 배양, 자신감, 열정, 호소력, 화술 · · · 설법실기
◇ 인사말, 축사, 주례사, 토론, 회의진행법 등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최면(催眠)도 활용합니다.

■ 일시 : 수시접수 · 교육일시는 맞춤식으로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나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나를 만들자

한 국 설 법 연 수 원
한 국 인 성 개 발 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VIP 여 행 사

불교성지 순례상품

[불교성지순례]
▶ 문수도량 : 오대산 순례 + 북경(5박 6일)
₩ 990,000

[불교성지순례]
▶ 지장도량 : 구화산 + 황산 / 상해 / 항주 / 소주(5박 6일)
₩ 890,000

[불교성지순례]
▶ 지장도량 :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순례 + 황산(7박 8일)
₩ 1,090,000

[불교성지순례]
▶ 미얀마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순례(5박 6일)
₩ 1,500,000

하나투어 HANATOUR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주)VIP여행사 | 진주시 신안동 8-10번지
신안동 : ☎ 055)743-5001 / Fax 055)743-5003
E-마트 : ☎ 055)741-9999 / Fax 055)742-4444

"잘 살기 위해 잘 죽는 법 배워요"





생각보다 '잘 죽는 것'은 간단치 않다. 제대로 살기 위해 잘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은 꼭 필요하다. 요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교육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웰다잉 교육강사양성' 과정에도 그래서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웰다잉' 교육강사양성 프로그램

"어느 날 자다가 편안하게 눈 감았으면 좋겠어."

그 누구도 출생 환경을 선택할 수 없듯, 죽음 역시 자살을 제외하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 죽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소망이다.

이미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C.O.E.(Center Of Excellenc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설립된 동경대 종교학과내 생사학연구소에서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에서 '죽음'이 금기시 되던 분위기를 깨뜨리고 '제대로' 죽는 문제가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불교계에서도 '잘 죽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연구소에서 '죽음에 관한 연구'를 하나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불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웰다잉(Well-dying) 교육강사양성 프로그램'을 내놓고 3월 3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즉, '죽음'이라는 개념을 체험과 지식 양면 모두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매주 2회 오후 7시부터 10주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월요일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산학협력을 맺은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오진탁 교수의 웰다잉 체험 교육으로, 수요일에는 사회 · 종교 학자를 비롯해 회향 · 장기기증 · 유산사회환원 · 호스피스 활동 등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의 강연으로 이어진다.

불교사회복지연구소에서 '죽음' 연구라니 좀 뜬금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삶과 종교는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복지는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 충족돼야 할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영역이다. 정신적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불교의 궁극적 목표이자 복지의 최고점일 것이다. 행복한 삶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도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 불자들을 많이 배양시켜 사회 속에서 제대로 작용하도록 돕는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 불교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며 웰다잉 교육강사를 양성하려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통했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불교계 내 관심이 뜨겁다. 현재 강좌에는 사찰 스님 10여명과 재가불자 직장인 20명 등 총 30명이 등록했다. 원래 정원은 25명이었으니 '초과 달성'인 셈이다. 여기에 아직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으나 벌써 '2기 회원'으로 등록하겠다는 전화 문의도 많다.

지금까지 불교계에서 볼 수 없었던 '웰다잉'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새롭긴 해도 불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프로그램이 이 시대,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것일까. 그에 대한 비교적 적절한 답변(죽음이 무엇인지 완벽히 알 도리는 없기에)은 4월 2일 펼쳐진 서울대 종교학과 정진홍 명예교수의 강의에서 들을 수 있었다.

정 교수는 "잘 죽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은 문제"라 잘라 말한다. '태어난' 존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는다. 그것이 육체의 소멸에 불과할지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자명한 명제에 대해서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죽음은 경험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타인의 죽음, 즉 거리가 먼 죽음으로부터 부모·배우자·자식의 죽음으로 '나'라는 개체로 한 없이 다가온 가까운 죽음에 이르면 두려워지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이를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 정립이 없으면 여기서 이미 힘들어집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내지는 '어차피 죽을 것'이라는 식의 회의론적 생각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되면 감정적으로 두렵고 원망스럽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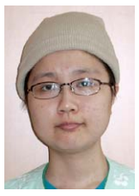
그렇다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어떠해야할까. 정 교수는 "죽음을 외면하기보다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끔씩은 인생의 길에서 멈춰 서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죽음 문제 때문에 우리 삶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다.

한편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임해영 실장은 이번 프로그램의 의미에 대해 "교육이 지식과 체험이 함께 이뤄지는 만큼 강사 본인이 철저히 변화하는 과정을 느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원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앞으로 배출되는 강사들을 적극 활용하면 사찰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02)723-5101

글·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희귀난치병으로 소화기능 상실

생명나눔 선정 이달의 환우



"소원이 있어요. 한번이라도 배부르게 밥 먹어 봤으면 좋겠어요."

평소 소화기능이 약했던 이진영(25·사진)씨. 2007년 3월 어느 날 갑자기 음식물을 먹을 때마다 구역질, 구토와 함께 심한 복통이 생겼다. 음식을 삼키지 못하니 몇 개월 동안 영양제만 맞았다. 단 몇 달 사이에 47Kg이던 체중은 18Kg 감소했고, 병원에서는 병의 발생원인이나 치료법이 명확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이라는 진단을 내릴 뿐이었다.

지금도 진영씨의 상태는 그대로다. 영양실조는 갈수록 심해지고 영양제 주사와 소량의 유동식만으로 연명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식도에서 음식물을 내려 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동식이나 약물조차 조금만 삼켜도 소화시키지 못해 소화촉진을 위한 전기침 자극이 있어야만 한다. 양약과 한약, 위 자극 전기침 치료 등을 2개월간 치료하고 나서야 체중이 33Kg로 조금 늘었지만 진영씨는 현재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다.

진영씨에게 닥친 더 큰 문제는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진영씨가 7세 되던 해 부모님의 이혼으로 진영씨 남매는 조부모님 손에 맡겨졌고, 다시 고모댁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됐다. 고모도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인데다 올해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진영씨의 남동생도 아직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2개월 동안 발생한 치료비가 340만원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진영씨에게 앞으로 400~500만원의 치료비가 더 필요하지만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진다. 아직 젊은 나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이의 진영씨가 건강해 지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02)734-8052

김강진 기자

복지현장을 달리는 사람들

복지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나 수식어를 가져다 붙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그저 아름답다. 그런데 불자들에게 봉사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 바로 '수행'의 연장선에 있는 '실천'이라는 점에서다. 봉사가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불자기 때문에, 불법(佛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다. 이런 심지를 갖고 봉사활동 단체 '목우재'를 이끌고 있는 김순자(71·사진)씨를 만나봤다.

"불자에게 봉사는 곧 수행"

⑱ 목우재 회장 김순자씨



20명의 봉사자 모여 '목우재' 결성
노인복지센터·군법당 봉사 꾸준히

김씨는 교육계 공무원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를 만나면 매우 '정확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복지는 자기 수행이 되는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 같아요. 복지 현장에서 뵙는 분들을 보면 더욱 그래요."

수행에서 복지로, 복지에서 다시 수행으로 이동되는 그의 활동은 고요하고 평안하다. 그렇게 크게 소리 내지 않아도 한 복지단체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로이 인식하게 된다.

불자들은 '상(象) 낸다'는 말을 가장 경계한다.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김씨 역시도 그렇다. 인터뷰를 하면서도 구구절절 봉사활동 '자랑'을 하지 않으려 말을 아꼈다.

하지만 김씨는 '목우재'와 회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듯 했다. 그는 200 3년 20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목우재를 결성했다. 그것을 정회원 60명에 후원회원 20명까지 총 80명이 소속된 큰 단체로 성장시켰다. 비결이 뭘까.

목우재는 조금 특이한 단체다. 우선 모두 '도반'이라 부르지만 재적사찰은 각각 따로 있다. 즉, 사찰 조직이 아니라는 것. 게다가 참기름 도매 등의 수익사업 구조까지 갖춘 탄탄한 복지조직임에도 사무실은 없다.

"평소엔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요. 봉사활동 나올 때나 정기 산행 때 만나서 이야기하고 친목도 다집니다. 좋은 일 하자는 취지에서 만난 사람들이라 뜻만 맞으면 잘 뭉칩니다."

허투루 만든 조직이라면 오랫동안 활동하지도, 회원 배가 운동 없이 동참 회원을 모으지도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 김 회장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과 행동력이 갖춰진 사람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재정을 공개해 매달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목우재 회원들과 함께 김씨는 5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봉사와 군법당 봉사 등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3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문산 11 · 12연대 군법당 봉사는 목우재의 대표적 활동이다. 특히 12연대 활동을 통해 백성사, 충절사와 백학사 3군데 사찰 250여명의 군장병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 놀랍다. 군법당 봉사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먹성 좋은 장병들의 먹거리 준비에서부터 매월 아이디어를 짜내 장병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까지, 김씨는 늘 즐겁게 고민한다.

봉사현장을 누비면서도 김씨가 결코 잊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본래 자리인 '주부'라는 자리다. 자기가 처한 일부터 잘 해야 바깥일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김씨의 지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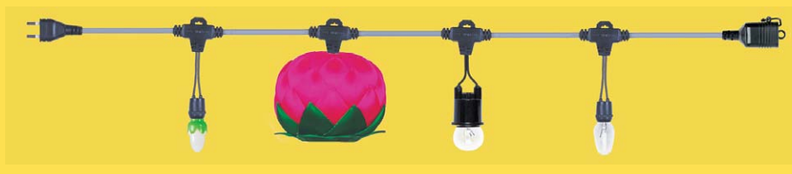
취재하다 보니 또 하나 놀라운 점을 발견해 냈다. 김씨가 산수화 및 동양화 지명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도 수행이라 생각합니다. 연꽃을 그리고 문인화를 그리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제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제대로 세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더 정진하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신개발품
SMD,LED전구 (국산정품)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40cm,50cm,
1M,2M,3M,5M,8M,10M 기타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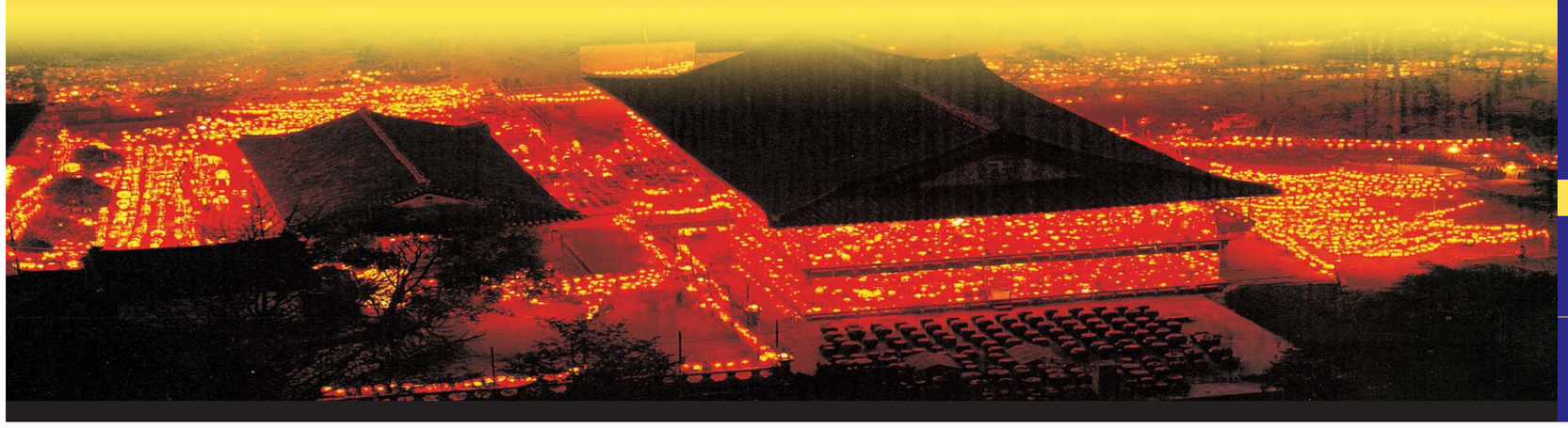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 (국산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 (02)2266-2634, 2263-2638 / 구입문의 (032) 582-6235~6 /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미국의 불교 유입 초기 신조어들

해외불교칼럼


틱낫한 스님은 미국에 불교를 전하며 '입세불교'라는 신조어를 유행시켰다. 사진은 틱낫한 스님의 명상 수행. <현대불교자료사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벌어진 1849년 골드러시(Gold Rush)는 사실상 북미 대륙의 다민족 대이동이었다. 구슬픈 미국민요 '클레멘타인'도 1849년 사람(Forty-niner)이라 불리던 그들의 애환을 노래한 것이다.

동부지역으로만 밀려드는 유럽이민자에 골머리를 앓던 미국정부는 '금싸라기 땅 서부'로 과대 포장된 루머를 조작 또는 편승하여 '노다지 한탕'을 꿈꾸는 그들을 서부개척과 인구분산, 그리고 전국균형발전에 두루 활용하는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 거기엔 미 대륙에 대대손손 살아온 '인디언'이란 토착민의 싹쓸이와 땅 빼앗기가 따를 수밖에 없다.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하얀 선민'들에게 있어 복음의 은총을 못 받은 '붉은 야만인'들은 융화공존은커녕 분리제거의 대상이었다.

다른 한편, 때맞춰 본격화된 방대한 대륙횡단철도와 서부항만 건설로 인해 수많은 동양이민자들이 몰려든다. 예컨대, 엄청난 수의 중국이민자들은 작은 어촌에 불과하던 샌프란시스코를 거대 신도시로 바꾼 주역이다. 그들은 1854년 현지에 최초의 불교사찰을 세우는데 30여 년 후에는 그 수가 400여 개로 급증한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불교를 '이교도의 푸닥거리' 쯤으로 내리깔며 절을 조스 하우스(Joss House), 즉 '분향소'라 빈정댄다. 아마도 그게 미국에 맨 처음 생겨난 불교관련 신조어 같다. 그처럼 미국사회에 나타난 신조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50년대 후반의 비트 불교(Beatnik Buddhism)다. 기도교적 기존가치관을 거부하는 비트세대(Beat Generation), 그즈음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하여 '세계 제일'을 자랑하던 미국의 체면을 뭉개버린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utnik), 그리고 불교(Buddhism)가 결합된 이 말은 <미국판 문화혁명>의 본질을 상징한다.

또한 이 신조어는 제정러시아 말기의 '브나로드 민중운동'의 못 다한 원혼(冤魂)이 냉전시대의 미국에 다시 나타난 격인 '비트 운동', 그 모태(母胎)가 바로 불교임을 명증한다. 좀 더 살펴보자.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 패전국 일본의 스즈키 다이세쓰(鈴木大拙) 선사가 컬럼비아 대학의 객원교수로 참선수행과 불교 강의를 시작한다. 당시 그가 소개한 불교의 원융상생과 공존철학은 기독교적 양분사고와 선민의식에 일대 충격을 가하는바, 이내 컬럼비아대학은 비트 불교의 산실이 된다. 비트 불교는 현대판 마녀사냥인 '매카시즘' 등 극단적 반공 및 미소진영의 양분 이데올로기에 몰입한 당대 기성세대에 반발하던 미국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잭 케루악, 앨런 긴스버그, 윌리엄 버로우주, 개리 스나이더, 필립 웨일런 등 문인들이 비트 운동권의 핵심으로 그 중 일부는 미 정보당국의 요시찰 인물이었다. 컬럼비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Ivy League) 출신의 그 수재들은 비트 운동과 더불어 현대 미국불교의 선구자다. 이어 1959년 월남전이 발발한다. 그 참상을 보다 못한 월남의 불자들이 속세로 뛰어들 즈음 틱낫한 선사는 입세불교(入世佛敎)란 신조어를 만드는바, 미국 등에선 참여불교(Engaged Buddhism)로 알려지며 지금껏 반전, 환경보호, 인권옹호 등의 횃불로 이어져 온다.

그 후 달라이 라마 르네상스(Dalai Lama Renaissance)란 말이 새로 나왔다. 이는 달라이 라마라는 개인보다는 하나의 '정리된 인격체'로 표상되는 동양적 공존가치관을 뜻한다. 또한 불교의 상생연기(相生緣起)의 인본철학이 아직껏 중세 기독교적 암흑시대(Dark Ages)의 양분배타(兩分排他) 사고에 갇힌 서구사회를 일깨운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를 계기로 종교적 독단에서 벗어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시작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불연을 맺게 된다. 신조어란 반짝 지나가는 일과성 해프닝이 아니라 일련의 지속현상에 대한 압축적 묘사다. 따라서 앞서 말한 신조어들을 통해 우리는 미국불교의 흐름(trend)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럼 요즘엔 무슨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을까? 성휴 스님

출처; Buddhism in America, Beatnik Buddhism,

"승리는 나의 업" 자신감 충만

얼드 스타 불심도

필 잭슨 ❺

불교와 연관된 얘기들 가운데 이런 게 있다. 일본의 전국시대에 어느 장군이 결전에 나선다. 그런데 적이 막강한 걸 알게 된 그의 병졸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듯 지레 겁을 먹는다. 전장으로 가던 길목에 작은 절이 나타난다. 행군을 중단시킨 장군은 불단에 향을 올리고 돌아서서 병졸들에게 은화 한 닢을 들어 보인다.

"내가 이 은화를 던져 만일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승리하고, 뒷면이 나오면 우리 모두 도륙을 당할 것이다."

그의 손가락에서 튕겨진 은화가 햇빛에 반짝하더니 이내 그의 손바닥에 떨어진다. 병졸들은 침을 꼴깍대며 그의 말을 숨죽여 기다린다. 장군이 득의의 미소를 짓는다.

"보라, 앞면이 나왔도다!" 그러자 병졸들은 함성을 외치며 적진으로 돌진한다. 그리고 이긴다. 승전을 자축하는 자리에서 그의 참모가 말한다.

"각하, 세존의 가피가 정녕 영험하시옵니다."

"아, 그럼!"

장군이 싱긋 웃으며 그에게 그 은화를 툭 던진다. 참모의 입이 떡 벌어진다.

"어!?" 은화의 양면은 똑같았다. 필 잭슨은 승부사다. 앞서 말한 장군처럼 '이기는 것'이 그의 책임이자 직업이다. 손자와 오자 등의 전법에 정통한 그는 기만술, 즉 속임수의 대가다. 그는 상황에 따라 여기저기 튕겨주는 리바운드, 정신 못 차릴 드리블과 후진패스 등 숱한 농구 트릭들을 그대로 언론플레이에도 써먹는다.

게다가 그는 참선의 체험도 역이용한다. 그는 상대를 혼란과 분산으로 몰아가는 전법을 참선에서 터득했다. 참선을 하는 이는 혼란의 원인을 잘 알고, 집중을 하는 이는 분산의 본질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 그는 시합 이전부터 상대 팀의 기를 죽이거나 초조 또는 흥분하게 하는 등 평상심을 지니지 못하게 마구 흔들어대는 고도의 심리전을 편다. 그리고 때론 자기 혼잣말처럼 상대 팀을 실실 약올려가며 내부교란을 유도한다. 기자가 묻는다.

"오늘의 경기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아무튼 난 패배를 감당할 능력도 경험도 없어요."

그는 늘 이런 식으로 상대 팀의 기선을 제압한다.

"잘 아시다시피, 난 예전에 선수로 뛸 때나 코치를 하는 지금이나 늘 우승팀의 소속이죠. 그러다보니 승리란 게 마치 날 위해 미리 정해진 일 같군요. 좋든 싫든 승리가 나의 카르마인 걸 난들 어찌 피하겠어요?"

기자가 되묻는다.

"자신감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글쎄요, 나야 뭐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말 하는 것뿐예요. 내 말을 재미있게 듣는 분도 있고 피식 콧방귀를 튕기는 분도 있을 테죠?"

그는 돌아서는 기자의 뒤통수에 대고 마지막 한 마디를 툭 던진다. "아참! 내 말에 이빨을 뿌드득 가는 분들도 더러 계시겠죠?"

참선 체험으로 혼란의 원인 파악
상대팀 교란 시키는 심리전 구사

이런 말은 시합 직전 극도로 신경이 곤두선 상대 팀을 아예 돌아버리게 할 수도 있다. 다른 기자가 묻는다.

"농구에서 가장 신나는 부분이 뭔가요?"

"오늘처럼 상대 팀의 홈코트에 와서 이기는 거죠. 적진에 들어와서 이기면 진짜 기분 좋죠. 우리 팀한테 나자빠진 홈팀과 넋이 달아난 관중을 홈코트에 남겨둔 채 우리끼리 리무진버스를 타고 신나게 공항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경기는 좀 힘드실 텐데요."

"글쎄요, 그래도 어디 연습게임만큼 힘들겠어요?"

여기 홈팀쯤이야 자기 팀의 연습게임 상대도 못 된다는 소리다. 이는 팀 안팎을 겨냥한 이중플레이인바, 순식간에 리바운드가 되어 자기 팀의 선수들에겐 이렇게 전해진다.

"이기자! 꼭 이겨서 우리 팀 리무진버스를 타고 후딱 공항으로 떠나자." 그와 동시에, 나약한 적수들에겐 그 리바운드가 고속역회전을 하며 비수처럼 꽂힐 수도 있다. "허, 필 잭슨한테 이번엔 우리가 깨질 차례인가?"

성휴 스님

獨 무스타파 차관 스리랑카 방문

독일 관광부의 파이츠 무스타파 차관은 최근 베를린 소재 불교사원의 빌라치에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동 사원이 독일인들의 스리랑카 불교체험관광에 주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관광부의 임직원과 함께 방문한 그는 빌라치에 스님에게 독일인들이 스리랑카로 불교체험관광을 앞두고 동 사원에서 불교의 기본지식과 참선을 예비 습득한다고 치하했다.

출처 ; DBV

日 남부 오키나와 사원 애견 화제

일본 남부 오키나와 섬의 징게닌 사원에서 키우는 애견 한 마리가 최근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 살짜리 수컷인 '코난'이란 이름의 이 치와와는 음식이나 산책이 필요할 때면 뒷발로 서서 두 앞발을 코앞에 다소곳이 모으는가 하면 스님이 예불을 할 때도 곁에 나란히 앉아 이처럼 합장을 한다.

그 희한한 사진들이 매스컴에 뜨자 일본 본토에서도 어린이를 동반한 관광객이 몰려들고 사원 방문객도 지난 2월부터 3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출처; ABN

美 태국사원서 화재 대웅전 소실

3월 23일 오전 10시 미국 알라스카 어빙톤 소재 '세계불교 태국사원'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 시설 일부를 태우고 45분 만에 진화됐다. 세인트 앨모 소방구조대의 마빈 소장은 이 화재로 대웅전이 소실되고 부속 건물이 2동이 심히 훼손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발표했다.

출처; BCT

A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I have enough discipline for both of us

나는 우리 두 사람 몫의 절제를 지니고 있어요



An American student confided in her Japanese zen master, "I have tremendous feelings of love for you and it's confusing me." "No worry," he said. "You can let yourself have all the feelings you have for your master. I have enough discipline for both of us." At the story, a Korean monk chuckled, "Oh, he must be a super master to have discipline for two selves while I just cannot afford it for my own self."

미국인 여학생이 일본 선사에게 수줍게 살짝 고백했다. "저, 실은 선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맘을 지니고 있어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 스승에게 모든 감정을 지녀도 돼요. 나는 우리 두 사람 몫의 절제를 넉넉히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 얘기를 들은 어느 한국 스님이 껄껄댔다, "거참, 대단하신 분이로군. 난 일인분도 못하는 절제를 이인 분씩이나 하시다니."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500원씩 공급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 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은 사찰에 갈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상식당에서 먹는 것과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명품 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 "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기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에는 막힘없는 불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공양하는 불자님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별(스타)을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 "다니" 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4,0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님께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1,5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깊은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있다. 명품수저 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물용 30,000원과,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75,000원, 100Set 150,000원 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별로 삼원,수리,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작명,법명,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정가 : 50,000원

"효 타 비결서"(상,하권)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할 수 있음
- 정가 : 50,000원

"신 수 비 결"

- 2008년의 운세를 각 개인별로 감정
- 정가 : 20,000원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위치 : 금사동 동일고무밸트 옆

봉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 행

고무신코 만 행 화

조각무명



사부대중 선 물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 가격 : 90,000원
• 규격 : 220-255mm
• 색상 : 회색, 검정색

3-1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20-255mm
• 색상 : 회색, 검정색

3-1밴드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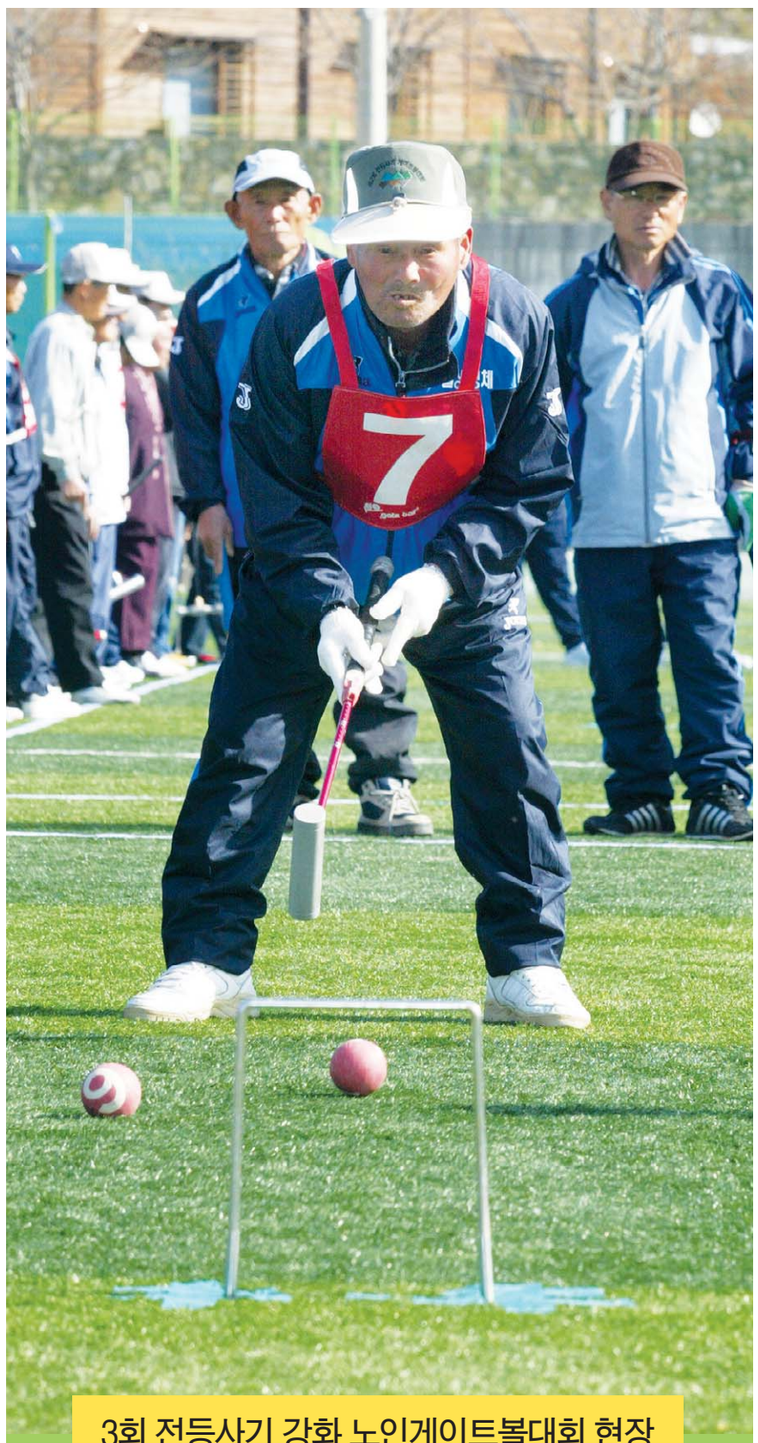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운동하고 진료받고 '활력충전'









"어떻게 쳐야할까?"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한 어르신이 신중하게 공을 칠 경로를 탐색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날 전등사 신도회 자원봉사자 80여 명은 1200인분의 음식을 직접 준비해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사진 위).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에서 마련한 무료진료실에서는 양·한방 의료봉사가 펼쳐졌다.

3회 전등사기 강화 노인게이트볼대회 현장

게이트볼이란?

게이트볼은 T자형 스틱으로 볼을 쳐 경기장 내 3개의 게이트를 차례로 통과시킨 다음 골폴에 맞춰 득점하는 경기다. 13세기 경 프랑스 남부 농민들이 개발한 운동으로 현재 유럽과 일본 등에서 생활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에는 1980년대 초반에 보급돼 현재 전국적으로 30여만 명 정도가 즐기고 있다. 신체에 큰 무리를 주지 않아 노인들에게 적합하며, 특별한 시설 설치가 필요 없어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 등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람 선선하고 햇살 따뜻하니 게이트볼하기에 딱 좋은 날씨지."

봄비가 강화의 대지를 적신 다음 날인 4월 3일, 강화군 길상면 길상공설운동장에 지역 어르신 800여 명이 모였다. 전등사(주지 혜경)가 주관하는 '제3회 전등사기 전 강화 노인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오전 8시 경기장에 도착한 이상식(74, 하점면) 할아버지는 "날씨도 좋고 마음도 좋다"며 게이트볼 스틱을 높이 들어보였다.

전등사가 지난 2006년부터 지역 화합 도모와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게이트볼대회는 올해로 3회를 맞았다. 읍·면·리 단위별로 게이트볼팀이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게이트볼의 인기가 높은 강화 지역의 특성에 착안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 마당을 열게 된 것이다. 올해는 농번기를 피해 대회 일정을 한 달 정도 앞당겼다.

전등사는 대회의 제반 경비와 상금, 기념품 마련 등은 물론 이날 1200여 명 분의 점식식사와 과일, 떡 등도 준비했다. 80여 명의 신도회 자원봉사자들이 1개월 전부터 직접 행사를 계획하고 음식을 마련한다.

지역 사암연합회 소속 사찰들도 떡과 간식 등을 십시일반 보탰다. 경기장 한쪽에서는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자원봉사자들이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아파도 병원 한 번 가기 쉽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인 셈이다.

웃음과 여유로운 경기 분위기

"전국 어딜가도 이만한 행사 없어요"

대회는 오전 8시부터 시작돼 예선을 통과한 73개 팀이 12코트로 나눠 경기를 치렀다. 선수도, 심판위원들도 60~80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경기 내내 웃음과 여유가 넘쳐흐른다.

"아이고, 좀 더 세게 쳤어야지." "공을 이쪽으로 놓고 쳐." "저 양반은 귀가 잘 안 들려. 크게 얘기해줘야 해."

상대팀의 실수도 마치 내 일인 듯 아쉬워하는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온다. 윤경애(77, 흥왕면) 할머니는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하러 중국도 가고 제주도에도 가 봤지만, 전등사에서 하는 행사만큼 어른들을 잘 모시는 곳이 없다"고 말한다.

13년째 게이트볼을 즐기고 있는 윤 할머니는 "전등사 1회 대회 때부터 줄곧 선수로 참가해왔다"며 "절에서 자비의 마음으로 잔치를 열어 주니 더 없이 고마울 따름"이라며 밝게 미소를 지었다. 행사를 주최한 국민생활체육 강화군게이트볼연합회 전동결 회장은 선수들에게 "종교를 떠나 부처님 도량에서 경기를 펼치는 만큼 자비심을 가지고 경기를 즐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틈틈이 어르신 선수들은 전등사 신도회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신도회 김학수(68) 고문은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모여 이렇게 어울리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흐뭇하다"며 "강화 지역에 큰 교회도 많지만 사찰에서 앞장 서 이런 자리를 만듦으로써 지역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오후 5시까지 계속된 경기에서 결선에 오른 난정A팀이 신정B팀을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팀과 준우승팀, 3·4위 등 총 8개 팀에 총 500여 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전등사 주지 혜경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게 돼 기쁘다"며 "전등사는 앞으로도 지역민, 더 나아가 국민들의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화/글=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귀의 삼보 하옵고
지장선원 ·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혜명과 조계종 종지를 봉대하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전법과 불자님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토 안양국에 세워질 도심속의 전법도량 신축불사에 무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세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원불봉안 및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께는 돌아가신 후 영구위패를 봉안하여 사십구재와 기제사, 명절차례를 세세생생 모셔드리며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 매일 천도 기도해 드립니다.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한통의 전화로 신축불사가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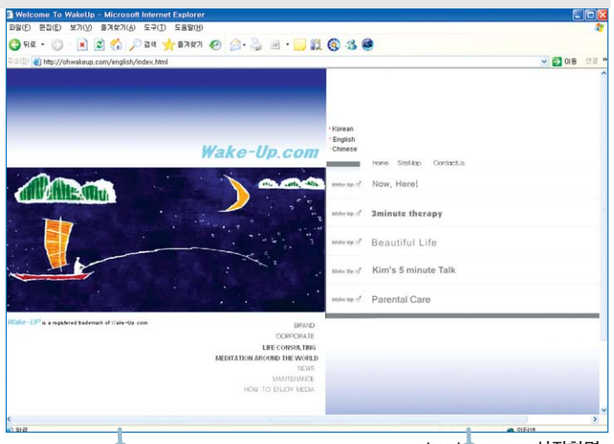
안양불교문화원 ARS 신축불사후원금 060-707-1032 월 심 허
신축불사상담 1588-1936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수석고문 이필상

ohwakeu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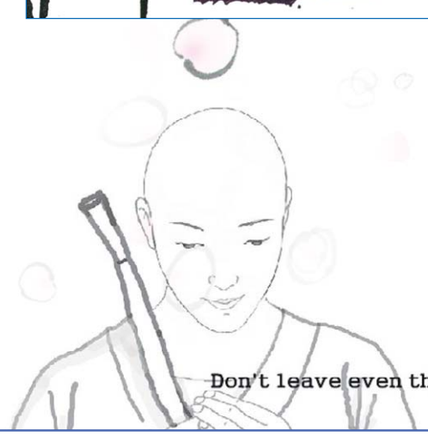
'3분 요법' '아름다운 삶' '김도향의 5분 명상' '태교' 등의 다양한 컨텐츠

판화가 정병례와 인터넷 명상포교가 만났다



ohwakeup.com 시작화면.


'앉은 자리 꽃자리' -마음.



'Beautiful Life' 시명상-봄날의 추락.

감성시대다.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는 기술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감성을 꾸준히 자극한다. 현대인은 바쁘다. 그럴수록 여유와 쉼을 갈망한다. 그러나 그 방식이 때로는 번거롭다. 쉼을 위해 주말을 기다리지만 '쉬는 듯이' 쉴만한 껴리가 많지 않다. 여유와 쉼 그리고 깨달음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친숙한 미디어인 인터넷으로 명상을 즐기며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다. 한 번의 클릭으로 만나는 일상속의 명상이다.

명상 전문 웹사이트 ohwakeup.com과 판화가 정병례, 작곡가 김도향의 만남으로 새로운 명상휴식 공간이 열렸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현대인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
사회 변화와 소통하는 마음 평화 체험

화면 가득 펼쳐진 은하수이다. 바라만 보고 있어도 절로 편안함이 느껴진다. 밤하늘과도 같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는가, 별을 낚는가 싶더니 물고기와 닮은 초승달을 낚는다. 태공은 그 달에 이끌려 하늘바다를 유유하게 여행한다. 꿈을 꾸는 듯 아름다운 동화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명상이 된다. [앉은자리 꽃자리]에서는 '지금 여기'가 각성의 자리임을 정병례 선생의 판화 작품으로 이야기해준다.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듯 플라시보 효과로 다가와 마음의 번민은 어느새 치유된다. 눈길을 끄는 작품 [마음]은 김도향 선생이 음악을, 정병례 선생이 그림을 맡았다. 내용은 선종 5조 홍인선사와 6조 혜능선사의 마음에 관한 대화를 재구성하였다. 정병례 선생은 "천상(天上)과 현상(現象)을 하나로 통하게 하는 것이 '불교'라는 마인드로 작업한다"고 말했다. 명상 웹사이트 제작은 눈 밝은 여러 지인들이 동참하여 서로 동감하면서 불교 영상포교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불자들의 원력이 밑천이다.

각성(覺醒)이라는 의미의 웹사이트 주소가 눈길을 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과 멸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정각을 위한 수행법으로 깨달음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 진리는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지 결코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깨달음이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생활 속의 각성, 일상이 명상이다.

국제포교사로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불교문화 컨텐츠의 부재를 느껴온 하훈(오웨이커업닷컴 이사. 시인)씨는 "현대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불교의 현실 속에서 '空' 사상을 기반으로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불교를 기획해야겠다는 각오로 첫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말한다. 현대인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포교 방법론으로써의 소통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한 명상을 제작한 것이다. 현재 한글과 영어로 서비스 되고 있다. 사이트는 9월에 오픈할 계획이다. 중국어와 프랑스어까지 동시 서비스할 예정이며, 수익이 안정화 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ohwakeup.com은 명상방법과 명상음악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깨고, 언어의 한계를 벗어남을 화두로 삼는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연령과 대화가능한, 일상의 명상을 모색한다는 취지이다. '3분 요법' '아름다운 삶' '김도향의 5분 명상' '태교' 등의 다양한 컨텐츠도 즐겨보자. 은유적인 불교 표현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공감하면서, 사회의 변화와 소통하는 안정된 마음의 평화를 체험할 수 있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34 쑥콩국



음력 3월에 채취한 인진쑥이 약효 높아
여성 위한 약초, 간 보호 위해 먹어도 좋아

쑥은 겨우내 움츠렸던 몸이 봄을 맞아 활기를 되찾는데 도움을 주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입맛이 없는 봄철에 식욕촉진제가 되어 줍니다.

쑥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A가 많아 쑥 80g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타민A가 부족하면 세균 등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비타민C 함량도 높아서 감기 예방과 치료는 물론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고혈압 환자에게 유익한 칼륨도 넉넉히 들어 있습니다.

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기는 '치네올(cineol)'이란 정유(精油) 성분으로, 소화액 분비를 왕성하게 해 식사 후 소화를 돕습니다. 특별한 영양가는 없지만 봄의 미각을 돋우는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쑥은 한방재료로도 흔히 이용됩니다. 3월은 인진쑥, 4월은 개똥쑥이라고 해서 음력 3월에 채취한 쑥은 약효가 높지만 이후에 딴것은 약효가 별로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나는 인진쑥은 9~10월에 나는 것이 약효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방에선 쑥이 해열 진통 해독 구충작용이 있다고 해 고혈압 신경통 류마티즘 관절염 간질환 복통 위장병 환자에게 처방합니다. 또한 쑥은 여성을 위한 약초로, 임산부의 유산을 막아주고 월경주기를 고르게 하고 냉증 치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의 해독작용에도 효과가 있어 평소 간을 보호하기 위해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쑥은 떡으로 많이 만들어 먹는데 쑥떡은 다른 떡보다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는 쑥이 쌀의 산성을 중화시켜서 건위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쑥 콩국 재료: 쑥, 메주콩, 조랭이떡, 소금

만드는 법

① 쑥은 잎사귀 하나하나를 떼서 깨끗이 씻어 소쿠리에 건져 둔다. 늦봄이나 여름에 채취한 쑥은 쓴맛이 강하고 드세므로 대소쿠리에 담아 쑥잎이 으깨지도록 힘을 준 다음 물에 헹궈 쓴맛을 뺀다.

② 메주콩은 하루 전에 물에 담가 불린 후 믹서에 곱게 간다.

③ 쑥을 데치고 조랭이떡을 따뜻한 물에 담가 불린다.

④ 곱게 간 콩물을 솥에 넣고 그 위에 쑥을 얹어 한소큼 끓인다. 주걱으로 저어가며 끓어 넘치지 않도록 한다.

⑤ 쑥이 푹 무르게 끓으면 담가둔 조랭이떡을 넣고 다시 한 번 끓여 그릇에 담아낸다. 먹기 직전에 소금으로 간을 한다.

2008년 중국베이징올림픽기념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 "사해보녕" 문화 사절단
2004년 유엔 교육과학문화 조직 국제유산 UNESCO "중국 세계문화유산"



사해보녕 "금운법계-묘음비천-구주일통-홍수묘명" 4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1. 금운법계-불문숭경, 자기향연, 천수천안, 신령구사로.....
*미와선이 암흑세력에 맞서서 싸우며 정의는 최종적으로 승리 할 것 이라는 진리를 애기한다.
2. 묘음비천
귀신을 쫓아낸 후 인간의 산천이 더욱 아름답게 풍요로움을 느끼고 사람의 생활이 성결 해짐을 나타냄.
3. 구주일통
팔기의장, 고무열화, 풍요수하를 통하여 예술을 통하여 민족의 화합, 국가의 강성을 애기함.
4. 홍수묘명
불광보조, 정의산장, 초원래객, 숭속동라등 4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 이 부분은 양관찬란, 만리무운, 음악명괘 희경열렬으로 되어있는데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무용으로 축복을 올린다.

● 중국전통 오페라경극
경극은 대략1830년대 청나라 도광(道光) 황제 때에 여러 가지 지방극이 북경에서 융합되어 발전한 것으로 백팔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90년 청나라 건륭(乾隆) 황제의 80세 생일 때 조정에서는 전국 각지의 유명한 희곡작가들을 북경에 불러 경축 공연을 하게 하였다.

● 공연시간
A Time = 60분 B Time =100분

● 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초청연혁
2006 스리랑카 국립무용 초청 2007년 네팔왕실 무용 초청

▪ 초 청 :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 홈페이지 : www.108.or.kr (자료동영상을 찾으십시요)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은 2008년 4월 15일 ~ 7월 15일까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을 유치하고자 하시는 사찰, 단체는 문의를 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11-1714-8851(24시간) ▪ 후 원 : 불교상조회

인도문화의 다양성 속에 잉태된 붓다의 씨앗



함께가요~ 강의실로!

'부처님오신날' 기념 대중강좌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서 배우는 불자 신행

강사 : 권기현(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부 교수)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일시 : 2008년 3월 26일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인생이란, 그리고 쉼표를 찍는다. 느낌표일수도 물음표일수도 있지만 왠지 쉼표를 찍고 싶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에 대한 답은 인간의 몸이어야만 깨달음을 위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 번 짧은 쉼표를 찍는 순간에 인생이 정의됐다. 고타마 붓다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열반에 이르는 길을 보인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번호부터 8주간 연재될 붓다의 인생은 '불교와 붓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소통의 삼각구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여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붓다의 탄생국가인 인도와 인도의 사상계 전반을 현재 시점에서 조망해 본다.

부처님은 불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며, 우리는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붓다의 생애는 부처님 생전에 쓰인 것이 아니고 많은 제자들의 구전에 의해 오랜 세월 전승된 것이 후일 기록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깊은 산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나고 뾰족한 돌이 개울을 구르고 바닷가에 다다라서는 조약돌이 된 것처럼, 붓다의 생애 또한 많은 선지식들이 온 정성을 다해 갈고 다듬은 내용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선 인도인들은 중국인들과 달리 핵심적 시간 개념인 역사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붓다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전생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도인에게 삶이란 한 생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도인들은 (불교 이전부터) 인생은 일회성이 아니라 윤회전생 한다는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생애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인도인들의 보편적 생각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자료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붓다의 생애를 통해 그의 가르침에 접근하고자 하기에 현존하는 자료를 토대로 붓다 삶의 과정을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오랜 세월 전 작은 눈꽃 하나가 히말라야 정상에서 뭉쳐진 것이 구르고 굴러 뭉쳐짐이 더해져 우리의 눈이나 생각으로 쉽게 느끼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크기의 눈덩이가 된 것과 같습니다. 현재의 불교는 너무나 복잡다단해서 무엇이 불교인지 또한 그 핵심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열쇠는 붓다의 생애이고, 이 열쇠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8주에 걸친 기획강좌의 개설이유입니다. 또한 오늘은 본격적인 생애에 들어가기 이전에 특별서비스로 실타래를 하나 더 드립니다. 혹시 길을 잃으면 사용하세요. 실타래는 오늘의 주제인 인도문화의 다양성입니다.

과거 한국 불교에서 붓다의 모습은 다분히 신비적이고 초현실적인 신성적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실증적이며 현실적인 인간 붓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닌 관점의 차이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 관점은 중도적 차원에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붓다의 생애는 신비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 종교적 신격화와 실증적 합리주의에 대한 치우침이 없이 이해해야 합니다. 왜 붓다는 인도에서 태어났을까요? <삼국유사>에 신라 불국토설에 대한 기사가 거론되긴 하지만, 왜 신라시대에는 붓다가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물음표를 띄어본 적이 있는지요.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에 붓다의 선근(善根)종자가 태어난다면 과연 붓다로의 완성이 가능할까요? 우리 문화 속에서라면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인도는 다양성의 민족임을 기억하십시오. 인도사는 인더스문명으로부터 5000년의 긴 역사적 배경을 갖습니다. 보통 국가의 역사개념과는 훨씬 넓은 시간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요. 우리 역사도 반만년이라고 배웠지만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역사입니다. 비록 인도 지형도 한국과 같은 반도라 해도 우리와 달리 거의 전세계적인 모든 지리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 동쪽의 뱅갈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영일만과 달리 인도의 태풍인 사이클론이 발생하는 거대한 만 형태의 바다입니다. 서해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아라비아해며, 남해는 세계의 대양인 인도양입니다. 산은 어떨까요?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를 이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리·풍토·역사적 배경 속 사상·철학·종교 공존
생각의 차이 인정 · 융화하는 용광로 같은 문화

인도 기후를 볼까요? 위로는 4계절의 만년설이 있고, 아래로는 일년내내 상하(常夏)의 기온을 유지합니다. 좀 더 지리적인 면을 보면 북인도에는 기차를 타고 2박3일을 가도 끝없이 펼쳐진 힌두스탄 대평원이 있습니다. 평원의 서쪽에는 라자스탄 사막이 펼쳐져 평원문화와 사막문화도 북인도에 있습니다. '산은 문화를 단절하고 강은 문화를 통합시킨다'고 하듯이 히말라야 산에 의해서 인도문화와 중국문화가 나누어져 있는 반면에 힌두스탄 대평원의 젓줄인 갠지스강은 북인도 동서 문화를 통합시킵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중인도 문화권으로 데칸고원이 펼쳐집니다. 또 아래는 남인도 문화권으로 북인도와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인종도 문다, 드라비다로 대표되는 아리안과 다르고 식생도 다릅니다. 북인도는 과거 밀이 주식이지만 남인도는 쌀이 주식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삶의 모습 또한 극과 극의 삶이 공존하고 있지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인도의 부자집 담에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극도의 빈곤층이 천막에서 살아갑니다. 너무나 극과 극의 대비라고 할 수 있겠지요. 비록 인도출신은 아니지만 인류 사랑의 상징이었던 테레사 수녀와 같은 분이 있는 반면, 사티라는 이름으로 산 사람을 화장하는 비윤리적 사회관습이 공존합니다.

인도는 언어자체도 다양합니다. 우리의 방언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처럼 국어 개념이 아니라 국가에서 18개의 공용어를 인정하고 있지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의 공통어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통념인데 인도는 다릅니다. 인도인이 영어를 잘하는 이유도 일차적으로는 영국식민지의 원인이겠지만 인도 자체 내에서 18개 언어 사이에서는 서로 완벽하게 대화가 되지 않고, 외국어처럼 따로 배우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기에 국내 사람끼리 만나도 영어로서 대화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를 달리 사용함으로써 사고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란 인간의 사고를 개념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진 인도인은 엄청난 사고방식의 다양함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고는 다양한 문화를 낳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와 민족이 거의 단일문화로 형성되어 왔지만 인도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인도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합니다. 이 말은 다양한 사상과 철학, 종교가 공존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인도는 문화의 차이 즉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융화하는 용광로와 같은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의 조화로움 속에서 붓다는 태어났고 그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사유구조를 배우고 경험하고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부질없음을 통렬히 깨달았습니다. 남은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떨치기 어려운 두 가지의 극단적 사유구조 즉, 화학적 성분구조 차이로서의 물과 불이 아니라 사유방법의 차이로서 더 나아가 문화차이로서의 상징적 의미로 물과 불의 조화를 이루어 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붓다의 씨앗이 고타마 붓다로 완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화의 다양성이 실타래로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도 단일문화의 벽을 넘어 문화적 사고의 폭을 넓히고, 갈등을 극복하고, 너와 내가 서로 다름과 같음을 수용한다면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누구나가 붓다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글=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Tip

부처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이번 대중강좌는 3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다.

▶ 문의 및 접수 : 불교인재개발원 (02)735-2428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연 락 처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충청지사	043)732-5560
경남 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 서부지사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5199
영주지국	054)634-3429
경남 남부지사	055)746-9778

필름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오시는 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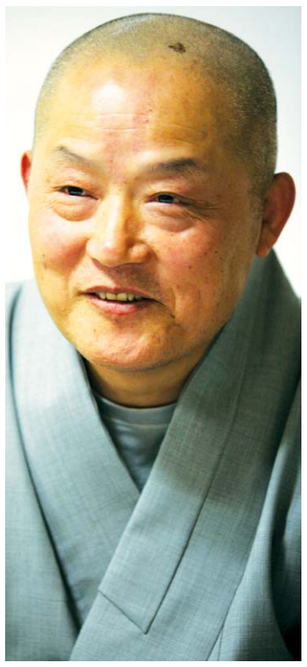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고따마 붓다 성열 스님 지음|문화문고 펴냄|2만2000원

역사와 설화로 붓다의 인간적 모습 그려



"우리는 부처님을 너무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과연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부처는 역사적 존재로 실존했던 '고따마 붓다'입니다."

'붓다'를 실존한 한 인물로 바라보고, 철저히 새로운 시각에서 편찬한 전기(傳記)가 나왔다. 저자는 서울 강남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포교 · 저술활동을 해온 강남포교원장 성열 스님(사진)이다.

스님은 '고따마 붓다'를 철저한 자료수집과 고증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스님의 이번 책 <고따마 붓다> 뒤에는 '역사와 설화'라는 부제가 붙었다. 이를 통해 스님이 인문학적이면서 불교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붓다'의 일대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책의 첫 장을 열어 보면 마치 역사책과 같은 느낌이다. 1장 '붓다가 태어난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의 지리 · 정치 · 사회 · 경제적 환경이 어떠했는지, 그 때의 사상계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부터 먼저 짚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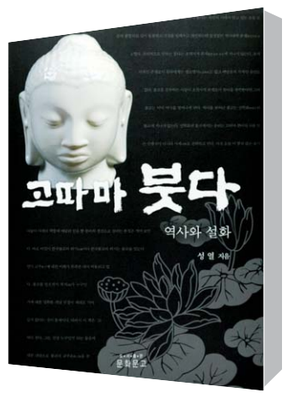
이후 '탄생과 전설'에서는 후일 부처가 될 샤까족 싯닷타 태자의 출생 배경을 샤까족의 정치형태와 결혼관계를 통해 소상히 밝히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신비주의적으로 해석됐던 탄생설화는 해석학적으로 설명한 경전과 근거자료를 찾아 썼다. 이런 식으로 이 책에서는 젊은시절, 출가와 수행, 성도, 설법, 전도, 만년, 임종과 경전결집 등으로 총 10장에 걸쳐 붓다의 생애와 이후 제자들의 경전결집까지 정리했다. 마지막 장인 11장에서는 '그 밖의 이야기들'이라는 이름으로 본장에서 다루지 못한 붓다의 시련과 불교의 전파 등을 다뤘다.

전체적으로 무겁지는 않다. 하지만 의문이 생긴다. 성열 스님이 왜 새삼 불교의 교주인 '고따마 붓다'를 주제로 책을 썼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부처님 전기를 만나왔는데 또 다른 책이 필요했을까.

"부처님을 '너무 거룩해서 잡히지 않는 존재'라 생각하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불교의 종교관은 인생의 궁극적 물음 위에서 해답을 찾고, 그 해답 위에서 가르침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종교관을 바로 세우고 지금 이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고따마 붓다'부터 똑바로 봐야합니다."

이는 스님의 불교운동 정신과도 연관이 있다. 스님은 1982년 당시 획기적으로 강남포교원을 연 이래 줄곧 <아함경>을 토대로 <부처님 말씀>(현암사)을 저술하는 한편, 붓다의 생애를 정리하는데 온 정열을 쏟아왔다. 신격화, 신비화된 불교를 지양하고 지식불교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어느 누구의 삶도 그가 놓인 구체적 상황에서 전개되는 활동일 뿐 정형화된 어떤 패턴이나 모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패턴에 맞추려고만 하면 생생한 삶이 아니라 박제화 된 죽은 삶이 되고 맙니다. 이 책은 '고따마 붓다'의 삶을 통해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불자다운 것인가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읽어줬으면 합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중국 불교의 역사 한 눈에



한 권으로 읽는 불교
우더신 지음|주호산 옮김 산책자 펴냄|2만3000원

2500여 년 전 인도에서 탄생된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고 발전되어 쇠락하고 부흥하는 역사 과정을 담은 책이다.

중국 문화의 3대 원천이라고 하는 유교 · 불교 · 도교의 시리즈 세권 중 하나이다. '불교의 역사에서 배우는 세상과 나 사이의 깨달음'이라는 부제는 인도의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국에 이르는 그 중간 과정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풍부한 도판과 흥미로운 일화는 중국 불교를 쉽고 입체적으로 이해시킨다.

중국의 불교 전래설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한나라 명제가 꿈에서 만난 금인(金人)을 찾기 위해 구법에 나섰다는 고증의 예를 통해 문화사적으로 접근한다.

가연숙 기자

봉정암 가는길 진정한 도반은 누구?



마음이 길을 만나는 시간 열림
임윤수 글 • 사진|가야북스 펴냄|1만1000원

허허로운 마음을 탁발하려 발품 팔아가며 산사를 찾아다니는 사찰기행가 임윤수씨가 봉정암 가는 길을 책으로 엮었다. <열림>은 강원도 낙산사에서 955일 간에 걸친 복원 불사 기록을 담은 <올림>의 뒤를 잔잔하게 이어간다. 작가는 산이 좋아 즐기다 보니 산사가 보이기 시작했고, 산사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 단지 풍광이 좋아 다시 한 번 걷고 싶어졌던 '인적(人跡)의 길'이 지금은 '마음의 길(道)'이 된 것이다.

작가가 5년간 속세와 봉정암 산문을 유람하며 써내려간 기행담을 읽다보면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열쇠와 만날 수 있다. 함께 걷고 싶은 길, 봉정암 가는 길에서 만나는 진정한 도반은 누구일까?

가연숙 기자

내 얼굴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



얼굴. 혼자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 볼 기회를 가져 보라.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 얼굴은 세상을 향해 가장 잘 드러난 자기의 창이다.

그래서 스스로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기도 하다. 살아 온 날과 현재의 생각들이 다 담겨 있기에 마흔 살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글 잘 쓰는 스님' <해인>지의 편집장으로 지명도를 넓혀 온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재무국장 · 사진)이 그간 신문이나 잡지 등에 발표했던 글들과 새로 쓴 글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주로 3~5분 내로 읽은 수 있는 짧은 이야기들이 상자 속의 보석처럼 들어차 있다.

절집 주변의 이야기와 세태를 바라보는 스님의 따뜻한 시선이 매끄러운 문장력과 어우러져 즐거운 사유의 공간을 열어준다. 다양한 경전과 조사들의 어록에서 끌어 들인 일화들이 곁들여진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은 일상에서 한 박자 쉬면서 생각하는 여유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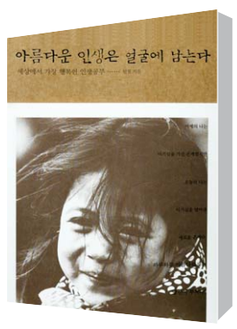
법보종찰 해인사라는 수행 공간에서 젊은 날의 열정을 정진으로 마름질하고 <해인>지 편집장이라는 문화활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온 스님의 눈에는 비치는 모든 것이 참살이의 골간이다. 허둥지둥 사는 현대인들에게 손닿는 곳 눈길 가는 곳이 전부 아름다운 삶의 재료들임을 어깨를 툭 치듯 일깨워 주는 것이 원철 스님 글의 참맛이다.

저자의 사형인 원택 스님은 '쉽다'는 코드를 통해 원철 스님의 글을 평가한다. 스님들의 글은 자칫 한문투나 어록투로 흐르기 쉬운데 원철 스님은 한글세대에 어필되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이선민 논설위원은 이 책을 두고 "나는 우리 불교계가 1970~80년대를 풍미했던 법정 스님 이후 오랫동안 일반 사회와의 소통을 매개하는 글 쓰는 스님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했다"며 "원철 스님이 글로 불교와 세상을 잇는 새 가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종단의 소임을 맡아 수도승(首都僧) 생활을 하고 있는 원철 스님은 세속의 한가운데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한다.

"서울로 올라와보니 생활은 빡빡해졌지만 글 쓰는 데는 더 좋다는 것을 느낀다. 사람도 다양하고 사건도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골에서만 살았다면 절대로 몰랐을 것들도 보게 된다. 도시에 와서 '소통' 문제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 우리만 쓰는 언어로 이야기 하면 소통이 안 되더라."

임연태 기자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스님 지음|들 펴냄|1만원

현대불교♥구독신청 (02)2004-8200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경찬	조계종출판사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6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7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8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9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10	공부하다 죽어라	현각	조화로운 삶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카이로프락틱 · 전생 · 빙의 치유법
지도자 모집
교과목 • 카이로프락틱 –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선추 이론및 실기
• 골격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 최면술, 전생 · 미래체험, 빙의 퇴치법, 집중력 강화, 정신질환, 불면증 해소
기 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 최면 이론실기 8회
장 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 2008년 5월 1일
세계불교 해동화엄종 부설 교육연수원
서울 · 구로구 구로1동 658-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원장 우혜안 스님





책향기를 따라가니

"자각하세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월호 스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출판기념법회 현장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도를 닦아 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행(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 보광당. 우레 같은 박수소리와 '월호 스님'을 부르는 목소리가 한마음으로 울려 퍼지자 하동 쌍계사 승가대학 교수 월호 스님이 웃는 얼굴로 법석에 앉았다. 이날은 스님이 펴낸 책 <당신이 주인입니다>(불광) 출판기념법회가 봉행된 날이었다. 이날 법회는 스님이 불교방송(BBS)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당신이 주인입니다' 방송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기도 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는 스님이 같은 이름의 BBS 프로그램을 통해 불자들에게 알기 쉽게 '참선'과 '경전'에 대해 설명해 온 내용을 엮은 책으로 현재 각 서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날 법회에서도 스님은 시종일관 쉬운 언어로 참석한 사부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으로 법회를 이끌어나갔다. 법문이 책 내용 못지않게 쉽고 부드럽게 다가온다. 스님에게는 같은 말이라도 스님의 한마디는 과연 다르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청중을 유연하게 이어나가는 면모가 있다. 이를테면 불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염(念) '마하반야바라밀!'을 중간중간 외친다던지, 스님이 한 마디를 하면 불자들이 따라하도록 리듬을 넣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이다. 결코 일방적이지 않은 법문, 이쯤 되면 월호 스님에게 열광하는 팬들이 왜 많은지 설명이 가능해진다.

스님이 이날 '十方同聚會(시방동취회)/ 箇箇學無爲(개개학무위)/ 次試選佛場(차시선불장)/ 心空及第歸(심공급제귀)/(시방에서 함께 모여들어 낱낱이 무위법을 공부하네, 여기는 부처를 뽑는 과거장이니 마음이 '공' 해져서 급제해서 돌아가리라)'는 중국 방온 거사의 게송으로 법회를 열었다. 아무래도 한자다 보니 발음이 어렵다. 스님이 한 구절씩 부르면 대중들이 따라 받아 외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한바탕 왁자한 웃음소리가 지나자 스님이 게송을 꺼낸 이유를 설명한다.

불교방송서 1년간 방송한 내용 책으로 묶어
리듬 넣어가며 '주거니' '받거니' 법문 호응 좋아

"게송에서처럼 '무위법(無爲法)'을 공부해 마음이 '공(空)'해지는, 놓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공해지는 것에 머무르지는 말아야겠지요. 공하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나'라는 존재 역시 공하면, 무엇으로든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여기저기서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모든 번뇌망상의 창고 격인 '마음' 잡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하지만 스님의 명쾌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순간만큼은 법당에 모인 불자들 모두가 '공심(空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도반이 된다.

스님은 또한 '행불(行佛)'을 강조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완전 연소하는 삶, 스스로 주인이 되어 후회 없이 '~할 뿐인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완전연소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날 월호 스님의 법회에 참관하기 위한 사부대중은 6000명이 넘었다. 불광사 보광당은 물론 대웅전과 1층 로비까지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한 불자들이 가득 차, 스님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월호 스님의 법회에서는 청취자들의 소감 발표도 있었다. 그 중 서울에 거주하는 홍순혁(58)씨의 사연이 흥미롭다.

"3개월 전에 몸이 불편해 누워서 라디오를 듣다 우연히 스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살기도 힘들고 해서 하루에 소주 3~4병을 마시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술도 완전히 딱 끊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싶더라고요."

홍씨의 이야기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 이 기적을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고 부처 되는 공부에 매진할 용기도 얻는다.

"여러분, 여러분부터 법륜을 굴리는 삶을 살아야합니다! 함께 공부합시다. 당신 인생에서는 당신이 주인공임을 잊지 맙시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붓다의 가르침 스스로 찾는 행복 월폴라 라훌라 지음 · 진철승 옮김 | 대원정사 | 1988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이영호 소장

느낌이 없다는 것 자체가 행복?

일요일 늘어지게 쉬고 있는데 남편의 휴대폰에 진동이 울린다.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모양이다. 번호를 보니 시누이다.

"오빠! 잘 지내시죠? 불교에 입문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남편이 나에게 전화기를 넘긴다. 나는 받자마자 대뜸 말했다.

"아가씨! 잘 지냈어요? 갑자기 불교에 입문하고 싶어 졌어요? 축하해요~ 주소 불러 보세요, 책 한 권 보낼게요."



20년 전 쯤,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에서 시간을 때우다 우연히 손에 집혀서 선 채로 절반을 읽으면서 마치 부족했던 뭔가가 채워지면서 또 반대로 채워져 답답한 공간이 비워져 시원한-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안정감, 또는 진리를 찾은 것 같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책이 있었다.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나올 때는 바로 그 책 <붓다의 가르침 스스로 찾는 행복> 몇 권이 손에 들려 있었다.

연기적 사고 방식은 '분석적'이던 내게 충격
스스로를 관찰하며 행복찾는 지혜 얻어

<붓다의 가르침 스스로 찾는 행복>은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는 연기설과 원인과 결과의 산물인 업의 이론"에 천착하여 석사과정 내내 다분히 불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에 쾌감을 느끼며 즐기던 나에게 충격과 함께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어준 책이다.

나에게 충격을 준 것은 바로 "느낌이 없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가르침이었다. 사실 대학원 시절에는 새롭게 앎을 이뤄나간다는 것에 대한 쾌감과 또 그것을 얻기 위해 마음을 졸이게 되는 불쾌감의 연속에서 긴장된 생활을 하던 나를 한 차원 올려주었다고 생각한다.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감각. 불행하다는 느낌에 불행을 느끼지 않도록, 걱정거리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관찰자가 되어 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 봄으로써 나를 잊는다는 것, 또는 의도적으로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 주변을 편안하게 하는 큰 행복인지를 비로소 찾게 된 것이다.

또한 <붓다의 가르침 스스로 찾는 행복>은 설명이 매우 명쾌하고 간결하면서 부족함이 없고, 설명의 수준도 너무 낮거나 너무 높지 않으면서 중요한 불교의 원리를 잘 담고 있다. 누군가 나에게 불교에 관하여 묻는다면 서슴없이 권하는 책이다. 특히 성취할 목표를 갖고 열심히 매진하는 젊은 엘리트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

"아가씨~ 책 받았어요?"

'내인생의 불서 한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게 발견한 체험담을 싣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산사의 맛을 밥상까지.. 보물창고가 선사하는 산사 웰빙식품
자세한 상품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보물창고
전제품 100% 국내산
3만원 이상 주문시 [무료 택배]
주문전화 02)2261-0255
전국 사찰에서 정성을 들여 만든 식품을 이제 보물창고를 통해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사찰 행사, 법회 때나 매점에서 사찰식품 소매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장류
· 참옻된장(1kg) : 28,000원(유리병) 35,000원(옹기)
· 태양초고추장(1kg) : 25,000원(죽염) 30,000원(죽염매실)
· 청국장(250g) : 3,000원
· 죽염조선간장(500ml) : 8,000원
장아찌류
· 오이(300g) : 7,000원 · 양파(500g) : 8,000원
· 무말랭이(300g) : 7,000원 · 깻잎(300g) : 8,000원
· 새송이버섯(300g) : 7,000원
· 아삭이고추(300g) : 7,000원
차 류
· 산뽕잎차(100g) : 20,000원(중급) 30,000원(상급)
· 연잎(50g) : 9,000원(봉지)
· 연근차(100g) : 15,000원(지통)
· 백련차(100g) : 30,000원
· 발효차(100g) : 30,000원 외 다수
기타
· 연김 : 12,000원(전장 10봉) 13,000(식탁용 42봉)
· 죽염(300g) : 4,000원(2회) 6,000원(3회)
· 청국장환(250g) : 27,000원 30,000원(서목태) 35,000원(서목태표고)
· 산야초오곡조청(1.2kg) : 48,000원 외 다수
■ 주소 : 서울시 중구 필동 1가 23-16
전화번호 02)2261-0255
홈페이지 www.bomul0255.com
■ 입금계좌 : (예금자 : 고영배)
국민 995701-01-058608
농협 360-02-136195
우리 1002-636-745137

소원성취 원불봉안
천불전에 백옥 원불을 봉안하시어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수불사에서는 원불을 봉안하는 모든 불자님들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도록 매일 정성껏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 자녀들의 입시 합격발원
•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발원
• 공무원시험 합격발원
• 입사, 취직, 승진시험 합격발원
• 사업성공 발원
• 건강발원
• 조상 영가 극락왕생 발원
수불사 주지 해광스님 집전으로 매일매일 지극정성 기도발원하여 꼭 소원성취하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불봉안불자는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비결], [불가비의] [속을 보이는 사람들] 저자인 해광스님을 친견하여 운명상담을 받고, 성취하는 기도법과 모든 필요한 방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불사 · 금강불교대학
☎ 032)665-8472 (카페 : 다음[해광스님]) • 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3-7
1. 외곽순환도로 중동 IC 라일락마을 앞
2. 상동신도시 사거리 비잔티움 뒤 상 3동 사무소,119소방센타 맞은 편
옥불제작 : 옥예원 011-347-0085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30>
(修習止觀坐禪法要)

제4장 조화(調和)②

몸이 편안하면 도가 융성한다

云何名調和 今借近譬 以況斯法 如世間陶師 欲造衆器 須先善巧調泥 令使不彊不懦然後可就輪繩 亦如彈琴 前應調絃 令寬急得所方可人弄 出諸妙曲 行者修心 亦復如是 善調五事 必使和適 則三昧易生 有所不調 多諸妨難 善根難發

무엇을 조화라고 하는가.

이를 비유하자면 세간에서 질그릇을 굽는 장인이 갖가지 질그릇을 만들 때 우선적으로 그 흙이 지나치게 단단하거나 무르지 않고 알맞게 조화되어야만 양질의 그릇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래야만 그릇을 만드는데 있어서 장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 거문고를 뜯는 것과도 같다. 다시 말해 거문고를 뜯기 전에 거문고 줄을 잘 조절하여 지나치게 조이거나 느슨하게 하면 안 된다.

만일 거문고 줄이 지나치게 느슨하면 줄을 튕겨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며, 역시 줄을 지나치게 조이면 한 순간에 끊어지기가 쉽다.

그 때문에 느슨한 것과 조이는 것이 알맞게 조절돼야 만이 악기를 연주할 때 아름답고 오묘한 소리를 내 우리들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수행자가 마음을 닦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는 점이다. 수행자가 훌륭하게 방편을 조화하여 다섯 가지 일이 조화되면 삼매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도는 저절로 융성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다섯 가지 방편이 조화되지 않을 경우 몸과 마음만 부질없이 수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병이 증가하고 생명력은 감소하게 된다. 그 때문에 온갖 어려움이 일어나 선근공덕이 쉽게 개발되지 않는데, 이것을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수행자는 반드시 마음을 근신하여 훌륭한 방편으로 알맞게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이로부터 모든 선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一調食者 夫食之爲法 本欲資身進道 食若過飽 則氣急心滿 百脈不通 令心閉塞 坐念不安 若食過少 則身羸心慮 意盧不固 此二者非得定之道 苦食穢觸之物 令人心識昏迷 若食不宣之物 則動宿病 使四大違反 此爲修定之初 須深愼之也 故經云 身安則道降 飮食知絶量 常樂在空閑 心靜樂精進 是名諸佛教

다섯 가지 일을 조화하는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음식을 조복받는 일이다.

거문고 줄이 알맞게 조절돼야 아름다운 소리 나듯
다섯 방편이 알맞게 조화해야 선근 공덕 쉽게 개발된다

만일 음식이 조화되지 않는다면 몸은 불안하고 도는 융성하게 자라나지 않는다. 음식은 그 때문에 도를 닦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몸을 이익 되게 하면서 도업을 수행하려면 비록 몸이 허깨비 같다 할지라도 현재는 반드시 이 몸을 바탕으로 해서 도를 닦아야 된다. 이를 두고 거짓을 빌려다가 진실을 닦고, 유위법을 따라서 무위법으로 나아간다고 했다.

이미 색신을 지니고 있다면 반드시 음식으로서 몸을 유지하는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이 문제를 옛날 큰스님은 말씀하시기를 "전법을 교화하기 이전에 음식을 먹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음식이야말로 사람의 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지 지나치게 음식을 탐하여 포만감을 느끼도록 먹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 기운이 급해지고 호흡이 헐떡거리게 되며 몸은 무거워진다. 이 때문에 모든 맥이 두루 잘 흐르지 못해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게으른 마음이 일어나 모든 병이 한꺼번에 생겨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도업을 닦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된다.

그렇다고 음식을 지나치게 적게 먹어서도 안 된다. 만일 배가 주릴 정도로 음식을 적게 먹는다면 몸은 수척하게 마르고 마음은 뜰떠 생각이 견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몸이 수척해지면 마음도 어지러워져 생각이 견고하지 못하고 사려도 불분명하지 않게 된다. 또 몸이 약해져 힘이 허해지면 정신이 혼미하여 조석으로 우울하고 답답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도가 자라날 수 있겠는가.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지나치게 배가 부른 경우와 주린 경우 등 이 두 가지 모두가 선정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몸이 가득 찬 느낌이 들며 기운은 급하게 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몸은 수척하고 마음까지 안정을 잃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또는 먹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식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가령 더러운 음식이라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병이 더욱 심해지고 수면과 번뇌까지도 증가하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같은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몸을 편안히 하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음식은 도를 증가시키고, 생기를 더욱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만 한다. 그러나 도를 닦는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 오래 묵었던 병이 발동을 하여 끝내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 화 풍 사대가 서로가 서로를 위반하게 된다. 이를 두고 병은 입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바로 이 의미에 해당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음식은 조화를 이루어 반드시 지나치게 배가 고프지도 않고 지나치게 배가 부르지도 않아야 되는데, 적게는 몸과 마음이 허한데 이르러서도 안 되고 많게는 내 몸에 알맞은 분량을 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분량을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선정을 닦을 때에 음식을 조화하는 최초의 방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깊이 살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몸이 편안하면 도가 융성한다"라고 하였을 것이다.

음식을 먹으면서 분량을 조절할 줄 알아서 항상 고요한 처소에 있기를 좋아한다면 몸과 마음이 적정하여 정진이 용맹스러울 것이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선심소(善心所)

행온에 포섭되는 근본번뇌심소는 이미 밝혔으므로 여기에서는 열 한가지 선심소유법(善心所有法)중 신심(信心), 무탐심(無貪心), 무진심(無瞋心), 무치심(無癡心), 정진심(精進心) 등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① 신심(信心)

'신심(信心)'은 자신이 인순(印順)하는 대상 경계에 있어서 그 대상이 사람이든 또는 이치적인 도리이든 지극정성으로 의지하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자체 성질로 삼고, 불신하는 마음을 대치하여 선업을 즐겨 행하게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인순'이라 하는 것은 인식대상을 옳다고 인정하고 그 이치대로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심의 상태에서는 다른 경계에 부딪친다 해도 변덕을 일으키거나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산만하게 오염된 번뇌의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식별하여 확신하는 마음 청정한 신심에는 미혹이란 없어

우리가 모든 선업을 익히고 수행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선한 행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인순하는 신심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선심이 우선해야만 하며, 큰일을 성취하려면 그에 걸맞는 신심이 동시에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신심이 의지하고 사려하는 도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성의 이치를 깨닫고 성취하고자 하는 희망적인 욕구입니다. 중생들은 자신의 본래면목을 알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희망적인 욕구, 즉 진리에 대한 근원적인 신심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지닌 지혜력으로 올바른 신심을 일으키고 다시 자기의 본성을 의지해서 올바른 수행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자신의 지혜력으로 충분히 진리를 성취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심은 스스로 진리를 밝히고 식별하여 그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을 일으키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미혹의 번뇌와 정반대되는 청정한 마음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맹목적인 미신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심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리=張如舟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설치공사 · 앰프 · 마이크 · 스피커 · 무선마이크
POWER+
투윈미디어의 특허품
국내최초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음향기기
"엠파워 플러스"(400W급)
AC전원 USB충전 스피커 배터리 충전 유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소형IT제품군 재생 차량 점퍼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Twin Media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 계좌번호 : 신한은행 011-229-849384 최유창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비밀의 열쇠"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이미지를 품기만 해도 그와 비슷한 형태를 불러온다. 욕망은 원하는 것들을 연결해주고, 기도는 그것을 끌어당긴다.
이 책에는 비밀을 활용해 건강과 부와 행복을 거머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끌어당김법칙"을 공개하오니 기도 성취를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 The Secret of Prayer
화재의 신간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 찾아오시는길: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롯데리아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사단법인 대한호국 불교 소림선종
입 종 안 내
달마조사께서 주석 하셨던 중국 숭산소림사의 달마조사 33대제자 석영신방장 큰 스님으로부터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총무원장 덕산 석연화 큰 스님과 10여명의 소림선종의 스님들이 달마조사 34대제자로 중국 숭산소림사 큰 법당에서 소림 1600년사에 외국스님들에게는 최초로 금년 1월 23일 수계법회가 여법히 거행되었음을 중국언론에서 특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중국 숭산소림사 석영신방장 일행 23명의 소림스님들이 서울 인사동 소재 중국 숭산소림사 한국문화원본부 현판식 참석 및 소림무술 공연 행사를 (2월 18일~2월 21일) 서울 신촌 봉원사와 원주 소림선종 본찰 용화사, 부산 해동용궁사에서 거행하였고 그리고 본 종단의 숙원 사업인 소림승가대학과 소림중앙선원 소림무술학교 건립불사를 시행하여 본 종단의 면모를 여법히 갖추고져 합니다. 이에 때를 같이하여 뜻을 함께하실 대덕큰스님과 종도 및 행자님을 모시고져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국소림사에서 달마조사의 제자로 수 · 도계첩 수여(입종비:15만원)
◇ 입종시 :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부여
◇ 입종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승려증사본 2통, 이력서 1통, 여권사진 5매
소림문화원 개원에 따른 수강생 모집
(개강일 4월 1일)
■ 명상수행 : 새벽반, 오후반(무료)
■ 서화(동양화) : 주 3회 2시간 청곡 이한동선생(3개월 10만원)
■ 서 예 : 주 3회 2시간 석천 김기섭 선생
■ 소림무술 : 소림무술스님 : 석연체스님, 석연탁스님(소림사 석영신방장님제자), 스님 무료(입종스님에 한함)
■ 대상 : 스님, 일반인, 학생
중국 숭산 소림사 한국문화원
소림선종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번지 동일빌딩 6층
전화 02)720-6363 / 팩스 02)720-6340 / 담당 010-6438-3561
인터넷 동영상 : (야후) 연합불교방송

“마음 잘 쓰면 부처 못 쓰면 살인자”

현산 스님(화엄사 선등선원장)

‘따~악!’ “지금 주장자를 한 번 친 뜻은 무엇입니까? 경계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주장자를 들고 뭐하는가?’ 할 것입니다. 반면, 공부인은 주장자를 보는 마음을 취해서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화두를 들 것입니다.”

3월 30일,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명진) 법왕루에서는 500여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새봄맞이 선덕(禪德: 수좌들의 사표가 되는 선지식)스님 초청법회’가 열렸다. 이날 첫 번째 선덕으로 등단한 스님은 화엄사 선등선원장 현산(玄山) 스님. 필자는 4년 전, ‘4사자 3층 석탑(국보 제35호)’ 바로 옆에 있는 화엄사 견성당(일명 탑전)에서 스님을 뵌 후, 다시 한 번 스님께 참문(參問)할 기회를 가지려 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스님은 “마침 서울에서 법문할 일정이 있으니, 내려올 필요 없이 봉은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

전날 화엄사에서 올라온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지리산의 웅장한 기를 모아 사자후를 토하기 시작했다. 주장자를 들었다 내리찍으며, 법의 문을 연 스님의 법문(法門)은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다.

모양 없는 마음자리가 백천 세계의 바탕
一心으로 마음 모으면 못이룰 일이 없어

“산승은 지금,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둘 아닌 경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소리와 소리 듣는 자가 둘 아닌 경지를 보이려야 보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장자를 든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알아차릴 것 같으면 오늘 법문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것은 경전을 잘 알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부사의(不思議) 도리, 생각이 미치지 않는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스님은 귀중한 법을 전하기 위해 가능한 쉽게 도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방편을 사용하며 설법을 전개했다.

“이 마음을 잘 활용하면 부처와 성인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살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착했던 한 야구 선수가 사업을 하고 여자를 탐하다 빚을 내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별짓을 다하다가 결국 한 가족을 살해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성인도 되고 악인도 되는 것입니다.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아서 삼천대천 세계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하물며 허망한 몸뚱이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스님은 사람들이 불타는 집에서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다.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생대(生大)입니다. 가는 곳을 모르니, 이것이 사대(死大)입니다. ‘생사의 큰 일’(生死大事)을 모르면 참 행복을 모릅니다. 고통 없는 곳, 영원한 행복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 마음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란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보고 듣는 그 자리를 여의지 않으니, 이 마음을 바로 깨쳐야 합니다.”

스님은 지금 법문을 듣는 그 자리, 영원불멸한 그 자리인 ‘한 물건(一物)’을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람 사람마다 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이 하늘과 땅, 허공을 집어삼켰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능히 ‘작고 미세한 곳’(隣虛)에 들어가기도 하고 능히 커서 법계를 널리 에워싸기도 합니다. 천겁을 지나도 옛이 아니고 만세에 뻗쳐있어도 항상 지금 이 마음자리입니다.”

스님은 이 (물건 아닌) 물건은 “항상 움직이고 쓰는 가운데 존재하지만 움직이고 쓰면서 거두어 가질 수 없는 것이다”고 했다. 그래서 한 물건은 마음 · 부처 · 생각 · 남자 · 여자 · 귀신도 아니요, 그것 아님도 아닌 것이라 했다. 그렇다면 이 무슨 물건인가? 스님은 또 부연설명을 했다.

“모양이 없어서 보기 힘들어 찾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모양 없는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뭇 묘함을 다 갖춘 이 마음자리가 백천 세계의 바탕이 됩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면 아무 것도 못 느낍니다. 이 하나가 깨어날 때 모든 게 깨어납니다. 이 한 생각 안에 천지 삼라만상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 마음을 깨달으면 거기엔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천지만물과 둘 아닌 만법의 왕, 마음자리를 찾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스님의 법문은 자상하면서도 힘이 있다. 고비고비마다 작은 체구에서 터져 나오는 우렁찬 목소리가 그야말로 사자의 울음소리 같다.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의 이치를 몰라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아갑니다. 무한공덕과 무한지혜를 갖춘 이 자리를 놔두고서 죄만 짓고 삽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을 알면 다 이뤄집니다. 얼마 전에 <시크릿>이란 책이 나와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 책은 일심으로 마음을 모으면 성공한다는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님은 70세의 고령에 천은사 삼일암 선방에서 처음 참선해서 깨달은 호은(湖隱) 스님의 일화를 들려주며, 남녀노소 누구나 발심하면 돈오가 가능하다고 했다. 호은 스님의 사연은 이러하다. 어느 날, 혜암 스님이 혜월 스님이 한 수좌와 주고받은 문답과 똑같은 질문을 성월 조실스님께 드렸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騎牛覓牛)’는데, 그것이 무슨 도리입니까?”

성월 스님이 대답했다.

“그대가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니, 그 찾는 소는 그만두고 탄 소나 이리 데리고 오너라.”

혜암 스님은 말이 막혀 어리둥절하여 앉아있었고, 여러 수좌들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그런데, 그때 참선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늦게 공부를 시작한 호은 스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춤을 덩실덩실 추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대중스님들은 몰라도 나 혼자만은 알았습니다. 탄 소를 잡아 대령하였으니 눈이 있거든 똑바로 보시오.”

현산 스님은 이와 같이 법문 내내 선(禪)을 강조하면서도, 지혜와 자비를 갖춘 보현행의 중요성을 설하기도 했다.

“악인도 다 해탈케 해주는 대비심, 골고루 내 몸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부처입니다. 번뇌를 끊지 않고도 마음자리가 드러나는 법문이 깨달음의 세계를 직설(直說)한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입니다. 이 마음을 보현행원을 실천하듯이 잘 쓰면, 상상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스님은 ‘보현행원품’ 게송을 읊고 난 후, “어서 빨리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마음공부를 하시기 바란다”며 설법을 마쳤다.

다음은 법회가 끝난 후, 운하당에서 가진 스님과의 문답이다.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는 의식이 작동하지 않는데,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잠도 꿈도 없을 때 일각주인공(一覺主人公)은 어디서 안신입명(安身入命) 하는고? 이 공안에 대답할 수 있어야만 아뢰야식이 깨지는 거야. 중생심의 근본인 제8 아뢰야식이 녹아 본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필자가 다시 질문했다.

“그렇다면, 깊은 잠을 자면서도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잠을 잘 때 코를 골면서도 코고는 소리가 들려. (각성(覺性)은) 항상 깨어 있어. 오매일여(寤寐一如)가 되면 성품이 드러나 저절로 계를 지키게 되지. 성품은 계가 본래 구족된 자리거든.”

“조사스님이 말한 좌선의 참뜻은 뭘까요?”

“‘좌(坐)’는 일체경계에서 상(相)을 여의는 것이지. ‘선(禪)’은 성품자리가 항상 뚜렷한 것이고.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면 일체현상에 무심하되 늘 깨어있게 되지.”

스님은 인터뷰가 끝난 후, 30년 만에 물어물어 찾아온 한 보살을 만났다. 박정숙(64·서초구 신원동)씨는 30년 전, 봉암사에서 산후 합병증으로 사경을 헤매던 자신을 약초를 먹여 살려준 현산 스님을 어렵게 찾은 것이다. 선(禪)의 달인(達人)은 지혜와 자비를 갖추어 마침내 저자거리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승(一乘)보살임을 확인한 감동 깊은 자리였다.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현산 스님은
1943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난 스님은 1961년
실)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2년 고암 스님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사미
다닌 스님은 45년간 산철결제까지 합해서 5
그동안 모시고 산 선지식은 경봉·동산·전강
고승들이다. 35세(1978년)부터 조계총림 송광
선원의 입승, 선덕, 한주와 전국선원수좌회
2002년부터 화엄사 선등선원장을 맡아 후학

동일한의원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50-14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
코 한방 (韓方)
코막힘, 비염, 축농증
코막힘 한방(韓方)으로 해결
코막힘,비염,축농증 답답하시죠?
이제 다년간의 연구와 연구성과를 거둔 죽전네거리 동일한의원에서 한방(韓方)으로 치료해 보세요!!
코가 정말 시원합니다
한의학박사 보건학박사 원장 노 동 일
전)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매주 수요일 오후 휴진)
동일한의원
50M
죽전네거리
연지카바레
어촌마을
구병원
성서IC
☎ 053)552



봄바람 살랑~ 꽃잔치 구경가요

4월 전국은 봄꽃 축제중

삼월 삼짓날 답청(踏靑)에서 유래된 꽃놀이(遊賞). 새봄을 맞은 상춘객 나들이로 전국 방방곡곡이 북적이는 때다. 매화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에 이어 벚꽃도 한창이다. 4월 1일 막이 오른 진해군항제를 비롯해 전국 산야에 만발한 봄꽃만큼이나 지역 꽃축제도 풍성하다. 봄꽃과 각종 이벤트가 기다리는 축제현장으로 달려가 보자.

경상지역에서는 진해군항제

봄꽃 축제라면 단연 진해 벚꽃놀이. 올해로 제46회를 맞은 진해군항제는 4월 1일 시작돼 13일까지 열린다. 35만여 그루의 벚꽃이 만개하는 군항제 기간 중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기지내 최신예 함정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진해 군항제는 1952년 4월 13일 진해시 북원로터리에 국내 최초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진 것을 기념해 추모제를 거행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4월 12일부터는 경남 거제 대금산(해발 437m) 중턱 진달래 군락지에서 진달래 축제가 열린다. 같은 날 경남 함양에서 열리는 함양 벚꽃축제를 비롯해 등 경상도 일원에서도 다양한 봄꽃 축제가 준비됐다. 경북에서는 의성·봉화 산수유, 영덕 복사꽃, 경주 벚꽃, 소백산 철쭉 등도 유명하다.

전라지역에서는 함평 세계나비 곤충 엑스포

함평 들판에 가득한 유채꽃과 2500여 마리 나비가 어우러진 2008 세계나비 · 곤충 엑스포가 4월 18일 시작된다. 6월 1일까지 꽃과 나비를 주제로 열리는 엑스포에는 나비생태관, 곤충표본전시관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나비 날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3월 하순부터 섬진강변 벚꽃길과 영암 100리 벚꽃길, 보성 대원사, 장성 백양사, 순천 송광사 등에서도 벚꽃이 한창이다. 한편 4월 10일경 만개 예정인 유채꽃은 완도 청산도, 명사십리, 나주 영산포, 고흥만 방조제 등이 유명하다.

충청지역에서는 도원문화제

4월 중순이면 중부 내륙에는 복사꽃과 배꽃이 만개한다. 봄꽃 향기 가득 담은 제24회 도원문화제가 충남 연기군에서 4월 18~19일 양일간 마련된다. 본 행사에 앞선 4월 15일 비암사에서는 백제대제가 거행되고, 18일에는 복사꽃 아가씨 선발대회 등이, 19일에는 군민화합 건강걷기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도원문화제와 왕의 물 축제가 통합 개최돼 상춘객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4월 5일부터는 계룡산 동학사 일원에서 '2008 계룡산 봄꽃 문화 예술제'가 15일까지 이어진다.

#서울지역에서는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

4월 16~20일 '2008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가 열린다. 해마다 봄이면 국회의사당 주변 1.7㎞ 구간 및 서강대교 남단 야외무대 등 여의도 일대 1500여 그루 벚꽃나무가 연출하는 꽃터널은 서울의 명소가 된지 오래다. 봄꽃만큼이나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국내 톱가수들이 출연하는 빅콘서트와 바디플라워 패션쇼, 관현악 공연, 국악 공연 등과 벨로루시 세계 댄스 등 세계 공연예술 페스티벌이 함께 펼쳐진다. 2100여 그루 벚꽃나무가 가득한 남산 순환로에서도 4월 9~16일 '남산 벚꽃축제'가 '벚꽃모양 페이스 페인팅' '벚꽃나무에 소원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상춘객을 기다린다. 이보다 앞선 4월 4일에는 광장동 워커힐, 5일에는 자양동 어린이대공원에서 벚꽃축제가 시작됐다. 이밖에도 동대문구, 동작구, 금천구 등 서울의 자치구들마다 벚꽃축제를 계획중이다. 수원에서는 4월 11~17일 경기도청 주변에서 '2008 벚꽃축제'가 열린다. 벚꽃나무 200여 그루와 함께 각종 예술공연과 체험 및 전시행사 등이 예정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이번주 건강칼럼은 쉽니다>

강추! 봄꽃축제

축제명	기간	지역	문의
워커힐벚꽃축제	4월 4일~5월 12일	서울 광장동	(02)455-5000
한강여의도 봄꽃축제	4월 11~25일	한강 일원	(02)2670-3142
동대문 봄꽃축제	4월 11~12일	동대문 일원	(02)2127-4711
동작구 부흥길 벚꽃축제	4월 11~15일	동작구 부흥길	(02)534-0030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4월 12~13일	인천대공원	(032)440-4942
경기도청 벚꽃축제	4월 11~17일	경기도청	(031) 120
진해군항제	4월 1일~5월 12일	진해시	(055)546-4310
함양 벚꽃축제	4월 12일	함양 백전면	(055)960-5501
낙동강 유채축제	4월 18~22일	남지읍 유채단지	(055)530-2522
통도사 서운암 들꽃축제	4월 25~30일	통도사 서운암	(055)382-7094





오늘의 禪語

⑭ 본래면목=본지풍광

나의 '본 모습'은 무엇인고?

'본래면목(本來面目)'이 무슨 뜻인지 그 개념을 우리말로 표현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려면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설사 언어로 표현한다고 해도 흡족하지 못합니다. 본래면목이라는 말도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본래면목에 대하여 갖가지 언어적 수사를 동원하여 근사치에 가깝도록 표출해 보고자 합니다만, 그 표현에서 과연 독자들이 본래면목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아심이 듭니다. 이 연재의 제목이 '오늘의 선어'이므로 어려워도 어떻게든 99%에 가깝도록 표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禪에서는 '세속의 때 묻지 않는 청정한 마음'을 의미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 자신에 대한 근원적 성찰

'본래면목'이란 형태적으로는 '본 모습' 또는 '본 얼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본디 가지고 태어난 순수한 모습 혹은 조금도 화장을 하거나 꾸미지 않는 가식이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가 묻지 않은 순진무구한 모습이고,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은 자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철학적인 개념을 좀 넣어서 표현하면 '진실한 자기 자신의 모습' 또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에서 본래면목이란 사람마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 '심성(心性)'이나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 본성은 티 없이 깨끗한 것입니다. 조금도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청정한 마음입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사물을 보고 듣고 자각할 줄 아는 존재, 또는 '진여자성(眞如自性, 불변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본래면목이라는 말은 참으로 그 의미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열한 것들은 모두 겉모습이나 사전적인 의미를 재해석한 것이지만, 때론 그 의미가 전변(轉變)하여 "너의 진실한 모습은 무엇이냐?" "너의 참 모습은 무엇이냐?" 또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깨달은 것을 내 놓아 보아라"는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또 이 말은 "영원히 변치 않는 '나(我)'란 무엇인가?" "무엇이 선의 진리인가?" "무엇이 부처인가?" 하고 묻는 말과 동의어로서 '진실(진정)한 자기' '본래적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어 가운데 '본지풍광(本地風光, 본래의 모습)' 또는 '주인공(主人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본래면목'이라는 말에는 항상 그 앞에 '부모미생전'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즉 "부모(父母) 미생전(未生前)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고 하는데, 여기엔 상투적으로 "…무엇이냐?"는 물음표(?)가 따라 붙습니다.

'부모'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을 가리킵니다. '미생전(未生前)'은 '(아직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을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이라고 한다면 무슨 태생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뚱딴지같이 태생적인 것을 논할 까닭은 없습니다.

선에서 '부모미생전'이란 다름 아닌 '분별 이전' 또는 '근원' '본질' 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본래면목은 '본래 나의 모습'으로서 역시 근원적인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부모 미생전(未生前)'과 '본래면목'은 사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가 겹칠 때는 강조사 역할을 합니다.

본래면목은 화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화두를 참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은 '부모 미생전 본래면목'을 영혼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래면목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본래적인 나(我)'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에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영혼이라고 혼동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매우 죄송한 일이지만 아직 선의 안목이 열리지 못한 견해입니다. 선은 근본적으로 영혼을 탐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어는 항상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부모 미생전이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분별 이전' '번뇌 망상이 일어나기 이전' 즉 '근원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본래면목은 '진실한 나의 모습' 또는 '본래적 자기(我)'입니다. 결국 이 말은 똑같은 의미의 두 어휘가 결합된 말로서 근원적인 자기에 대한 강한 반문사입니다. '나(네)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 '나(네)의 실체는 무엇이냐?' 또는 '나(네)는 누구냐?'고 묻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묻는 것(自問)입니다. 자문과 반문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아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가리켜 '영혼이 맑다'고 표현합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은 얼굴만 보아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맑게 보입니다. 이때의 영혼도 어떤 실존하는 영혼을 말하기보다는 '정신이 맑다' '숭고하다' 또는 '마음이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예의를 차리지 못했을 때,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못했을 때 우리는 "면목(面目) 없습니다" "체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비록 상례적인 인사에 불과하지만 이 경우 면목이나 체면은 모두 같은 말로서 진정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신행게시판

● **송찬우 교수 '남악대승지관' 강의=** 중앙승가대 송찬우 교수의 연구실 '동현학림'에서는 '남악대승지관' 강좌를 마련한다. '남악대승지관'은 지자대사가 이 사상을 바탕으로 천태이론을 확립한 것으로, 천태학의 기반을 이루는 최초의 논서이자 수행지침서이다. 강좌는 4월14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당주동 세종빌딩 408호에서 열린다. (02)732-3038

●**미황사 '참사람의 향기'=**올해도 어김없이 해남 미황사가 '참 나를 찾아가는 7박8일간의 참선집중수행 2008 참사람의 향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4월에는 19~26일 열릴 예정이다. 20세 이상 65세 미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참사람의 향기'는 금강 일수 법인 스님이 교수사로 나서 참선 육언오후불식 수행문답 수행체계 법문 다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61)533-3521

●**봉선사 어린이 청소년 법회 회원 모집=**남양주 봉선사가 '우리 불교의 미래는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라는 기치 아래 어린이법회와 청소년법회 회원을 모집한다. 어린이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운하당에서, 청소년법회는 같은 시간 방적당에서 열린다. (031)527-1951

●**월정사 제4회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평창 월정사가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9시 30분까지 제4회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을 개최한다. 재가불자 30명을 대상으로 월정사를 비롯해 상원사 중대 사자암, 적멸보궁에서 수행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은 승가오칙(선 간경 염불 의식 가람수호)의 실참을 통한 심득수행(心得修行)으로 진행된다. (033)332-6664

●**제15회 육지장사 울림축제=**양주 육지장사가 4월 26일 오후 2시 육지장사 야외무대에서 제15회 육지장사 울림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울림축제에는 우담발화(월운), 도신 스님, 락밴드(타아거즈), 유네스코중국세계문화유산 전통오페라(경극), 삼보합창단 등이 출연한다.

●**구룡사 템플스테이=**원주 구룡사가 4월 26~27일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발우공양, 새벽예불, 범종치기, 다도 등 수행생활을 체험하고 치악산 산행, 불교유적지 답사, 연등 만들기, 108염주만들기, 도예, 한지공예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033)732-4800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일념으로 '염불삼매' 성취

⑭ 조선의 현씨 부인

영조 41년(1765) 목판본으로 간행된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은 정토수행의 중요성을 한문과 언해(諺解)로 병기하는 등 일반 대중에게 염불의 공덕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해인사판 <염불보권문>은 밀양에 사는 현(玄)씨 부인의 뜻을 받들어 간행한 것으로, 18세기에 살았던 한 여인의 염불수행과 함께 당시의 언어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명연 스님이 <염불보권문>에 기록한 현씨 부인의 일화를 요약하면 이러하다.

경상좌도 밀양에 성은 현씨요, 불명은 본원(本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기사년 12월 어느 날, 마침 가사 화주를 하는 스님이 시주를 청하므로, 홀연히 신심을 내어 보시를 하게 되었다. 그날 밤 삼경(11시~1시)에 스스로 자기 입에서 염불이 나와 일상의 업으로 삼게 되었다.

27년간 매일같이 염불 발원으로 극락왕생
막내 아들에 '염불보문권' 발행 당부 유언

추우나 더우나, 가고 오며, 낮과 밤이 길고 짧은지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큰 소리로 염불하였다. 하루 밤낮으로 3만 번씩 하여 36개월이 되는 신미년 12월 24일 삼경에도 염불은 이어졌다. 이 때 서쪽으로부터 오색의 상서로운 구름이 다가와 한가로이 날리면서 가까이 다가왔다. 악기소리가 들려오고 묘한 누각 가운데 세 송이의 꽃이 있었으며, 꽃 위에는 세 부처님이 앉아 계셨다.

현씨가 부처님을 바라보자,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네가 염불하기를 3년을 채우고 발원하여 부처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므로 앞에 나타나 너를 위해 말하노라. 스승을 정하여 참회하고 출가하여 입산하라. 너의 자손과 밭과 땅과 재물이 태산 같지만 모두 허망한 것이다."

현씨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받들어 행하여 계를 닦은 지 27년이 되었다. 그동안 무려 25번이나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들었다. 그는 하루 저녁에 서쪽을 향하여 예불하며 50배를 하고 항상 일념으로 염불했다.

현씨가 73세에, 목숨을 마칠 때 자손들을 모아 놓고 유언했다.

"나를 화장한 후에 <염불보권문>을 발행하여 일체 만인을 극락국토로 인도하여라. 나는 지금 부처님의 원력으로 마음이 즐거우니 돌아가련다."

그때 앞에 나타나신 아미타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 대중은 여러 경전과 불 · 조사의 말씀을 믿고 들어라. 무수한 방편을 설하셨느니라. 이러한 까닭에 상근기와 중근기는 정법(正法: 혹은 戒法)과 상법(像法: 계법과 유사함)이 견고하여 득도하지만, 하근기의 말법시대에는 여러 문이 열려 있거나 혹은 닫혀 있는 것이니라. 말법시대에 일어나야 할 가장 적당한 수행은 정토문이니 왕생을 구하여 염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니라."

이에 현씨가 특별히 막내아들인 각성에게 당부했다.

"너희들은 입산하여 불도를 위하여야 한다. 재물을 내어 판을 새겨 <염불보권문>을 발행하여 일체 노 · 소 · 남 · 여에게 아미타불을 염할 것을 권하여라. 매일 이른 아침에 서쪽을 향하여 예불 삼배씩을 한 후 40번씩 염불하는 자는 나의 국토 연꽃 가운데 모두가 태어날 것이니라."

각성은 어머니 현씨의 말씀을 듣고 받들어 봉행하여 <염불보권문>을 새로이 새겨 합천 해인사 장경각에 보관했다.

현씨 부인은 자나 깨나 일심불난(一心不亂)한 염불정진을 통해 시방불(十方佛)이 현전(現前)하는 염불삼매를 성취하고 극락왕생하였다. 이는 모든 염불행자들이 염원하는 수행의 경지이다. '부처란 상(相)이 없는 것'이지만, 허무가 아니란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법신(法身)은 무량공덕을 갖추었기에, 필요한 때는 부처의 상호를 우주에 가득 차게 나타내는 것이다.

보통 염불삼매에는 인(因)과 과(果)의 두 경계가 있다. 일심으로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는 관상(觀像)염불, 또는 법신의 실상을 관하는 실상염불(實相念佛), 부처의 명호를 외우는 행법 등을 인행(因行)의 염불삼매라고 한다. 이러한 인행의 염불삼매가 성숙되면 마음이 선정에 들어가서 시방불이 현전하거나 법신의 실상 즉, 진여불성에 계합하는데 이것을 과성(果成)의 염불삼매라 한다. 김성우 객원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다음 카페에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을 처보세요!
통합검색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검색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자연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방법대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제대로 살려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원주발아생식 2개월분 80,000원
원주참생식 2개월분 90,000원
원주흑선식 2개월분 90,000원
히말라야 석청 1kg 500,000원
원주장류 ▸원주청국장환(1kg): 25,000원 ▸원주청국장분말(1kg): 20,000원
무상사 소비자상담실 대리점 모집 (053)958-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 무상사)

발, 다리, 허리가 불편하십니까?
귀의 삼보하옵고
무자년 한 해도 불보살 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발원 합니다.
사부대중의 발로 인한 몸 건강을 생각,
발명 특허를 획득한 지압깔창을 보급합니다.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초극세사 · 실리콘 · 동 99% 삼위 일체
소재로 발냄새 제거, 무좀 예방!!
장인정신으로 수작업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만행화 대표 박해훈 합장

특허 10-0806337호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지압 · 동 깔창
초극세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15,000원
• 사이즈 : 230-280
▸본사 ·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100미터
▸문의 · 주문 : 02)733-5715 011-9000-5715
▸계좌 : 우리 178-08-109613 (예금주 : 박해훈)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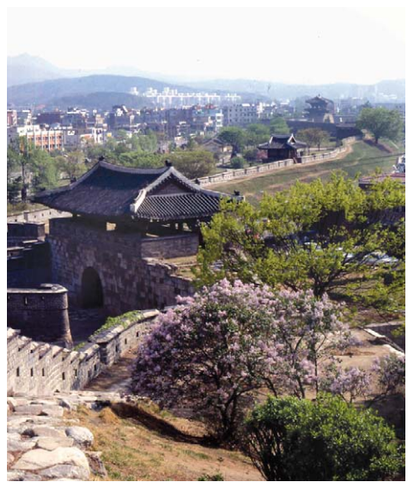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전라도 : 010-2311-0157
경상도 : 011-327-769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명분’ 보다 ‘실리’ 택한 댓가로 희생된 선각자



소현세자 – 소경원
소현세자 1612~1645 (34세)





수원성 화서문.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가져온 과학서적을 참고해서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성 건축에 기여했다(사진 위). 외로운 소경원에도 방문객이 있다.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목복균씨(왼쪽 끝)는 오랜 지인을 만나듯 반긴다.

소경원(昭慶園)은

조선 16대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의 원이다. 처음에는 소현묘라고 했으나 고종 때 소경원으로 격상되었다. 서삼릉 능역 안에 있다. 사적 제200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38-4 면적 21만7701㎡ (6만5970평)

소현세자는 왕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은 능이 아니라 원이다. 518년 역사를 가진 조선 왕조는 27대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 왕과 왕비가 있다. 왕, 왕비의 무덤은 능(陵)이다. 세자, 세자빈, 후궁의 무덤은 원(園)이다. 세력이 없는 후궁이나 어린 나이에 죽은 왕자나 공주, 폐서인이 된 자(연산군, 광해군, 폐비 윤씨 등)의 유택은 묘(墓)란 이름에 만족해야 한다. 조선 왕조 왕족의 무덤은 모두 119기이다. 그 중 능이 42기(북한 소재 2기), 원이 13기, 묘가 64기이다.

세자는 다음 대통을 보장받은 예비 대권주자이다. 그러나 아차 하는 순간에 대권을 날려버린 경우가 있다. 양녕대군, 소현세자, 사도세자 등이 그렇다. 소현세자는 예지를 갖춘 선각자였으나 권력 암투에 희생되었다. 그의 일생이 애석하여 추모의 정을 담아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으로 간다.

삼전도의 치욕은 봉림대군은 물론 소현세자에게 반드시 씻어야 할 원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볼모생활을 겪으면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의 현실인식은 완전히 갈렸다. 소현세자는 청과 조선이 처한 객관적 현실, 즉 국제관계의 역학을 인정했다. 청은 이미 동아시아를 호령하는 실력자였고 조선은 청이 주도하는 영향권 내에 편입돼 있었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려면 청과 맞서 이길 힘이 필요했다. 그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청과 대립하는 것은 수레를 막아선 사마귀 꼴, 즉 당랑거철(螳螂拒轍)이다.

청이 조선에 요구하는 것은 이전의 중국 왕조들이 요구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조공이란 이름의 형식적 주종 관계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조공 대상이 한족(漢族)이 세운 왕조든 만주족이 세운 왕조든 현실적으로 볼 때 오십보백보다. 중원을 청이 장악한 이상 조선은 그 질서 속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볼모생활을 통해 체득한 소현세자의 현실 인식이었다.

소현세자는 당시 심양에 숙소를 신축해 심양관이라 불렀다. 청나라는 심양관을 통해 조선에 대한 대부분의 현안을 처리하려 했다. 인조도 청나라와 직접 접촉을 꺼렸으므로 양국간 현안은 소현세자의 몫이었다. 소현세자는 양국의 접점 지역에서 양국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 역할을 한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심양관은 주중 조선대사관이며 소현세자는 주중대사였던 셈이다.

소현세자가 볼모로 가 있었던 기간은 장장 8년이었다.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중후반과 30대 전반을 불편한 타국에서 볼모생활로 보냈다. 소현세자는 인조 22년(1644) 2월, 34세의 나이에 고국 조선에 돌아왔다.

소현세자의 귀국 짐 보따리 속에는 많은 종류의 서양 과학서적과 지구본이 들어 있었다. 그는 볼모생활을 하면서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식도 갖게 되었다. 세상이 더 이상 성리학의 시대가 아님을 심양과 북경을 오가며 알게 되었다. 이때 소현세자가 가져온 과학서적이 훗날 수원성 축성 때 정약용으로 하여금 거중기를 만들게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소현세자는 조선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려는 포부를 지니고 있었다. 더 이상 청은 원수가 아니었다.



홍살문 앞에서 본 소경원 전경. 정자각은 불타고 흔적만 남아있다.

아버지 인조 청나라에 대한 공포로 의심과 냉대
학질 발병 후 갑작스런 죽음…독살 의혹 뒤따라

청은 원수의 나라였지만 주자학의 관점만 버린다면 청은 실리에 따라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상대적인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가슴 가득 포부를 안고 귀국한 소현세자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였다. 부왕 인조에게 있어서 소현세자는 자신을 대신해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생하다 돌아온 아들이 아니었다. 자신의 반청 노선에 반기를 든 정적이자 원수인 청의 회유에 넘어간 반역자일 뿐이었다.

더욱이 인조는 아들인 소현세자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것은 의심의 차원을 넘어 공포였다. 청나라가 소현세자를 입금으로 내세워 자신을 폐출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였다.

인조가 세자를 의심하는 것을 눈치 챈 일부 정치세력이 세자를 모함하고 나섰다. 인조의 후궁인 소용 조씨도 그 중 한 세력이었다. 그녀는 세자와 강빈이 인조를 내쫓고 즉위할 것이라고 참소했다. 세자에 대한 의심과 주위의 참소는 9년 만에 귀국한 세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인조는 심지어 환국한 세자에 대한 신하들의 하례조차도 막을 정도로 그를 냉대했다. 소현세자는 부왕의 이런 냉대에 상심했으나 그 원인을 분석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귀국한 지 두 달 만에 불귀의 객이 되었기 때문이다. 낯선 이역만리에서 만 8년간이나 꿋꿋하게 지낸 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이유는 없었다. 당연히 세자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뒤따랐다.

세자의 발병일은 인조 23년 4월 23일이었다. 병명은 학질이었다. 세자는 발병 3일 후인 4월 26일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인조실록>은 그의 시신 상태를 이렇게 적었다.

‘세자는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얼굴의 일곱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멱목(소렴 때 시체의 얼굴을 싸는 검은 헝겊)으로 얼굴 반쪽만 덮어 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돼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이는 소현세자가 독살당했다는 증거다. 이 기록은 당시 염습에 참여했던 진원군 이세완의 부인이 시신의 이상한 상태를 보고 나와 말한 것을 토대로 적은 것이다. 그녀는 인열왕후(소현세자의 어머니)의 서제(庶弟)였기 때문에 염습에 참여할 수 있었다. 소현세자가 독살당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를 죽인 이는 누굴까?

<인조실록>은 세자의 시신이 독살당한 사람 같았다는 사실을 ‘상(인조)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기록했지만 이는 신빙성이 낮다. 독살에 인조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는 한둘이 아니다. 그 하나가 소현세자를 치료한 의관 이형익에 대한 처리 문제다. 이형익은 인조의 후궁 소용 조씨의 어미 집을 왕래하던 의관으로 추한 소문이 많던 자였다. 세자가 이형익에게 침을 맞은 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나자 양사는 이형익을 처벌하라고 주청했다. “오한이 심하여 몸이 떨리는 증세도 판단하지 못하고 날마다 침만 놓았다”는 것이 탄핵 이유였다. 조선시대에 왕이나 세자가 죽으면 의관들은 특별한 잘못이 없다 해도 국문을 당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인조는 끝내 이형익을 비호하고 처벌하지 않았다.

이런 야사도 있다. 소현세자가 청에서 돌아와서 인조 앞에서 청나라에서 가져온 물건 늘어놓고 자랑하니 인조의 눈에 광기가 돌았다. 청태종이 하사한 벼루를 자랑하던 좌나에 인조는 그 벼루를 소현세자의 머리에 던졌다. 직격탄을 맞은 세자는 시름시름 앓았고, 약에다 독을 타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인조가 세자 독살에 관련돼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소현세자의 후사 문제다. 사망 당시 소현세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그 중 큰 아들 석철은 원손(元孫)이었으므로 당연히 그가 세손으로서 세자를 대신해 인조의 뒤를 이어야 했다. 그러나 인조는 종법을 어기고 원손 석철이 아닌 봉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그리고 소현세자의 세 아들을 제주도로 귀양 보내 그 중 두 아들이 풍토병으로 죽게 했다. 세자빈 강씨도 사약을 받고 죽었다.

소현세자의 꿈과 좌절은 단순히 한 세자의 꿈이 좌절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가 좌절된 것이었다. 소현세자가 아담 샬을 만나고 서구 세계에 눈을 뜬 것은 조선이 개국한 1876년보다 무려 232년이나 빠른 1644년의 일이다. 이때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처참했던 근대사의 아픔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에는 따뜻한 가정(假定)이 없다. 서늘한 교훈만 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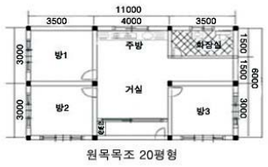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영원한 현실 / 주머니 속의 심경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新 보다 완성도를 높인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목지음
실천 미르아오

내 마음의 ‘안’과 ‘밖’을 소상히 깨달아 苦海를 벗어난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신을 한꺼번에 아우르는<새로운 밀레니엄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中에서_
이 책의 특징…
· 유식학의 현대적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摘示
· 의식개혁·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유식禪思想 釋明
· 자기발견·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편의성 제고
◈구입문의
–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 총 판 : (02)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055)353-6142
010-2356-6142

◆목재 골조 평당45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 180*180
다그라스목재도리 : 180*125
다그라스목재서까래 : 100*100
원목목재 상냥: 150*125
특허 브라켓
※ 황토흙벽돌,내희벽돌.판넬등 시공가능
원목목조 20평형

◆물로청소하는평상 1800×1030×350(mm) 가격 : 190,000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평상 (연결 이동 사용할수있으며 보관설치가 간단함)
지구산업
www.bangaro.com / 조립식평상
TEL (063)323-3010~1 / FAX (063)323-3012
계좌번호 :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 지구산업 곽영호
전품목부가세별도 전국대리점모집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1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사찰행사
천도재 · 49재 · 수륙재
점안식 행사에 바라무 · 나비무
살풀이 · 지전무 · 극락무
장엄하게 집전 해 드립니다
영남범음범패 무형문화재 제9호 전수자
010-4870-835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 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자격취득안내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불음법회포교사,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국악연주포교사,장묘관리포교사
◦법사분야 : 상담법사,교법사,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국악지도법사
◦대법사분야 : 교학사,종학사,종사,대사,선사,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대한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부산 영산재 제9호 작법무 교육도량
학인수시모집(범음,범패,바라,나비춤)
사찰행사,49재,천도재,점안식,구병시식
051)515-5222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이혼녀보호소
㊣ 오갈데 없는 이혼녀를
보호 해 드립니다
㊣ 복잡한 이혼문제
도와 드립니다
031)753-8484
011-354-8484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빙의천도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비룡정사 제행스님

제2회 금강경 및 참선법회 모집
• 후원구조 :
천일기도 및 연등접수
문의:055)972-3843
지리산 삼화사

적천수 · 사주명리학 개인지도
명리학의 경전,적천수 10간론
적천수 핵심원리적용,적중률 90%이상
(용신잡는법)(통변)실전위주 책임지도
대운 · 년운의 정확한 운세대입
수년을 공부해도 실전,통변을 못하는분
적천수를 (아는)자만이 (천기)를 안다
신생아작명,모든 운명을 감정해 드립니다
한국 적천수 명리교육원
042)255-1186
010-6730-1186

계룡산 손바닥 토종선인장
영하 20~30도 노지에서도
얼어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
성인병 예방에 신이 주신선물
(분양안내)
019-9765-8052
공주시 계룡면 관음기도도량 원각사
•효능:잇몸 염증, 당뇨, 퇴행성 관절염, 심한 가려움증,
아토피염, 쑥쓰림, 위염, 심한 변비등 탁월한 효과

大方廣佛華嚴經
대 방 광 불 화 엄 경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화엄경(80권)
사 교(7권)
법화경(7권)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강본으로 사용
011-545-7252

보살선방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방1, 주방, 욕실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양양 휴휴암 (영험도량)
신묘장구대다라니 매일 24시간 기도중
지혜관세음보살 바다에 6층높이 조성
3월에서 9월 고기떼 몰려옴.
지장재일,조상천도,용왕기도까지 해드립니다.
관음재일, 방생기도 | 강원도 양양
02)857-2205
010-6352-3307(성도일)
아침 7시출발(조계사앞), 7시 30분 출발(잠실)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기도스님<비구,비구니>
1. 새벽예불 없음
2. 출 · 퇴근(상주도 가능)
3. 월 2회 휴무
4. 스님되실분 별도 연락요망
도심포교당(서울노원구)
02)979-0108

삼척시 근덕 대진항
바다옆에 위치한
건물 약17여평 토굴
기도터에서 기도하실 분
무상으로 등기이전
해드립니다
010-3319-574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구근교(하양)
017-803-020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 지역
011-527-5908

기도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055)261-750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 ~ 65세)
▷울산
052)275-0829

공양주보살님 사무장 모십니다
▷용인사찰
031)335-2576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출가에 뜻이있는 (女)
행자모집
1. 신분이 확실한 자
2. 나이 제한 없음
3. 불교대학 과정(지원)
4. 소정의 교육이후 주지 발령
010-2599-6020
우리절 육지장사 여여 합장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대 이상
055)333-0705

주방일을 엄마같이
맡아주실 불자님을
찾습니다
청주지역 호스피스 요양원
011-9732-856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상주)
054)535-0005

부전스님 원합니다
(50대중반 비구승임)
010-7134-0043

부전자리 구합니다
청정 비구승(50대 초반)
착실하고 성실합니다
010-2606-1299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월·일·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비구 노전스님 모십니다
50세~60세전
삼분정근 확실히 하실분
(대작불사중)
010-4540-3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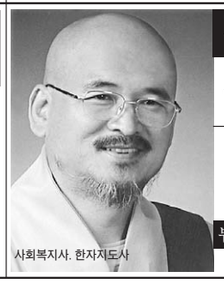
부전스님 모십니다
(염불 잘하시는 스님,세납 45세이하)
(위치:삼랑진)
055)353-6768
011-854-4960

조용한 암자에서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5)863-4143
011-392-688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
032)679-3490

역학공부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초급) 매 화요일 18: 30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주역, 풍수, 관상: 수요일 18:30 수강생 무료 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인터넷 동영상 강의 :사주+궁합+택일+작명(전과정 완성)=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인모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한국(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동서양식 레이키(靈氣)가 왜 화제인가?

동서양식 「레이키(靈氣 · Reiki)」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생활의 각 방면에 氣에너지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널리 보급돼 있지만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 전수해 드리는 동서양식 레이키는 여러가지의 레이키 기법을 융합한 것이어서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1.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 · 토,일요일) 교육비 55만원**

2.카루나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시간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3.지도자 소개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번역가 ·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온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 입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현대생활레이키)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 화 02)720-5719,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 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정토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본 정토불교법사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교의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안내
◆개강일자 : 2008년 5월 6일(화) 오후 3시 (목탁 지참)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교육내용
(1)송주편 (도량석, 조.석 종성)
(2)예경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3)헌공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지장, 관음, 신중청 등)
(4)제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5)시식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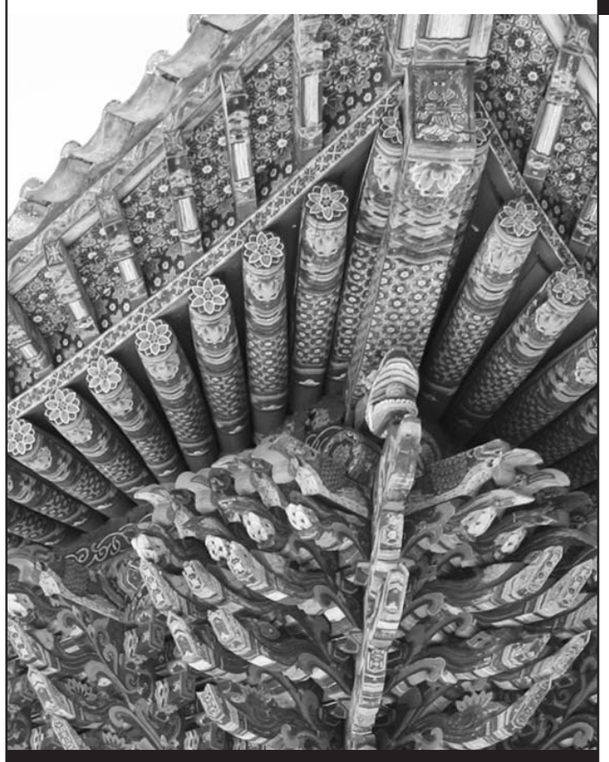
교육기간 단기 속성 3개월 과정
신청방법 전화접수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수강신청서. 사진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의식방법을 현장실습 위주로 집중 지도함.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정토불교법사대학
서울시 중랑구 망우 1동 403-15 (3F)
TEL 02)2208-6097,6098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삼랑진역 10분 거리
● 총평수 : 110,000㎡(3만3천평)
● 종교용지 1350평 + 밭 550평 + 임야
● 법당 : 15평, 요사채 : 20+20평
● 120년 역사(기도도량 최고)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세
● 양도가 : 4억원

무릉선원
● 위치 : 마산 철서 ● 대지평수 325평
● 건물 약30평(등기필)
● 법당 20평, 요사, 방2, 다락실1 기타 창고 및 화장실
● 주방 및 욕실 최신시설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 양도가 : 1억5천만원

사찰전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사찰부지 및 사찰, 임법당, 토굴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위치 : 부산	● 위치 : 부산
● 법당 : 21평	● 법당 : 50평	● 법당 : 24평
● 요사 : 20평	● 요사 : 100평	● 요사 : 50평
● 부지 : 190평	● 부지 : 135평	● 부지 : 290평
● 가액 : 7억 5천	● 가액 : 15억(조정가)	● 가액 : 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터 확보

● 위치 : 남해군 삼동면
● 총 평수 : 260평(실평 308평)
● 황토건물 : 31평
현재 창고 : 100평
● 가액 : 2억원(절충가능)
● 창고 별도 양도가능
011-844-4037

토 굴 안 내

● 위치: 경북 고령군 운수
● 평수 : 114평
● 남향, 마당 차 진입가
● 즉시 입주 가능
● 가액 : 2천9백50만원
011-9566-8811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구포
● 2층 건물 중 2층 50평
● 최요지. 법당, 방2, 주방1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591-5277

사 찰 전 세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가액 : 총 4억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2)338-056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자락 (동화사 근교)
● 대지 : 138평
법당 20평, 요사채 10평
● 삼존불 모셔져있음
● 가액 : 2억 6천만원

대구 시내, 근교 사찰터

● 가액 : 2억 5천 ~20억
● 평수, 금액 다양함
(사찰 양도하실 분 소문없이 해결 해 드립니다)
019-534-723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경기 경계 원도봉산
● 시지 약 300평, 별채 20평
신축건물 임법당 45평,
● 경내 7층석탑, 관음석불, 심야보일러
● 1호선 망월사 전철역에서 5분거리
● 지하수, 상수도 공기 청정하고 조용하며 산세 수려함
● 가액 : 3억 2천만원
016-337-9518

명당사찰터 및 별장터 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내↔ 부석사 중간(화천)
● 터세 : 명당산세 (전기, 도로포장, 토목공사 완료)
● 평수 : 5,300평 (아늑하고 경치가 좋음)
● 양도가 : 1억9천5백만원 (터 보실분만 연락)
016-573-2032

사찰(급)안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 대지 : 약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식당 겸)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3억 5천만원 (답사 후 절충가능)
011-9928-000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아산 신도시 앞) 아산KTX, 천안IC10분 거리 아파트 3만세대 입주예정
● 약 70평, 7층 건물중 2층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 75만원
시설비 : 문의 후 협의가능
041)565-9111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교방동 (서원곡 무학산 밑)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비구니, 보살, 법사님 적합
● 가액 : 건물 등기 및 시설비 4,500만원
010-9235-9318
055)353-4468

기도도량 안내

대둔산 도솔봉 약사용궁도량
● 총 560평, 대지 125평,
● 법당(조립식), 칠성(조립식), 산신(허공), 용궁, 약수, 연못 요사채, 거실, 주방, 방4, 화장실2, 다락1
● 굿당(조립식), 선낭(조립식)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2억5천만원(절충가)
041)753-8433
011-9211-4219
꼭 보실분만 연락바람

10년된 포교당 양도합니다

● 위치: 서울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시장주변
● 원불 350불
02)386-99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문현동
● 대지 200평, 건평80평, 양옥
● 법당 20평
● 아미타불 삼존불, 지장호신불 108불, 신장, 산신, 아미타후불탱화
● 요사채 60평 : 큰방1, 작은방5
● 사찰전자 비품 일절
● 보증금 천만원, 월70만원
● 정원, 잔디, 연못 설치
시설비 2천만원(답사 후 절충)
010-8877-79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종각, 요사채 40평
총 880평(대지 380평)
● 가액 : 4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전세도 가능
● 심야 전기 보일러 있음
011-875-351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청 앞
● 평수 : 40평
● 보증금 2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6269-6600

촌 집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 통도사 부근
● 대지 : 92평, 건평 : 25평
● 가액 : 5천5백만원
011-884-7767

포 교 당 안 내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5층 건물중 3층
● 평수 : 42평
● 법당 30평, 방2, 주방
● 보증금, 시설비 합 3700만원
02)574-833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 (구미시에서 5분거리) 인근에 신도시 개발중
● 평수 : 740평
● 큰법당, 요사채, 종무소
● 가액 : 4억 5천
● 실사용면적 1,000여평
011-9598-3399

사찰 전세 안내

● 위치: 충북 충주시 월악산 입구
● 대웅전 외 7채(대형사찰) 집기 일체 양도
● 계곡 접하고 산세 수려함
● 스님 다른 사찰 소임으로 저렴하게 양도합니다.
● 가액 : 1억
(사찰.net 첨부파일있음.1845호)
010-6399-531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화운사
● 총 대지 : 452평
● 대웅전 30평
● 부가로 사용할 수 있는
● 대지 및 저수지 : 500평
010-6654-160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천읍
● 평수 65평, 시설완벽
● 즉시입주 법회가능
● 종단 주지발령으로 급 안내
● 보증금 2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 절충
055)855-5950
018-622-98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상가 아파트 밀집 최요지
● 평수 : 45평
● 방2, 법당, 공양간, 시설완비
● 즉시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금 절충가
055)337-8600
011-834-854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금사동
● 평수 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약간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8891-7198

암자 월세 안내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 대지 : 200평
● 대웅전 15평, 요사채 20평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3000만원, 월11만원
010-9915-578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 평수 : 210평
● 법당 20평, 요사 30평 (실내는 아파트식)
● 과실수 골고루 있음 돌탑
● 심야전기, 에어컨 완비
● 가액 : 1억3천만원
011-491-234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도시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평수 : 61평
● 법당 시설 완벽(방4)
● 역학, 포교스님 최고위치
● 보증금 3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건물 지하주차장 있음
011-212-615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구리시내
● 4층 상가주택중 2층 단독 30평
● 법당, 상담실, 작은주방 삼존불
● 즉시법회가능
● 상담, 역학 겸하시는 스님 적합
● 보증금 500만원, 월55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8674-50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 대지 총776평 (대지 238평, 전 538평)
● 건물 : 요사채29평, 법당 22평, 창고 10평, 삼성각 2.5평
● 기도도량 유실수 100주 이상(2-3년생)
● 2006년 10월 등기 대문까지 차량진입 함창읍에서 2~3분
● 가액 : 1억 3천 8백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 대지 : 600평
● 법당 : 100평(1,2층)
● 요사채 : 50평
● 산신각 8평(1,2층), 창고 1 법당 시설완벽
● 가액 : 8억원
(상담 후 절충가능)
011-477-067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 평수 : 126평
● 부산에서 유동인구 많은 해운대
● 신중단 탱화, 지장탱화 삼존불 및 후불탱화
● 신중전, 지장전, 아미타전, 관음전
● 방, 주방, 사무실, 샤워실, 시설완비, 도시가스
● 보증금 1000만원, 월100만원
010-4152-559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 평수 : 20평
● 주방, 방2개, 다용도실 사용하기 편리함
● 전세 500만원/월26만원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 역학이나 포교원,사암사찰 처음하시는분에게 적합.
● 몸만오시면 됨 살림,시설일체 갖추어져 있음
011-9533-1601(보현)
02)821-6622

사 찰 안 내

●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형산 생활주거지는 포항입니다
● 대지 : 406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심야에어컨, 심야보일러 완벽하게 설치되어있음
● 가액 : 3억 2천만원
011-542-0982
054)762-738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망미전철역 2분거리 도로변 2층(단독)
● 법당, 주방(大), 방3, 욕실2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절충가능) 시설비 400만원
011-9342-979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백월산
● 토지 전 700평, 대지 250평, 종교용지 350평
● 건물 관음전 15평, 극락전 25평, 산신각 5평, 납골당 13평, 요사채 44평, 주지실 15평
● 합 : 토지 1300평, 건물 117평
● 가액 : 상담 후 절충
017-522-2713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감전동
● 평수 : 약 60평 5층 건물중 2층
● 법당 : 삼존불, 호신, 동불, 천불 (아미타불, 지장, 관세음)
● 방3, 에어컨, 앰프시설, 시설A급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즉시법회가능 주차시설완비
스님직 051)337-7999
011-567-2626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위치 : 서울산아래
● 부지 : 1,000평	● 대지 : 국유 300
● 법당 : 30평 목조	● 법당 : 45평기와
● 요사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10억	● 가액 : 9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 대지 : 507평, 법당 : 25평
● 주지실, 극락전 45평, 요사채 40평 기본시설 일체완비
● 가액 : 직접 답사 후 상담(전화상담 가능)
011-704-2858

(특급)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 교통 : 삼랑진IC 7분, 밀양 25분 거리(2차선 도로 포장)
● 부지 : 5200평(종교용지 1050평)
● 법당 : 대웅전(목조 5포9포 단청) 25평, 지장전 20평, 관음전, 삼성각
● 요사 : 설송당(목조) 18평, 자양당 43평, 요사 52평
● 환경 : 수려한 산속 지장기도도량, 좌청룡 우백호 명당
● 가액 : 시세 저렴 직거래 상담 후 결정
창건주 건강문제로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55)356-6887 (야)
010-3865-3415

사 찰 임 대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 곤지암 도척면(시내 10분거리)
● 부지: 대지 300평, 시유지100평 (주차장)
● 건축:요사채 35평 (요사채 일부 임법당 사용중)
● 삼존불 신중님 칠성님 산신탱화
● 엠프 집기 비품 일체 구비
● 산세경관 수려하고 교통편리
● 몸만 들어오셔서 절운영하실분 적합
● 전세 9천만원-1억 (절충가능)
011-9038-6531

(특)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신도시 부근
● 부지 : 680평(실제 1300평이상 활용) 납골당 가능
● 대웅전 20평, 요사채 2(100평, 20평), 창고 2동
● 도시 속 노송 우거진 풍치 수려한 절 두개의 신도시(차로 5분) 서울(차로 25분) 교통요지 포교와 신행의 최적지, 시설좋음
● 창건주 건강문제로 부득이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주택가격이 평당 500 ~ 1천만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내방 후 결정
010-5290-37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108평(건물 3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삼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약사관음탱화, 지장호신불 78불, 각 에어컨2대
● 스님 서재방1, 종무실1, 대중공양실1, 방사 2칸
● 후원 5평, 시설 모두 A급
● 현재 불교대학 운영중
● 보증금 및 시설비 5천만
010-4802-5288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마산,진주,고성,통영,함안30분거리
● 가액 : 3억(융자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3996-2035

최고의 시설, 최적의 환경

● 위치 : 경북 대구 바로 옆 경산시 중심가 교통의 중심가, 주차장 완비
● 5층(엘리베이터) 옥상사용
● 삼존불 탱화, 약사여래불 탱화, 신중탱화
● 평수 : 80평(법당 40평 마루)
● 방3개(주지실, 사무실, 주방) 후원
● 시설비 3000만원, 월70만원 급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10-2051-6705

불자정보 계속

데스크초대석

"맥 끊긴 '石經' 불교문화 새 장르로"

'금강경 석경전' 여는 김진희씨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도둑질'만 아니라면 늦게 배웠을지라도 흠뻑 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미친 듯이 미쳐보라'는 말도 있다. 어떤 일이건 미친 듯이 몰두하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표현은 과격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상 틀림없는 말임에 공감한다. 전각가 김진희씨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는 개신교의 가풍에서 자랐다. 서예를 공부했고 전각을 배워 작가가 됐지만 불교를 접해 본 적은 없다. 지천명의 나이가 이울어 가는 즈음에 눈을 떴다. 전각의 새로운 세계를 보았고 불교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새로 눈 뜬 기쁨, 거기에 석경(石經 경전을 새긴 돌판)이라는 새로운 길이 있었다.

미친 듯이 미쳐 버렸다. 새롭게 보인 그 길에 몸을 던지고 손이 부르트고 팔에 마비가 올 정도로 칼질을 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의 세상에서 자신이 새로 태어나고 있음을 알게 됐다. 버려야 했다. 지난 시간에 얽혀 온 모든 인연을 버려야 했다. 새 길을 본 사람은 주변을 정리하게 마련이다. 더 외롭고 더 가난하고 더 힘겨워질 수밖에 없는 길을 위해 자신의 살림살이를 단출하게 줄였다. 그리고 작업에 몰두했다. 사방 30㎝의 돌판에 200자씩의 경구를 새겨 넣으며 돌판과 칼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다. 전각가로서 석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고 그 성과물을 대중 앞에 처음으로 드러내는 김진희씨. 그는 근현대 우리나라 서예계의 거장 강암 송성용 선생과 하석 박원규 선생의 맥을 사사한 서예가다.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인 그는 전각에 몰두하다가 근래들어 석경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서예에서 전각, 전각에서 석경으로 작업의 영역을 넓혀 온 그가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생애 첫 개인전 '금강경 석경전'을 연다. 전시회 준비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진희 씨에게 석경의 세계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석경 조성의 전통은 끊어진 것으로 아는데, 석경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석경의 역사는 구례 화엄사에 전하는 '화엄석경'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온전한 형태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1만 4000여 석편으로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국보 1040호). 석경은 경전을 오래 보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등장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경전 그 자체를 오래 보관하자는 의미와 그 경전의 가르침을 오래 전하자는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지요. 앞의 경우가 시대가 혼란하여 경전 자체가 유실 파손될 염려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뒤의 경우는 숭고한 가르침을 신봉하는 신앙운동을 오래 지속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불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석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하게 모시자는 근원적인 원력을 담고 조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쇄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인지, 석경 조성이 붐을 일으킨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석경이라는 장르에 빠지고 보니 참으로 큰 의미를 갖는 작업임을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선생님의 석경 작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예술적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장르로 석경을 부각시켰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각의 측관(側款)에 주목함으로써 석경의 새로운 형태를 창안할 수 있었습니다. 측관이란 인장을 새긴 전각 작품의 옆면에 전각의 내용을 풀이 해 둔 글귀를 말합니다. 문인화에서의 화제(畵題) 같은 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측관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측관은 바탕 글씨 없이 바로 칼로 새겨 넣거든요. 일도일각(一刀一刻)입니다. 그러다 보니 글씨가 매우 힘이 있고 칼맛이 살아나고 돌과 금속의 기운이 합일되는 멋을 드러냅니다. 이 기법을 석경에 적용해 보니 아주 새로운 형태의 작품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측관의 새김법을 이용한 석경이 새로운 장르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또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도 신라 이후 단절된 석경이라는 경전 조성 형식이 전각 예술과 만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 작업이 새로운 시작이라면 누군가 저를 이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석경의 분야를 넓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종교문화는 과거의 정형화된 관습을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예와 전각의 경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석경 조성의 경우 불교문화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영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저는 석경이라는 분야가 새로운 불교문화 콘텐츠로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석경 작업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특별하다면 아주 특별하고 아니라면 그저 그런 계기였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느 스님께서 화엄석경 이야기를 들려 주셨는데 웬지 마음이 끌리더군요. 그래서 한 번 해보자하는 마음으로, 별 기대 없이 돌판을 구해 글씨를 새겨 봤는데 그간 내가 찾던 그 무엇을 만난 듯 한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작업보다 재미가 있었어요. 작업을 하는 동안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동안 서예를 배우고 전각을 한 모든 것이 석경 작업을 위한 준비단계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스스로 '내가 신라시대 화엄사에 석경을 조성한 석공 중의 한 사람이었거나 전란 때 화엄사 석경을 파손한 침략군의 병사였을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석경과 두터운 인연을 지었을 것이란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의 인연을 통해 새로운 세상 즉 미래세를 위한 공덕을 쌓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라해야 할 '확신'이 생기면서 일이 더 즐겁고 신났습니다. 가난해도 즐겁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미친 것'이라고 칭찬(?) 하더군요.

-그렇게 신나는 마음으로 어떤 경전을 조성하셨는지요?

처음에는 <반야심경>을 했고 그 다음엔 <금강경> 그리고 지금은 <법화경>을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은 380여장의 분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올 연말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화엄경(80화엄경본)>을 3000장 가량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데 지금처럼 1주일에 5판을 새긴다는 전제로 계산해 보니 15년이 걸리더군요. 그런데 <화엄경>을 15년간 붙들고 있는 동안, 저의 석경 작업을 이어갈 사람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연이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작업이 비록 돈은 안 돼도 즐겁고 의미 있는 것이니 누군가 제 길을 뒤로 잇는 역할을 해 주길 바랍니다. <화엄경>을 다 하고 나면 <신수대장경>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석경판에 칼질을 하다가 금생의 인연을 마감하더라도 힘닿는 순간까지 일을 놓고 싶지 않아요.

-이번 전시회가 첫 개인전이라는데…

그간 그룹전에 동참한 것 말고는 전시회를 한 적이 없어요. 지인의 권유를 못 이겨 개인전을 준비했지만, 혼자 만족해 온 석경의 세계를 세상에 드러내려니 걱정이 앞섭니다. <금강경> 석경과 더불어 서예작품, 사경작품, 전각, 석각 등 다양한 작품을 내놓게 됩니다. 아무래도 석경 작품이 처음 전시장에 나오는 것이라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전각 작품에서도 독특한 시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각 작품은 대체로 규격이 작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관찰이 아니면 제대로 감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판화 기법을 이용해 20배 크기로 확대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해 보았는데, 의외로 확대한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로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의도된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난 새로운 형식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맛을 나누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작업에 어려움은 없는지요.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현재의 작업장이 산업공단으로 수용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입니다. 돌을 사다놓고 작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완성된 석경이 좋은 인연을 따라 성스러운 곳에 모셔지길 바랍니다. 석경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법신(法身)이니까요.

글=임연태 부국장, 사진=박재완 기자

서예·전각서 석경으로 작업영역 확대
4월 15~21일 생애 첫 '석경展' 개최







'금강경 석경전'을 여는 김진희씨는 전각자품의 옆면에 새겨진 측관(위 사진)에서 석경 조성의 힌트를 얻었다. 오른쪽은 김씨의 전각 작품.

불자정보 674호

TEL 02) 2004-8215
732-1522(直)
FAX 02) 737-0696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평수 790평
  법당 20평
- 요사채 방 4개, 큰 창고
- 비구니 스님 기도처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2억

010-3138-4897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포교의 최적지)
- 6층 건물중 4, 6층. 각 70평, 총 140평
- 법당, 종무실, 방2, 공양간 최신시설완비
  즉시 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160만원
  시설비 : 꼭 하실분 절충
- 스님 사정상 급 안내
  (삼존불 및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미륵불, 관음지장원불)

010-2774-1250
031)653-0355

포교당안내
- 위치 : 창원시 중앙동
- 평수 : 법당 15평(실사용 평수)
- 방, 주방
- 지장보살 목불, 천수천안,
  산신, 나한존자
- 보증금 2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차후 결정

010-5898-0408
055)266-5847

명당 암자터 별장지 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 영동역에서 3분거리, 버스 도로접
- 앞에는 금생수가 흐르고
  복바위가 둘러싸여있는 복터
- 평당 5만원 : 1100평
  평당 15만원(대지),
  200평, 300평, 500평

010-3545-9992
043)732-2756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강남 논현동
  (7호선) 2번출구. 평수 : 30평
- 2층 법당, 영가단, 거실,
  주지실, 공양간, 세면실
- 보증금 2천만원, 월1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꼭 필요하신분 절충가능)

011-506-4661
011-545-506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요사채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전세 6000만원(양도 및 월세가능)
  사찰 규모 완벽함, 시설비 절충
  스님 해외 공부로 인하여 급 안내함

055)674-5978
011-9393-232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양산시
  (부산에서 20분 거리)
- 총 평수 : 54평
- 법당, 공양실, 방3개
  부처님, 탱화
- 시설비 없음
  보증금 2천만원, 월45만원

010-2599-6020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 1,206㎡(약366평)
- 임야 : 130㎡(약40평)
- 요사 : 198.24㎡(약60평)
- 대웅전 : 109.44㎡(약33평)
- 삼성각 : 30㎡(약9평)
- 실사용평수 : 약 600평
- 7층석탑, 정남향, 산세수려
- 가액 : 답사 후 협의요

011-9143-0098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방2, 상담실, 주방
  최고급 시설
- 금 부처님, 목불 좌대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1-9725-3196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중심지 사찰
- 대지 : 230평
  법당 25평, 요사 50평
- 주차시설완비
- 가액 : 7억원

- 위치 : 부산중심지 산밑
- 대지 : 80평, 법당 20평(슬라브)
  요사 40평(슬라브)
- 가액 : 2억6천

018-554-6198

토굴안내
- 위치 : 마산 진주 사이
- 평수 : 410평
  임법당1채, 요사채2동
- 비구니스님 토굴로써 적합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1억 5천(절충가능)

011-9554-5674

불기 2552년(2008년) 무자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특집광고 접수 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불법홍포를 위해 정진하시는 대덕 큰스님 이하 사부대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현대불교신문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 주시고, 물심양면 도움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 향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봉축 특집 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함께하는 축하광고 지면**을 마련하였사오니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밝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정진의 자세로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 래

- 제 목 : 2008년 봉축 특집 축하광고
- 내 용 : 축하말씀, 단체 및 사찰명, 임원진, 사진, 주소, 연락처 등
- 크 기 : 크기에 따라 선택 가능
- 마감일 : 2008년 4월 28일(월요일)
-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전화 02)2004-8213,8214,8215,8219(直) 팩스 02)737-0696
  이메일 onlymaum@paran.com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고 크기별 샘플 보내드립니다.

현 대 불 교 신 문 사

봄물 머금은 동백 붉은 꽃망울 '활짝'

사찰생태연구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95) 강진 만덕산 백련사

바닷바람이 닿는 남도의 사찰이면 어딜 가나 크고 작은 동백숲을 만날 수 있다. 그 가운데,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고창 선운산 선운사 동백숲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걸음은 바다를 건너온 봄이 동백으로 만개한 강진 만덕산 백련사를 찾았다.

백련사는 신라 하대 선문구산이 열리던 9세기 말에 무염 선사에 의해 '만덕사(萬德寺)'라는 이름으로 초창되었다. 그 후, 고려 무신정권 때 원묘 국사(圓妙國師) 요세(了世)가 진보적인 신앙결사체였던 백련사(白蓮社)를 이 절에 설치하면서 지금의 백련사라는 이름을 새로 갖게 되었다. 백련사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들면 길 왼쪽으로는 수령 20년 안팎의 편백숲이 울울창창하고 오른 쪽으로는 네모난 섬을 띄운 넓은 연못이 자리하고 있다. 훤한 대낮에도 고라니가 내려와 물을 마시고 가는 연못 주위로 사방오리나무들이 이제 막 꽃눈을 틔우기 시작했다.

사방오리나무는 토사유출이 심한 경사지에 리기다소나무와 함께 사방(砂防)용으로 많이 심었던 나무이다. 일본 원산으로, 생육속도가 빠르고 척박한 토양에도 잘 자라지만, 요즘은 즐겨 심지 않는다. 수꽃은 이삭 형태로 늘어지고, 암꽃은 수꽃이삭 밑에 달린다. 몇 마리의 떼꿩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기척을 알고는 머뭇거리고 있다. 꿩은 일부다처의 새이지만, 이즈음에는 무리생활을 하기도 한다. 꿩은 천태 지자 대사 전설을 비롯해 치악산 상원사 전설 등 불교설화에 많이 등장하여 친근감을 준다. 예전에는 초파일을 며칠 앞두고 집 앞에 등간(燈竿)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꿩 깃을 끼워 장식했다는 기록이 있다.

봄이 일러서 여름철새들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백련사와 다산초당을 아우르는 만덕산 지역의 텃새는 박새류와 멧새류들이 많다. 동백숲에는 직박구리와 동박새가 세력을 양분하고 있다. 두 종류 모두 동백꽃 꿀을 좋아한다.

연못을 지나 주차장에 이르면 그 유명한 동백숲이 시작된다. 고창 선운사 동백도 유명하지만, 사람들이 백련사 동백을 더 좋아한다. 선운사 동백은 철망을 쳐서 접근을 거부하지만, 백련사 동백은 사람을 거부하지 않고, 속내를 다 드러내주기 때문일 것이다.

주차장에서 백련사까지 300여m, 동백숲 사이로 길이 나 있다. 면적은 약 3ha, 우리나라 최대의 군락지이다. 동백숲은 대웅보전 뒤쪽까지 넓게 자리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은 일반인 출입금지로 묶어두었다. 개체수는 약 1500그루로 추정된다. 나무 높이는 대략 5~6m, 지름은 20~30cm 안팎이다. 숙종조인 1681년에 세운 백련사 사적비에 언급된 내용으로 보아 수령은 약 200~300년 정도이다.

동백은 바닷바람을 좋아해서 동해남부와 남해안, 그리고 서해안이 가까운 지방에 자생한다. 우리나라 난대상록수 가운데 가장 돋보이고, 정서적으로 친근한 나무이다. 연한 회백색의 매끈한 줄기, 무성한 가지와 윤기 나는 푸른 잎, 빨간 꽃잎과 노란 꽃술로서 다른 나무와 차별된다. 동백에는 꿀이 많이 들어 있지만, 추운 겨울에 피기 때문에 수분을 도와줄 벌나비가 귀하다. 그래서 동박새와 직박구리들이 벌나비를 대신해서 수분을 도와준다.

동백숲 속에는 동백 말고도 차나무, 후박나무, 붉가시나무, 비자나무, 메밀잣밤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난대상록수와 푸조나무 같은 난대활엽수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임상에는 마삭줄과 보춘화(춘란) 등이 자라고 있다. 한때 칡이 무성하게 넓게 피복(被復)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걷혀진 상태이다.

만덕산은 예로부터 야생차가 많이 자생하여 '다산(茶山)'이라고 불렸으며, 산 너머 초당에서 유배를 산 정약용이 그 산 이름을 따서 호를 지었다. 동백숲에서 다산초당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차밭이 조성되어 있다.

백련사 전각들은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석단 위에 배치되어 있다. 하단에는 만경루 누각을 가운데 두고 범종각과 요사채가 자리하고, 중단에는 좁은 마당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요사채가 있으며, 상단에는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명부전과 응진전 등이 자리하고 있다. 원교 이광사의 명필편액이 걸린 대웅보전 석축은 마치 칠을 한 듯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인상적이다. 돌 속에 함유된 철분이 산화작용을 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조경수로는 키 큰 느티나무 한 그루와 만경루 앞 배롱나무 외에는 이렇다 할 것이 없다. 동백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일까…. 동백꽃이 흐드러질 때면 앞뜰에 심은 명자나무 한 그루가 시샘하여 꽃잎을 연다. 나말여초에 스님들이 중국을 드나들며 들여와 산중 절에 심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명자나무는 그래서 일명 '산당화(山當花)'라고도 한다. 꽃이 화사하여 완상용으로 좋다. 꺾꽂이나 포기 나누기를 해서 절에 생울로 심어도 좋다.

풀은 나무보다 계절에 섬세하고 민감하다. 풀이 나무보다 먼저 꽃을 피우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경내외에 꽃다지, 광대나물, 냉이, 산자고, 양지꽃, 별꽃, 개불알꽃, 제비꽃 등의 초본들이 저마다 형형색색의 꽃들을 피웠다. 절에서 만덕산으로 올라가는 산행길이 좌우 두 곳에 있다. 백련사-안부-깃대봉(정상)-등날-바람재-다산초당으로 이어진 산행로는 정상에서 바람재까지의 암릉을 빼고는 그야말로 호젓한 오솔길이다.

만덕산의 식생은 특기할 만한 특징은 없다. 산이 마을에 둘러싸여 있어서 오랜 동안 연료목을 대주느라 식생이 많이 훼손되고 교란됐다.

절 주변에는 동백숲 말고 다른나무, 사람주나무, 산가막살나무, 정금나무, 생강나무, 쪽동백나무 등 온대활엽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절 뒷편과 능선부에는 굴참나무가 우점한 가운데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등의 참나무를 비롯하여 서어나무, 단풍나무, 때죽나무, 쇠물푸레, 예덕나무, 털진달래, 사스레피나무, 옻나무, 이나무 등이 섞여서 혼효림을 이루고 있다. 만덕산은 남해안의 해양성 기후권에 들어 있지만, 난대수종들은 그리 다양하지 않다. 겨우 사스레피나마와 어린 후박나무들이 눈에 띌 뿐이다. 사스레피나무는 키가 3m 안팎인 작은 상록수이다. 여름보다 봄에 잎이 더 윤택해 보이는 것은 주위의 활엽수들이 아직 잎을 내지 않아서 햇볕을 마음껏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햇볕을 받아서 작고 앙증맞은 꽃들을 피운다. 같은 시기에 꽃을 피우는 동백과는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진 꽃이다.

부처님이 나신 인도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난대상록수로, 사찰 조경에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번식 방법은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여 즉시 과육을 제거한 후 저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거나 꺾꽂이로 증식한다. 깃대봉 정상에서 암릉 등날을 지나면 바람재에 이른다. 지나는 동안 양치식물인 구실사리가 그물처럼 바위절벽을 덮고 있다. 아직은 바람결이 차가워서 붉은빛을 띠고 있으나, 날이 좀 더 풀리면 파랗게 덮일 것이다.

바람재 못 미쳐서 하산길이 있는데, 울퉁불퉁하던 기반암들이 사라지고, 도타운 흙길이 나타난다. 이대군락지를 가로 지르는 길이 마치 터널처럼 나 있어서 별천지를 느끼게 한다. 조선시대에 강진에 수군병영이 있었다. 따라서 이대군락지는 화살을 제작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숲길을 내려오면 오솔길 네거리가 나온다. 왼쪽으로는 백련사, 오른쪽으로는 다산초당 가는 길이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내려온 것은 1801년의 일, 그 후 장장 18년을 고향땅을 밟지 못했다. 다산은 긴 유배생활 동안 다산초당에서 <목민심서>를 비롯한 수많은 저서를 남겼다.

당시 다산은 자신보다 아래인 혜장(惠藏) 선사를 벗 삼아 백련사를 오갔다. 절에서 다산초당까지는 오솔길 800m. 오솔길 주변으로는 가꾸지 않은 야생 차나무들이 사람 키만큼이나 웃자라서 덥수룩하다. 2004년 녹색기금을 지원 받아 강진군에서 이 오솔길을 생태탐방로로 지정하고 5ha에 황칠나무 등 여러 종의 나무들을 심었다.

다산은 실학자답게 숲에 관심이 많았다. 그의 저서 곳곳에 산림과 산림정책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만덕산 일대에는 선재(船材)에 쓰이는 질 좋은 소나무들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 초당 주변 산자락을 뒤덮고 있는 소나무들이 모두 그 후계 송들이다. 나라에서는 만덕산을 봉산(封山)으로 지정하여 수영(水營) 관아에 관리를 맡겼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리는 백련사에서 맡았던 모양이다. 다산의 시 <소나무 뽑아내는 스님(僧拔松行)>(이정탁 역)이라는 작품에 당시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산에 솔 기르기 그 얼마나 애썼던가 / 스님 상좌 할 것 없이 성심 성의 가꿨어라 / 땔나무 아끼느라 찬밥으로 끼니하고 / 골골마다 순찰 돌며 새벽종을 울리었네. / 고을 성안 초부들도 감히 얼씬이나 하였으랴 / 시골 농민 도끼야 얼씬이나 하였으랴.'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명자꽃, 꿩, 사스레피나무꽃, 동백꽃 무더기, 사방오리나무, 꽃다지.(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동백나무 1500여 그루로 이루어진 '동백숲' 유명
만덕산은 다량의 야생차 자생 '茶山'으로 불리기도

www.sungbul.co.kr 성 불 조 각 원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오직 자기 중심, 심봉처에 의지하고 돌아가라!

근심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문 스님, 저는 지난 제 삶의 기억 때문에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지난 기억만 떠올리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너무나도 잘못 살아온 것 같기만 합니다. 항상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괴로움이 잘 날이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근심 고통을 만날 때는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요?

답 탤런트가 영화를 하다가 영화가 막이 내리면 그뿐이듯이 인생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오직 자기 중심, 심봉처를 의지해라, 의지하고 돌아가라 합니다. 바람에 프로펠러가 돌아가듯 인생살이가 돌아가니까 가운데 중심, 그걸 쥐고선 바퀴가 돌아가듯이 심봉을 쥐고서, 심봉은 끄떡도 안 하고 힘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 힘을 바로 잡고서 인생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선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못나고 잘나고, 여자고 남자고, 낮고 높고, 잘살고 못살고 이걸 떠나서, 오직 내 심봉을 딱 쥐고서 그대로 흘러가듯이 돌아갑니다. 이 심봉을 의지한다면 바퀴가 이탈되지 않으니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만 그렇게, 심중을 굳히고 의지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하고 의지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의지하는 마음보다도 욕심 찬 마음, 탐심, 치심이 더 성하니 될 법이나 합니까. 또 바깥으로 간섭하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저기 똥 굴러가는 거를 봐도 저 똥이 어디로 굴러가느냐고 또 야단이에요. 허허 참 내! 아이, 어디로 굴러가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아, 새들도 뭐 먹을 거를 뿌려 주면요, 사람이 안 다니는 데부터 먹어요.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데는 좀 주춤하고 물러서 있다가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면 와서 다 먹어요. 그렇게 영묘한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리송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려도 아리송하시죠? 한 가질 보면 열 가질 안다고, 우리가 현재의 살림살이를 그렇게 하고 사시면서도 왜 아리송합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화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거를 느끼고 알고 하면서 왜 그게 아리송하냐 이겁니다. 그 생각 하나만 '아, 이렇구나! 이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탁 놓는다면 그냥 그냥 그대로입니다. 찰나입니다, 그냥!

부처님이 나를 깨치게 해서 올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여러분한테 행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빼앗아 가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업이 많아서 누가 빼앗아 가는 것도 없습니다. 빼앗아 갈 사이가 있어야죠. 그리고 갖다 줄 사이도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그대로 그냥 그냥 하는 대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보는 대로 날아가고, 하는 대로 날아가고, 듣는 대로 날아가고 도무지 내가 했다 내가 안 했다 할 수가 없게끔 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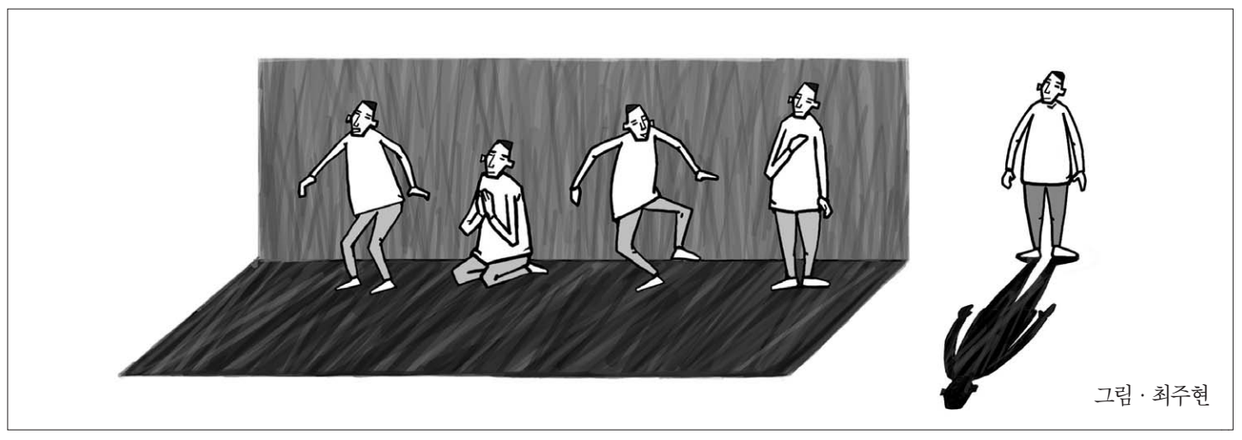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여러분께서 어려움이 크게 나한테 벌어졌다, 병고가 생겼다, 뭐 어두움이 다가왔다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오던 관습과 집착과 욕심에 의해서 착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묻지 마라. 미래도 생각지 마라. 오늘도 공했다. 공했으니까 찰나찰나 가 버리는 것에 착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에 착을 가지고선 온통 작년에는 어땠느니 올해는 어땠느니 하고 말입니다. 물론 얘기야 하시겠지만 함이 없이 얘기하고, 속에다가 착을 두고 욕심 두고 그럭하지 말고, 그대로 평범하게 '아, 작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 하고 말을 여여하게 그대로 해라 이겁니다. 꼭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그 생각입니다. 업도 붙을 자리가 없고 고도 붙을 자리가 없고, 병도 붙을 자리가 없고 아무것도 붙을 자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냥 이 심봉을 붙들고 의지하라고 그랬더니 그 생각으로 붙잡고는, 심봉은 주인공이라는 이름만 부르고 정작 붙드는 거는 그 고를 붙드는 거예요. '심봉을 의지하고선 바퀴는 돌아가라. 여여하게 돌아가라.' 그랬더니 심봉은 이름만 부르고, 고를 붙들고 그 주인공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놓고 불러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하고 부르는 그것도 말일 뿐이죠. 생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일거수일투족 거기다 의지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감사함도 거기 있고 즐거움도 거기 있고, 같이 불들고 울 수도 있고, 뭐 매사 거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 보배입니다, 보배!

그러니 이 심봉을 반야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주처라고도 할 수 있고, 자아라고도 할 수 있고 불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부처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름이 다양합니다. 다만 그 의지처만 의지하면서 오직 내가 함이 없이 하면서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한 찰나에 그냥 그대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여여하게 사는 겁니다. 여여한 삶의 보람을 갖는 겁니다.

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

문 스님의 자비 가득하신 행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해 보지도 못했으면서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하듯이 놓는 것 아니냐고 말들을 합니다. 스님, 놓아 버리는 것(방하착)과 포기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 여기 내 몸속에 천차만별로 모습을 해 가지고 내 식구들이 있는데 왜 한마음이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내 식구들이 지금 몸에 수십억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수십억 마리가 모습은 각각일지언정 생명은 같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몸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이 다 따라 줍니다. 그 묘한 법을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여왕벌 하나가 움직이면 벌들이 그냥 다 따라가듯 하고, 국방부장관이 명령하듯 합니다. 국방부장관의 명령이 한번 떨어졌다 하면 뭐, 그건 일사천리니까요.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문지기가 지키고 있으면서 탁탁 치는 겁니다. 그럼 법에 의해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듯이 이 몸뚱이의 모든 생명들은 내 한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다가 망하면 여러분은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는 신경을 쓰고 속이 상해서 술을 마시고 이러니까 속에 있는 생명체들도 다 타락을 하는 겁니다. 타락을 했으니 몸에 병이 안 날 수가 있나요? 병나서 고통스럽고 식구들도 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마음이 괴로우니 화합하지 못하고 단란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글쎄, 하늘이 무너져서 금방 굶어 죽게 된다 하더라도 왜 타락을 합니까? 그것도 주인공이 한 건데, 자기가 한 건데 말입니다. 자기가 안되게도 했지만 안되게 했으면 잘되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산 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겁을 내는 겁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보람을 느끼려면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주인공이 모든 것을 들이고 내는 것이니까요. 가난함도 가난치 않음도, 어떠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안 생기는 것도, 아픈 것도 안 아픈 것도 모든 일체를 거기서 하는 거니까 네놈이 알아서 하라 하고 놓으세요. 이열치열이 있죠, 왜? '네놈이 이 세상에 네 몸을 내놓고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으니 네놈이 해라.' 이거예요. '네놈이 이 몸뚱이도 만들어 놨으니까 네놈이 알아서 해!' 이렇게 그냥 놔 버려요. 모든 걸 그렇게 믿고 놔 버리세요. 포기하는 놔 버림이 아니라 믿고 놔 버리세요. 잘하고 못하고 죽고 사는 건 너한테 달렸으니 네가 해라 이거예요. '난, 몸뚱이는 너 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오관을 통해서 바깥의 좋고 그른 거를 다 들여 주기는 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문간의 문지기나 한가지예요. 보고 듣고 들여 주는 거요, 마음속에. 문지기가 들여 주면 또 안에서 문지기를 통해서 내주죠. 그러니 모두가 둘이 아니에요.

내 한생각에 오장이 꼬여서 틀어진 것도 펼 수 있고, 오장을 꼬이게 해서 피도 통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해 놓고 그냥 병원에 가고, 또 딴 데 가서 갖은 약을 다 써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게 해 가지고 이 몸뚱이를, 집을 못 쓰게 만들어 놔요? 진짜 목수한테 맡기지 않고 가(假) 목수한테 맡겨 놓으니까 저희들 좋은 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좋아야지 딴 사람에게 좋아서 되겠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은 자기 집을 자기가 지키고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 모든 점에서 빛나게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죠.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좌선시에 졸음이 오는데!

문 얼마 전에 스님의 가르침을 책을 통해 알게 되고 혼자서 그 가르침에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혼자 좌선을 하고 있으면 이런저런 느낌들도 나오고 그럴 때마다 속으로 한마음을 찾고 맡기고 맡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혼자 그렇게 앉아 있다 보면 종국에는 졸음이 옵니다. 그러면 전 대체로 그냥 자버립니다. 그럴 때 그 졸음을 관하면서 이겨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옛날에 선지식들께서 망상과 졸음, 그 두 가지를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관(觀)할 때는 반드시 졸지를 말아야 하고 망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망상과 졸음을 얘기한다면, 그 졸리고 망상이 난다는 걸림에 걸려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잔다 깬다, 잔다 자지 않는다'가 붙어서는 선(禪)에 즉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망상이다, 망상이 아니다'라는 게 붙으면 거기 직결되지 못합니다.

물론 초발심(初發心) 때는 자경문(自警文)도 읽고, 계율도 엄하게 지켜야 하고 또 망상도 물리치고 졸음도 물리쳐야 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살아나가는 관습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을

☞26면으로 계속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의 법문을..
황홀한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고
추억의 마음에 남기면서
잊지 못할 한순간 한순간을
작은 공간에 가득히 담아 소중히 담아
영원히 남기세요
풍경 영상과 함께..... 풍경 영상 기획 사업부

사찰홍보, 사찰행사, 자서전(다큐멘타리)
단체 사찰성지순례, 스님 강의,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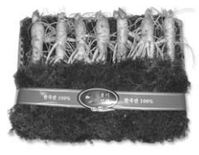
• 약력 : – 한국비디오 작가 연합회 정회원
– 한국디지털 비디오 영상 편집실 실장
– 방송 아카데미
– VJ특공대
– KDV 경남본부장



풍경영상기획 055)755-2695, 746-2778
※신문구독 신청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055)867-077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풍기 정품
홍삼 액기스 판매

100ml×60포(한달분)
20여종 제품 판매

● 판매처 054)634-3429
● 휴대폰 011-9373-3778
E-Mail : pay3579@hanmail.net
입금계좌 : 우체국 703884-02-048103(예금주 : 박영애)
여름철 풍기 인견옷, 인견이불, 몸배, 난방 판매
대리점 운영하실분
(물품대 백만원으로 생활고 보장)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만든 제품
스님,불자님께는
특혜드림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한국언론회관 KBS(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0.2평의 기적)출연 BBS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착불)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대로 진실한 실천궁행이 되어야

☞25면에서 계속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옛 조사들의 뒷발자취를 좇아가도 아니 되고, 못났든 잘났든 자기 발자취가 얼마만큼이나 컸나, 한 짝이 크고 한 짝이 작으니까 한 짝을 얼마나 키웠나 하는 것입니다.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불바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네 생활도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색(色)과 공(空)이 둘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처음부터 졸음을 금하면서 칼을 목에다 대고 하느니보다 모든 것이, 자는 것도 깨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몽땅 생활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로 인해서 세상이 벌어진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나로부터 벌어졌으니까 나로부터 알아야 하지 않나? '졸린다, 졸리지 않다, 졸음을 쫓아야겠다' 하는 것도 거기 놓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직결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이 '나' 라는 혹성의 본래자성불(本來自性佛)은 그대로 둘이 아니게 얽혀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감응이 되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 말을 또 해야 되겠군요. 말하자면 '부모에게 몸을 받는다' 하는 것은 집만 받은 겁니다. 자기 나오기 이전 영혼과 나오기 이전에 살 때에 악업 선업을 지은 그 인연들이 전부 내 몸속에 들어 있습니다. 몸속으로 한데 부합이 됩니다. 부합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중생들은 잘되고 잘못되고 그걸 모릅니다. 악업 짓고 선업 지은 그 인연에 따라서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게 그것만이 아주 입력이 돼서 현실로 착착 나옵니다. 현실로. 그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사람도 죽이게 하고, 강도질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고, 또는 선한 일도 하게 하고, 욕도 하게 하고, 화도 나게 하고, 병도 오게 하고, 애고도 오게 하고…,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를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녹일 수 있는가! 이 주인공에 놓는 것을 용광로라고도 하고, 불바퀴에 닿기만 하면 탄다고도 합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서 일어나는 대로 수없이 일어나는 마음에 왜 간섭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깐 일어나는 대로, 모든 거를 그 불바퀴에 놔라 이겁니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주인공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주인공에서 해결할 수 있다. 주인공에서 낫게 할 수 있다. 주인공에서 이끌어 줄 수 있다. 나 아닌 나가 있다고 깨닫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다.' 하고 진실하게 구하고 진실하게 내가 있다는 소식을 가져오게 하는 거지, 이것이 벌써 졸린다 하면 졸리지 않은 게 따라붙고 망상이다 하면 망상이 아닌 것이 따라붙죠.

이러니깐 수박을 놓고선 아무리 이리저리 굴려봐도 도무지 그 수박의 맛이 나오지 않고, 첫째로 과거의 씨가 현실의 씨가 됐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씨를 찾으려고 자꾸 과거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만 생기는 겁니다. 이 모두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한생각에 몰락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돈오다 점수다 할 것이 없이 말입니다. 그것도 이름일 뿐이지만.

여러분께서 스스로 나와 내가 상봉을 해야 그 때부터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번에 초발심에도 죽어야 하고, 둘째도 죽어야 하고, 셋째도 죽어야 한다. 내가 항상 그런 말을 하죠. 내 집에 전화부터 놔야 남의 집에서 전화도 오고 남의 집으로 전화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통하는 것이지 그럭하지 않는다면, 아니 내 집에 전화도 놓지 않고 전화올 때를 바라고 전화할 것을 원하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천년만년 있어도 안 됩니다.

일어나는 대로, 모든 것을 내 불바퀴에 놓아라!

내가 어두우면 불을 켜는 법이요, 또는 없어서 고생을 하면 일을 하는 법이요. 안 그렇습니까? 졸리면 자는 법이요, 배고프면 먹는 법이요, 똥이 마려우면, 소통이 돼야 하니까 똥을 누는 법이요. 거기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이 모두가. '망상이 다 망상이 아니다' 라는 게 붙으면 직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조들께서는 진실하게 일념으로 구했습니다. 진실한 일념, 진실한 일념으로 구해야 구해지고, 진실한 일념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나' 라는 자체에 있다는 그 소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등장하려면…

문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사후에 보게 되는 그 모든 빛들과 신들의 세계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투영된 환영에 불과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마음공부가 산 세상뿐 아니라 죽은 세상에서도 벗어나는 길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렇지만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한 차원 넘어선다면 좋을 텐데 마음의 중심을 놓쳐서 낮은 차원으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스님, 어떻게 마음을 내고 공부해 나가야 사후에 더 높은 차원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요?

답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들은 글귀로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말 자체가 모두 한데로 떨어질 것입니다. 나는 거짓을 안 합니다. 한마디라도 내가 실험하고 체험하지 않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알고 본다면 한마디도 한 게 없고, 한마디도 한 게 없는가 하면 한생각 한 것도 없고 한 행동 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터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불교나,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죠? 저 언덕을 넘어서 만납시다, 또는 요단강을 건너서 만납시다 이러죠? 저편 언덕 뒤에는 항상 밝음이 있고 항상 생수가 있으니 그걸 없다고는 못하죠. 끝없는 밝음이 있기 때문에 컴컴하다 밝다 이런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가 있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물질세계에 끄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 마디로 규정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큰 독사가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또 거위가 지렁이로 변해서 아주 커다랗게 돼 가지고 곤충이나 세균이 전부 나와서 그냥 늘비하게 있다고 합시다. 또 거기 들어가면 머릴 풀어 산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나 아닌 나' 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로인데도 뜨거워서 죽을 이유도 없고 뜨거울 이유도 없고, 간다 온다 할 까닭도 없고, 어딜 들어간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사이가 없고, 나온다 하더라도 나오는 사이가 없건만, 그대로 여여하게 뚫리고 그대로 여여하건만 몸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첫번에 벌써 내 이 몸속에 있는 그 의식들이 전부 모습을 그렇게 해 가지고 보이니 그 길을 못 간다는 얘기죠. 그게 딴 데서 와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몸뚱이가 사대로 흩어지니까 내 몸속에서 그 영혼들이 말입니다, 그 의식들이 그냥 쫙 앞을 가리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러한 것이 딱 보일 때 중심을 잡고서 '허, 너와 나와 둘이 아닌데….' 하고서 딱 한생각을 넘기면 그냥 다 보살로 화하고 부처로 화할 텐데, 이건 한생각 때문에 그냥 넘질 못하죠. 재차 말하지만 빠져 죽을까 봐 넘지 못하고, 배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타 죽을까 봐 그 불바퀴 속을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도리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이 마음, 내 마음 빼놓고는 부처를 이룰 수가 없고 내 마음 빼놓고는 도저히 앞뒤 뚫린 용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본래는 여여하고 열려 있는데 자기 생각이 딱 닫아 놓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미운 걸 보면 그렇게 밉고, 잘못하는 걸 보면 그렇게 보기 싫고, 또 부부지간도 그렇고 자식지간도 그렇고 일일이 그거를 미워해요, 잘못하는 걸 보면. 그러나 예쁜 일을 조금 할 때는 좋아서 그냥 발발발발 하고, 누가 좋은 말을 해 주면 좋고, 속이야 어떻게 됐든지 좋은 말을 야불야불해 주면 아주 좋아하고, 진실로 '너는 이렇다' 지적을 해 주면 그게 듣기 싫어서 왈칵 화가 나고, '너 두고 보자' 이러고 말입니다. 이러는 마음이 자기를 깎아먹게 돼요. 이 세상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있으니깐 모두 내 탓으로 돌리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공해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불(佛)은 뭐냐. 불바퀴는 왜 불바퀴라고 그랬느냐. 그냥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하기 때문에 불바퀴라고 했습니다. 불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의 근본, 즉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걸 불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본래 자성불은 있는 건데, 자기 자성불에서 모든 거를, 나고 드는 것이 전부 그 능력으로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성불은 믿지 않고 저기 계신 딴 부처님을 믿고선 '부처님! 날 좀 잘되게 해 주시오.' 하는데 그건 기복이지 공덕이 아니에요. 공덕이라는 건 무엇 때문에 공덕인가. 한마음으로 돌아가야 공덕이 아닌가. 나 아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지 않는 일이 없고, 내 아픔 아닌 것이 없고 내 몸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그게 공덕이 안 되겠나. 일체제불과 일체 보살, 역대 조사가, 역대 중생이 진드기 하나 버리지 않고 전부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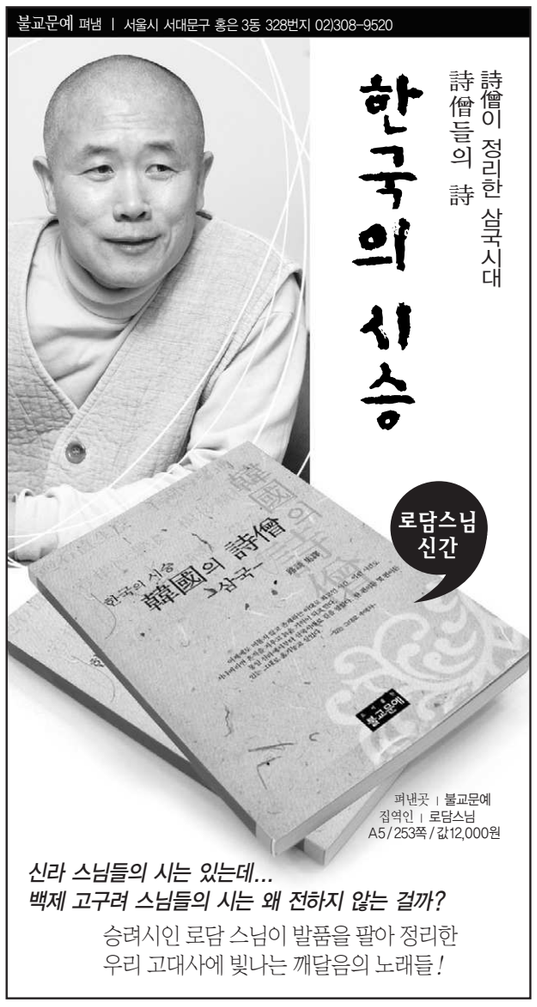
그래서 그 한마음마저 없다는 사실은 한마음이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부처님께서 한마음을 내실 때에 보살로서 화해서, 법신으로 화하시고 그래서 남이 응해 달라는 대로 응해 주시는, 한마음이 돼 주시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큰 호랑이가, 큰 소가, 큰 코끼리가 또는 독사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어떤 사람이 백정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아!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넣고 끊어지지 않는 그 마음이면 그대로 한마음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일을 할 적에나 똥을 눌 때나 잠을 잘 때나 일어설 때나 앉을 때나, 바로 내 부처가 내 마음 속에 있는 한마음의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때, 뭐든지 거기다 놓고 갈 때, 모든 걸 놓고 아주 잔잔하게 한데 한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법이 된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하면 일체제불이, 일체 보살이, 일체 조사가 다 그냥 한마음으로 들어서, 한 찰나에 드셔서 그 묘법을 가르쳐 주시고 한 찰나에 나신다 이거예요.

이 묘한 도리를, 이 무심도법(無心道法)을 여러분이 그렇게 갑자기, 도심으로써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터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는 것은 아마 나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기만 하면 뭘 합니까? 행하는 게 문제죠. 백 가지 천 가지를 안다 하더라도 한 가지 행을 못한다면, 그건 한 가지 행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습을 바꿀 때는 하나도 없이, 실오라기 하나 걸칠 게 없이 다 놓고 갑니다.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재물이나 보물은 방에서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집이 아무리 좋아도 대문 안에서 인사를 할 것이고, 친척 부부 지간이나 아무리 좋은 친구다 할지라도 동구 바깥에서 인사를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식은 그림자처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업식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그 고초는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 마시고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차원을 높여서 꼭 진실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조그맣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떼 놓을 때에 진실한 실천궁행이 되도록 이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사찰 매매 잔금 대출
불사 자금 대출
기타 대출 상담

재무부인가 제9-205호

▣ 문의전화 : 053)426-1037
▣ 전문상담 : 서일영 전무
C.P 011-527-1037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법정사
• 주 지 : 선덕성(속명:김영례)
• 주 소 : 서울 강동구 암사3동 산54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9일

한국불교임제선학원 종무총리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묘정사
• 주 지 : 초암
• 주 소 : 부산 부산진구 개금 2동 759번지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 세상보기

지관 스님

김포 용화사 주지

江은 생명 · 행복의 근원

'종교인 생명평화 100일 도보 순례단'이 한강과 남한강, 낙동강을 포함한 한반도운하 예정지의 '생명의 강'을 모시기 위해 2월 12일 김포의 애기봉전망대에서 출발하여 부산 낙동강 을숙도까지 50일간의 여정을 무사히 끝냈다.

출발한 첫째 날은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천막 잠을 자며, 한 마리 애벌레처럼 침낭 속으로 몸을 밀어 넣어보지만 혹한의 강바람은 잠을 설치기에 충분할 만큼 혹독했다. 침낭 옆 배낭 속의 페트병 물마저 얼어버릴 정도였다. 생명의 강을 모시기 이전에 내 몸 하나 제대로 추스르는 것도 쉽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사치였다고 느끼며, 내일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좀 더 따뜻하길 기다려 보지만 막바지 겨울의 첫날밤은 참으로 길기만 했다.

순례단 단장인 이필완 목사는 몸살과 독감으로 강둑길에서 쓰러진 뒤 깨어나자마자 엉엉 울었고, 새만금 삼보일배로 망가진 양 무릎을 3번이나 수술하여 지팡이를 짚고 걷는 수경 스님은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어느 성당의 성모마리아상 앞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잘 버티던 박남준 시인도 물금나루터에 들어오자마자 몸살감기로 잠시 입원을 해야 하는 등 우리 순례단 모두는 폐수가 흐르는 강물처럼 허위허위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

그동안 우리 순례단은 평일에는 50여명, 주말에는 수백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생명줄인 강변길을 걸어서 왔다. 그동안 약 1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구간 구간마다 도보순례에 동참하며 위기에 처한 우리 강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참회와 성찰의 기도를 하며 '한반도운하 구상'이라는 '유령'의 실체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보아왔다.

과연 우리들에게 강은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한반도운하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넘어서, 운하 개발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인간과 강 즉,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의 논리를 넘어서 우리들 세대만이 아닌, 면면히 이어갈 우리의 후손세대까지도 배려하자는 것이다. 우리들에게서 강은 생명줄, 그 자체인 것이다. 강은 그냥 강이 아니었다! 강은 매일 똑같으리라 생각하며 강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부운하 예정지의 1500리 강변을 따라 걷다가 살아 숨 쉬는 듯한 깨끗한 강물을 만날 때는 피로에 지친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곤 했다. 골재 채취 등으로 강줄기의 내장이 파헤쳐지거나, 각종 폐수로 시커멓게 죽어가는 강물과 마주칠 때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그만큼의 고통을 느껴야만 했다.

강은 산과 더불어 있고, 산은 강과 함께 있기 금수강산이라 말하지 않았던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옛 속담처럼 "수단(한반도운하)과 방법(살생과 파괴)을 가리지 않고, 목적(단기간의 경제부양)을 위한 것이라면 상관없다"라는 인식 속에서는, 불교의 근본가르침인 연기(인과)법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생명평화의 행복은 먼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남은 50일의 여정을 걸을 것이다. 호남운하와 충청운하의 예정지인 목포 영산강을 출발하여 금강 충주를 거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의 생명줄인 강을 살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간절한 소망을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흘러가는 강물의 속도에 맞추어 걸으며, 생명의 강과 하나가 될 것이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58 시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마음 바꾸기 작전

4월은 대학의 중간고사와 리포트를 제출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시험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고정관념은 "시험은 부담이다, 싫다"일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고등학교 때 과다한 공부와 경쟁을 거쳐 온 학생들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마음의 입력을 바꾸어보기로 했다.

우선 장애우도 있고 병원에 환자들도 있는데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고 했다. 실제로 한 학생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간호를 해드려야 해서 학교에 못 나오고 있다. 그런 큰 일없이 시험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마음 바꾸기 작전에 대해 한 학생이 이메일을 보내왔다.

"시험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마침 지구촌 시대에 살면서 제가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 주는 글이 있어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케다 가요코라는 사람이 구성한 내용을 약간 수정해 보았습니다."

학생의 글 중 일부를 소개한다.

지구 안의 나

만약 세상이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오늘 하루가 설레었나요? 오늘밤, 눈을 감으며 당신은 괜찮은 하루였다고 느낄 것 같나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 그 어디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되나요?

선뜻 "네, 물론이죠"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이 메일을 선사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주변이 조금 달라져 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계는 63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의 마을사람들 중에서, 20명이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자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모두 미국사람입니다. 또 74명이 39%를 차지하고 겨우 2%를 나머지 20명이 나눠가졌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가운데 20명이 80%를 사용하고 있고 80명이 20%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한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자가용이 있으면 7명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지구 마을 사람 가운데 1명은 대학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14명은 글도 읽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 지뢰로 인한 살육과 무장단체의 강간이나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은 20명보다 축복받았습니다.

이 메일을 읽는다면, 그 순간 당신의 행복은 두 배 세 배로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당신을 생각해서 이 메일을 보내 준 누군가가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은 맹인이 아니어서 글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상에 풀어놓은 사랑은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러니 사랑할 때는 마음껏 사랑하세요. 설령 당신이 상처를 받았다 해도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당신이 먼저 사랑하세요. 이 지구 마을에 살고 있는 당신과 다른 모든 이들을.

진정으로 나와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을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다면 정말로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비열한 힘으로부터 이 마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반드시.

행복한 기회로 만드세요

청년들은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다. 시험 스트레스에 나약하게 지지 않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처하기를 희망해 본다. 나아가 시험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자신의 실력을 쌓고 점검할 수 있는 행복한 기회로 만든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모범 보이는 '청불회' 되어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유혹을 뿌리치고 마음의 공덕을 쌓으려 애쓰기 바란다."

4월 3일 조계사에서 첫 법회를 봉행한 이명박정부의 청와대불자회 회원들에게 내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주문이다. 청와대불자회는 조직의 특성상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새로운 체제로 신행활동을 이어간다. 이번 정부의 불자회는 비교적 빨리 구성되었고 새로운 마음으로 첫 법회를 봉행한 것이다. 법회에서 청불회 김병국 회장은 "틈틈이 마음을 닦고 자신을 바로 보면서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청불회는 신행단체다. 그들이 일하는 곳이 국가 주요기관이라고 해서 그들이 결성한 불자회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신행단체일 뿐이다. 오히려 그들의 신분에 걸맞게 보다 간절한 국가관과 애민의식을 바탕으로 불자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행활동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과거에는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변양균씨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청불회장이라는 순수한 자리가 자신의 업무와 연관될 때 승가와 결부된 민망한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불자들은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김병국 회장의 취임사에 더 많은 관심이 갔다. 김 회장은 자리이타의 보살도를 청불회의 존재 목표로 설정했다. 청불회는 순수한 신행단체로서 주요기관에 종사자하는 불자들의 모임으로서 불교계는 물론 사회적인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 '관리' 하라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종교 시설에 투표소가 설치된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와 그 이전의 선거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던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지난 연말의 대선에 비해 사례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에 대한 부당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와 관련 불교계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낸 바 있고 국가인권위도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중앙선거관리관위원회(선관위)에 재고를 권유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짧은 시간 안에 종교시설에 대체할 만한 시설을 선정하는 작업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종교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인들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기관이 자칫 충돌을 야기 시킬 수 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종교시설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주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투표소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종교시설에는 위험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주민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선교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와 관련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면, 종교시설 내 투표소가 투표 이외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필름

한국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 출시!**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불법을 공부하시는 사부대중 –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모음

■ **염 송 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게 • 초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게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엄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및 신청 **(02) 2666-0676~8**
157-280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6 상희빌딩 301호
➔ 전국 소호점 문의 : 011-785-9398
➔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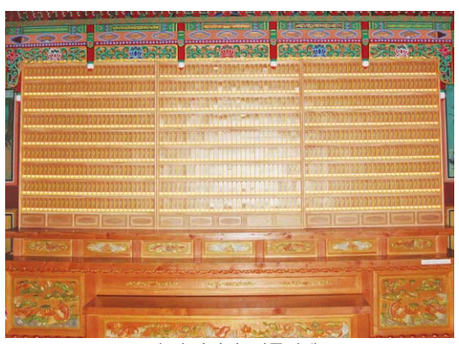
• **제품명 : 아이센스 T-108**
• **제품구성**
– 아이센스 · 염송경집 1부 · 염송의범 1부
– 기기크기 : 9.5cm×6cm, 화면크기 : 5cm×4cm, 기기두께 : 0.8cm
• **제품의 특징(개발동기)**
의식을 공부하시는 불자분들의 종전 학습방법은 책을 본다든지 테이프를 듣는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나, 본 제품은 염송경과 염송의범을 듣고 화면으로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한글로)과 의식까지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불경을 학습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 **제품사양**
컨텐츠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촬영, 내장형카메라, MP3, 멀티태스킹 · 백그라운드음악, 내장2G 플래시, 외장 2G, 320×240 TFT LCD 화면, FM라디오 내장, 터치패드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 영 · 일 · 한자 전자사전
※영어 · 일어 · 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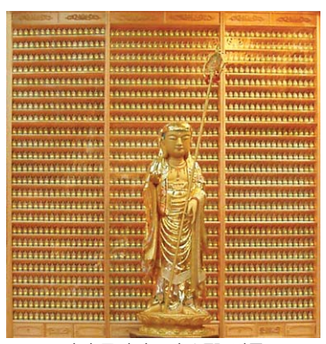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